금주의 법구–〈법구경〉
절제할 줄 모르는 것은 죄악이다
탐욕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긴 고통을 받지 않게 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4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5월 17일)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韓日불교 환경선언 必환경 실천 기틀

제39차 한일불교교류대회 日 중앙사서 성료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친환경'을 넘어 '필(必)환경' 시대가 찾아온 오늘날, 한국과 일본불교 지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환경오염에 불교의 역할을 모색했다. '환경문제와 불교'라는 주제 아래 양국 불교계는 자연재해 희생자의 영혼을 추선 공양하고, 세계평화의 항구를 기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후지타 류조)는 6월 1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츄오지(中央寺)지에서 한일 불교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불교발전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제39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개최했다.

양국 불교계는 이번 대회 주제를 '환경문제와 불교'로 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각국 불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원행 스님은 이날 세계평화기원 법요식에서 "우리는 불교를 흔히 '숲의 종교'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숲에서 태어나 깨달음을 얻으셨고, 가르침을 펼치고 열반하셨다"면서 "한일 양국 불교도 깊은 산중 사찰에서부터 도심에 이르기까지 뭇 생명과 교감하며 발전해왔다"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이어 "이번 대회가 다가올 미래세대에 대비해 양국 불교가 생태적 전통을 어떻게 조명하고 향유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도 이에 공감하며 "모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고심하는 것은 환경문제와 불교와의 중요한 관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양국 불교계는 생명을 존귀한 가치로 여기고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국 불교도는 세계적인 지진과 산불, 호우 등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으며, 앞으로 불교계가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데 뜻을 모았다.

공동선언문에는 구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지진이나 그리스 산불 등으로 인해 많은 생명을 잃었다. 희생자의 영혼을 추선 공양하고 더불어 세계평화의 항구를 기원하며, 불과(佛果)의 증진을 기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뿐만 아니라 양국 불교계는 학술대회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응할 방안과 역할 등을 모색했다. '환경문제와 불교의 관계'라는 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서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한국 사찰들도 자연과 조화롭지 않게 입지하거나 개발에 의한 환경 훼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자체 및 개발업체 등 외부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이 추진되기도 한다"면서 "불교계는 가치적·제도적·기술적 측면을 고려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단과 시민사회단체가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환경보존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양국 불교계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활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병인 교수는 그 일환으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불교환경선언 △환경지침서 발간 △양국 대표종단에 환경전담기구 설치 및 교류 등을 제안했다.

일본 측 발제자인 대정대학원 원장 코미네 미츠히고 스님은 연기법에서 환경문제와 불교의 관계를 살폈다. 미츠히고 스님은 "태풍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는 한편으로 인간이 관여해 일으킨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로부터 발생된 문제'로 볼 수 있다"면서 "결국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이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좋게도, 나쁘게도 만든다"고 설명했다.

韓日불교지도자 200여 명
환경문제 불교 역할 모색
미래세대 위한 활동 공감

양국 공동선언문 채택하고
"자연재해 희생자 극락왕생"
전문가들 실천방안 제언도

스님은 이어 "초목국토실개성불(草木國土悉皆成佛)은 인간을 둘러싼 초목에는 인간과 같은 마음이 없더라도 모두 부처가 된다는 뜻이다. 나아가 돌이나 바위도 해당한다"며 "바꿔 말하면 자연환경은 부처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 자체도, 그곳에 사는 우리도 모두가 부처의 분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한국 측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이 참가했다.



자장율사 향훈 느끼며 힐링을 신라 고승인 자장율사의 향훈을 느낄 수 있는 순례길이 개통됐다.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6월 8일 정암사 경내에서 자장율사 순례길 개통 기념식 및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정암사부터 적조암까지 이어지는 3.9km구간을 걸었으며, 보물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도 염원했다. '자장율사 순례길'은 정암사에서 만항마을까지 총 4.2㎞로, 한반도에 화엄사상을 처음 들여온 자장율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사진은 자장율사 순례길 개통식 참가대중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신성민 기자 · 사진제공=정선군

조계종, 청소년포교 전략 변화 본격화

포교원 어청위 마스터 플랜 구성 착수

청소년 교육에서의 국가정책 변화에 맞춘 불교계 움직임이 시작됐다. 조계종 포교원과 어린이청소년위원회가 중장기 청소년포교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산하 기획위원회(위원장 능후)는 6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청소년 포교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최근 정부는 청소년단체의 학교 내 활동 제한을 골자로 한 이른바 '탈학교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등 불교계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은 청소년 국가교육정책 변화에 맞춰 4월 24일 제78차 포교종책연찬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이날 기획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연찬회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한 정리와 이에 대한 포교원 포교연구실 등 종단 실무진 의견 청취, 전략과제 도출 및 향후 대응 논의 등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5월 23일 연찬회 후속과제로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측은 "사찰과 스님의 청소년 포교 필요성과 현재 위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종단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등 과제가 있다"며 각급 주체별 제도와 정책 정비, 일반 교사 조직화의 포교주체 발굴, 일상생활 접근과 진로진학 등 공공영역의 접근, 디지털컨텐츠의 개발 보급, 종단 청소년 포교활동 네트워크 점검 및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아 제시했다.

기획위원회 회의에서는 청소년 포교 생태계 구축을 위해 먼저 기초자료 구성과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이대성 기획위원(스토리평생교육원 원장)이 3~5개년으로 중기 계획 초안을 작성 차기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기획위원장 능후 스님은 "그동안 청소년 포교에서 큰 역할을 해 온 교육현장에서의 청소년 활동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교법사 외에도 청소년 포교에 관심있는 일선교사들의 조직화, 청소년공간 시범운영 등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계획을 짜고, 함께 대응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사찰음식 학인 최강자는 누구?

불교문화사업단, 8월 22~23일 사찰음식 경연대회

학인 스님과 일반인의 사찰음식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가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오는 8월 22~23일 서울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제3회 한국사찰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2013년 봉은사, 2014년 세텍(SETEC)에서 열린 '사찰음식 대축제'의 한 코너로 마련된 사찰음식 경연대회를 별도의 대규모 행사로 확대한 것이다. 당시에는 개인·단체부문으로 나눠 경연이 진행됐지만 올해는 학인스님과 일반부로 구분된다. 학인 스님부는 22일, 일반부는 23일 본선이 펼쳐진다. 경연은 모두 2인1조로 진행된다.

학인 스님부는 '이야기가 있는 사찰음식'을 주제로 사찰 혹은 은사에게 전수받거나 전해들은 것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사찰음식 메뉴 3개와 그에 얽힌 이야기를 선보이면 된다. 일반부는 '다가가기 쉬운 맛있는 사찰음식'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쉽고 친근하게 여길 수 있는 사찰음식 3가지를 조리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사찰음식의 조리 원칙에 따라 오신채(파·마늘·부추·달래·흥거-양파)와 동물성 식품,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서류접수는 7월 12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7월 29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에 본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학인 스님부와 일반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상금 15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학인 스님부 최우수상 4팀에는 교육원장상·포교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3팀에는 문화사업단장상과 상금 70만원이 주어진다. 일반부도 서울시장상·한식진흥원이사장상·문화사업단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02)2031-2051 윤호섭 기자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종단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원은 삼보를 호지하며 종단의 종헌종법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일반직 종무원들이 부정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객관적 사실 확인 및 종단 내부 절차 없이 기자회견과 사법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종헌종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종단은 해당 종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종단의 정당한 지시·명령에는 불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자회견 등 언론 홍보를 통해 본인들의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 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노동조합과 무관한 일반직 종무원의 종법 및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입니다. 종단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어떠한 탄압도 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는 현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종단의 대표자에 대한 무분별한 사회기관 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6대 집행부 출범으로 안정화 되고 있는 종단을 또다시 혼란스럽게 함은 물론 근무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심각한 종법 및 복무규정 위반 행위입니다.

대다수의 종무원들은 묵묵히 종무 현장에서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부 종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종무와 무관한 사안으로 근무 질서를 흩트리며 종무수행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 종무원들은 더 이상 종무와 무관한 정치적 주장으로 종단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하루 속히 본연의 임무인 종무수행에 충실히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종도들과 불자님 그리고 국민여러분들께 일부 종무원들의 행위로 일어난 본 사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종교단체로서 종헌종법에 의해 운영되는 우리 종단의 특수성과 종단운영의 자율성을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종무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불기2563(2019)년 6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진각종이 2016년 여름, 울릉도에서 개최한 회당문화축제. 현대불교 자료사진

진각종 회당축제, 3년 만에 울릉도로

7월 29~31일 진호국가불사 · 독도아리랑 주제

진각종 종조 회당 손규상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국가와 불교발전의 의미를 담은 회당문화축제가 3년 만에 울릉도에서 열린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은 7월 29~31일 진각종 회당 대종사 탄생성지인 울릉도에서 '2019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회당문화축제는 초창기부터 매년 여름 울릉도에서 개최해왔으나 지난 2년간은 행사장소를 서울과 경주로 변경한 바 있다. 진각종이 회당문화축제 장소를 다시 울릉도로 변경한 배경에는 김병수 울릉군수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9회당문화축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진호국가불사'와 '독도아리랑'을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기간에는 △특별 문화체험행사 △독도아리랑 콘서트 △울릉도 고지도전 · 독도사진전 등이 펼쳐진다.

문화체험행사는 참가자들이 청사초롱등에 직접 그림을 그려 등을 달고 점등하는 행사로서 울릉도의 여름밤을 환희로운 빛으로 수놓는다. 또한 회당문화축제의 백미인 독도아리랑 콘서트는 울릉도 선원심인당 내 선원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독도팝스오케스트라'의 공연, 울릉도에서 구전으로 이어지는 '선경가'를 선보이는 봉은국악합주단의 무대 등이 펼쳐진다. 또한 이 시대 소리꾼으로 손꼽히는 장사익 선생이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한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일부 종무원 징계, 노조 무관"

민주노총 조계종지부 논란에 6월 7일 입장 밝혀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이뤄진 일부 종무원 징계에 대해 노동조합과는 무관한 종무원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지부 소속 종무원들이 '부당징계'를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최근 일부 일반직 종무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객관적 사실 확인과 내부 절차 없이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종단 위상을 실추시키고 종헌종법을 위반했다"며 "종단은 해당 종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3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종단의 정당한 지시와 명령에 불복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홍보를 통해 본인들의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며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6월 7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이어 "본 사안은 노조와 무관한 종무원의 종법 및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다. 종단은 노조 또는 노조원에 대해 어떠한 탄압도 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조계종지부는 현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종단 대표자에 대한 사회기관 제소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계종은 조계종지부에 정치적 주장으로 종단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 것과 종무수행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은 "모든 종도들과 불자님, 국민여러분께 일부 종무원들의 행위로 일어난 사안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 종교단체로서 종헌종법에 의해 운영되는 종단 특수성과 자율성을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계종노조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자승 스님 고발 관련 자료는 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이며, 객관적인 사실 확인 후 정당한 고발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총무원은 조계종노조에 대한 탄압과 조합원 중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호섭 기자

선거갈등 태고종, 양측 입장차 '평행선'

편백운 스님, 종단 각급기관장 연석회의 개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중앙종회와 원로회의 불신임 결정 이후 내홍을 거듭하고 있는 태고종이 양쪽으로 분열돼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로 구종(求宗)이라는 대의적인 명분 아래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면서 제 갈 길 바쁜 모양새다.

편백운 스님은 6월 11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태고종 종단 각급기관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편백운 스님 측에 따르면 연석회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월봉 스님, 중앙교육원장 보경 스님, 법규위원장 서봉 스님, 고시위원장 원명 스님, 대구경북 · 서울강북 · 서울북부 종무원장 등 종단 중진스님 60여 명이 참석했다.

편백운 스님은 이 자리서 종회의장 도광 스님과 종회의원들이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고, 〈한국불교신문〉 명예훼손 기사 게재 금지 가처분도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 집행부는 제27대 총무원장선거가 집행부와 종회 간 갈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기회가 돼야 한다. 전 종도가 참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직선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편백운 스님은 "종단 위상 제고와 종도들의 전법활동을 위한 새로운 태고종을 위해서라면 총무원장 자리에만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선관위는 보궐선거를 중단하고 종회는 불신임을 철회해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 직선제를 실시한다면 총무원장직을 내려놓고

선거 진행 중 직선제 지지
"총무원장직 연연하지 않아"
종단수습위원회 구성 제안
3.14 종회 무효 주장 여전

다수의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선거에 재신임을 묻는 용단을 내릴 수 있다"고 선언했다.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원장 월봉 스님도 편백운 스님과 뜻을 같이 했다. 월봉 스님은 2017년 종회서 선거법을 직선제로 개정하려 했으나 부결됐을 당시 직선제안을 제안한 인물이기도 하다.

월봉 스님은 "전 종도가 참여하는 총무원장 직선제를 위한 가부(可否)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면서 "총무원장



태고종 편백운 스님을 비롯한 종단 일부 중진스님들이 6월 11일 AW컨벤션센터에서 '각급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직선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은 민주적인 직선제로 선출하는 게 본인의 소신"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종단 사태 수습을 위해 총무원 · 중앙종회 · 호법원 · 원로회의 등 대표 2인이 참여하는 종단수습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제26대 편백운 집행부가 주도해 종단안정을 이루도록 지지 △검찰 결정 존중과 고소인의 참회 △3.14 종회와 3.20 원로회의 결정 원천무효 △총무원장 직무대행 전성오 스님 불인정 △총무원장 보궐선거 불인정 △단독후보 호명 스님 후보 사퇴 △구종대책위원회 구성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의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이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종단 내 분위기는 어수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월봉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선제에 대한 개인의 소신을 밝히기 위해 참석했을 뿐 결의사항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편백운 스님이 개최한 연석회의에 중앙종회는 크게 개의치 않는 반응이다. 중앙종회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친(親) 편백운 집행부 인사들이다. 종무원장도 극히 일부만 참석했다. 무혐의 관련 사건도 검찰이 재기수사 중"이라며 "직선제를 운운하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이용해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태고종 중앙선관위는 6월 12일 선거인단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무원장 등 총 126명의 선거인단을 확정했다. 또한 호명 스님이 총무원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관계로, 무투표 당선을 선거인단에 안내한 뒤 선거일인 27일 후보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구인사 개산, 소백산 연화성지 발전"

구인사 개산 74주년 법요
사부대중 1000여 명 참석

천태종 스님과 불자들이 총본산 단양 구인사 개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구인사를 개산한 상월원각조사의 정신을 본받아 중생구제 원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6월 7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구인사 개산 7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류한우 단양군수 등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도용 스님은 "일체중생 구제의 자비 원력이 소백산에 빛나 정각의 도량이 열렸으니 한국불교의 위대한 새날이 밝았어라. 백년대계의 큰 뜻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한 해 한 해 높아가는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개산 74주년을 맞아 봉행된 법요식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덕의 탑을 보니 성현의 가르침 그 참뜻이 더해가는구나. 제행은 무상이나 정법은 불변이라. 하얀 연꽃 피워내는 일승의 도리 참된 길을 교시하신 그 길을 따라 대중들이여, 깊은 믿음과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개산의 거룩한 뜻을 시현하라"고 법어를 내렸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상월원각대조사께서는 이 자리에 초가삼간을 지으시고 '억조창생 구제중생 구인사'라 명명하시어 1945년 단오일에 산문을 여셨다. 그로부터 74년이 지난 오늘, 소백의 연화성지는 수수만만의 중생이 귀의하는 대도량이 되었고, 개인의 복락을 증명하고 오탁악세를 제도하는 위대한 가르침을 구하는 정진의 열기도 가득하다"고 구인사 개산의 의미를 되새겼다.

문덕 스님은 이어 "오늘 우리는 제불보살님의 가피를 소리 높여 찬탄하고,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원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다짐한 후 "천태불자들의 정진 공덕이 원만각행으로 회향될 때 이 도량의 광채가 하늘을 덮을 것이요, 오탁악세를 연화정토로 바꾸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축사에서 "구인사는 천태종 종도들의 근본 수행도량이자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정신적 귀의처"라며 "단양이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은 것도 구인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구인사가 단양군에 있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사찰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주일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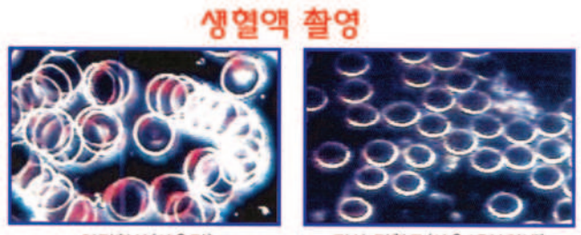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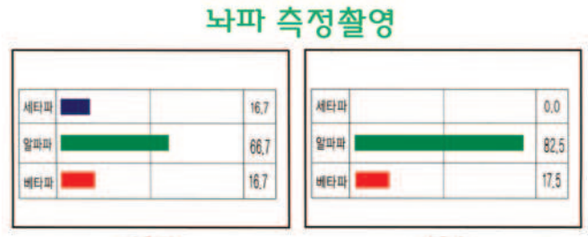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불교명상·깨달음 상관관계 살핀다

한국명상지도자협, 6월 29일 첫 명상지도자포럼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혜거)는 6월 2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명상과 깨달음'을 주제로 한국명상지도자포럼을 개최한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다양한 명상법을 수련 보급하는 명상 현장 지도자들이 모여 명상의 대중화, 생활화를 기치로 명상전문지도사 양성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협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근본불교의 위빠사나 명상법을 비롯하여 대승과 티벳, 화두참선, 그리고 명상상담 분야까지 다양한 명상 단체와 지도자들이 참여해 '깨달음'에 대해 논의한다.

그동안 제기된 불교계 내 다양한 깨달음 논쟁에서 더 나아가 현대화된 명상의 입장에서 발제와 토론을 통해 불교수행과 명상의 접점을 찾는다.

박희승 명상지도자협회 이사는 "지금 지구촌에는 명상 열풍이 불고 있다. 이제 명상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심리 치유와 평상심 회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글, 삼성 같은 첨단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명상을 교육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명상연구모임이 활동하고 있다. 공립학교에서는 명상이 교과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명상은 깨달음의 종교 차원을 넘어 기업, 교육, 의료, 스포츠, 산업 영역에까지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명상과 참선, 위빠사나와 간화선 등과 깨달음의 관계를 고찰해 그동안 현장에서 다양하게 진행된 명상 주제를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초기명상부터 통합명상까지
시대별 명상전통, 발전 논의

이번 포럼에서 동사섭 프로그램으로 명상의 현대화를 열어 온 용타 스님(명상지도자협회 명예회장)이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상임이사인 목우선원 인경 스님의 사회 하에 김열권 마하위빠사나명상원 원장의 '초기불교의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오상목 행복수업 교장의 '티벳불교의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장 지운 스님의 '통합명상의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의 '참선불교의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이 각각 발표된다.

또 김재성 자애통찰명상원 원장,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 행불선원 선원장 월호 스님, 수월관음명상센터장 수월스님의 분야별 토론도 진행된다.

상임이사 인경 스님은 "깨달음이란 대승불교의 화두 앞에서 명상이 답을 구하는 차례다. 개인적 마음치유와 안정을 넘어 사회고 해소와 실천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명상분야의 확대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불교 가르침에 대한 명상 접근을 짚는 것은 의미가 깊다"며 "이후에도 명상의 사회적 효과, 불교 포교에서의 명상과의 접점 등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명상 대중화와 인류 행복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명상포럼은 협회 소속 명상지도사 외에도 관심있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02)953-5307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완비 추진

문화재청 미래비전 전략 발표

개청 20주년을 맞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관련 행정을 일신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문화재청은 오는 2022년까지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을 완비하고 문화재 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6월 11일 서울 삼성동 민속극장 풍류에서 미래 정책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화재청은 '미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우리 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6대 핵심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문화유산 관리체계 혁신'이다. 이를 통해 문화재청은 현재의 지정 위주의 문화재 관리가 아닌 목록주의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현재의 한국의 지정주의 문화재 관리체계는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예산과 인적 자원이 부족했던 시기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지 못한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은 보존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단점도 존재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호에 걸맞은 목록주의 등 새로운 보호방식 체계를 도입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 보호 방식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인식 범위 확대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략이다. 현재까지 문화재 행정은 점(點)과 선(線), 개별 문화재 위주의 보존 관리 범위를 보여줬다. 문화재청은 이를 면(面) 단위의 공간적 개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보존·방재의 과학화 역시 주목할 만 하다. 특히 문화재청은 2022년까지 모든 국가지정 목조 문화재에 방재시설을 100% 설치할 것을 공언했다. 2040년까지 석조·동산 문화재의 첨단 방재시설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선포식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새롭게 발표하는 문화유산 비전과 핵심 전략은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가올 미래사회에서 문화유산의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대불련 동문, '청년불교 부흥' 원력 결집

대불련 총동문회, 6월 22일 선운사서 전국동문대회

청년불교 진흥 마애불 기도
동문 원력 한데 모아 결의

청년불교 부흥을 위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백효흠)가 원력을 다시 모은다. 대불련 총동문회가 최근 대불련 지회 복원 움직임에 맞춰 동아리방 리모델링, 장학금 지원, 캠퍼스 홍보 후원 등 청년 포교에 역주한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6월 12일 서울 견지동 홍성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7회 전국동문대회 개최에 대해 발표했다. '화합과 정진으로 하나되는 대불련'을 캐치프레이즈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고창 선운사와 고창성송체육회관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동문대회는 500여 대불련 동문들이 참여한다.

이번 대회가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미래불교 활성화 결의와 젊은 불자 육성 발원 기도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불련 총동문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청년포교 비전을 선포한 대불련 총동문회는 최근 소멸 지회 복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동문대회서는 이러한 원력을 다시 결집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결의문에서는 현재 65곳인 대불련 지회를 100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멸지회 복원 TF팀을 운영하고, 지회 동문 및 재학생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하며, 대학별 불교동아리와 인근 사찰을 연계하는 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대회 첫날에는 입재식과 함께 대불련 동문과 재학생들이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지며, 둘째 날은 도솔암 사찰 순례, 일주문 앞에서 사천왕문까지 삼보일배, 명상 수행 등도 진행된다.

백효흠 회장은 "대불련 총동문회는 15만 동문이 있는 교계 최대 동문조직"이라며 "불교 미래인 청년불자들을 양성하는데는 대불련 동문들의 힘이 절실하다. 아직까지 전체 동문들의 원력을 이끌어 내기에 미흡하고 보다 확산 시키기 위해 동문들의 결집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대불련의 미래와 함께 한국불교 발전을 발원하며 총동문회가 추진하는 청년불자 육성 사업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번 전국동문대회 이후 대불련 총동문회는 사단법인 대불을 통한 청년사업도 본격화한다. 사단법인 대불은 대불련 40주년을 계기로 구성된 종교법인으로 2020년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유선재 수석부회장도 "매년 4개 지회 복원이 목표다. 학생 친화적인 동아리방 리모델링, 템플스테이 지원 등으로 대학 포교, 청년 포교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효흠 회장은 "대불 10주년을 앞두고 불교 콘텐츠 개발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산실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통해 청년불자 육성을 이끌겠다. 대불련 살리기 운동도 대불을 통해 새로운 불사로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소금 묻으며 火魔 막는 발원을

6월 7일, 양기가 가장 충만한 날인 음력 5월 5일 단오을 맞아 조계사는 '단오재 화기애애(和氣愛愛)'를 봉행하고 신도님 가정에 행복과 화재예방을 기원했다. 주지 지현 스님은 대웅전 부처님전에 모셨던 소금단지를 의식단으로 이운하고, 한자로 물 수(水)자를 쓴 종이로 봉안했다. 4개의 소금단지는 신도들의 화엄성중 정근 속에 조계사 앞마당 해태상 주변으로 하나씩 묻혔다. 바닷물로 불기운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다. 이어서 주지 지현스님과 대중스님께서 80세 이상 어르신 10명을 모시고 청포물에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식을 통해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노덕현 기자

고성 산불 이재민 꾸준한 지원 눈길

아름다운동행 6월 11일 속초·고성 찾아 물품 지원

불교계가 고성 속초 산불 이재민 지원에 꾸준히 나서 눈길을 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은 6월 11일 강원도 속초시청과 고성군청을 잇달아 방문해 이재민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조계종은 지난 4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산불 피해지역을 위로 방문했다. 이어 불교 각계의 위문과 피해복구 지원이 이어졌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이날 속초시청에는 약 4000만원 상당의 43인치 LED TV 64대를, 고성군에는 5000여 만원 상당의 525L냉장고 75대를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많은 스님과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줬다"며 "스님과 불자들의 힘을 받아 하루빨리 피해지역이 복구되고 이재민들이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신흥사 낙산사 등 지역 사찰에서도 힘을 보태주고 있다. 지속적인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길탁 속초부시장도 "피해 이재민들에게 스님과 불자들의 정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6월 10일까지 산불 피해복구 기금으로 3억 9720만원이 모연됐다. 특히 사찰의 동참 외에도 한구대학생불교연합회를 비롯한 청년들의 동참과 개인후원자들의 동참도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청년불교 활성화 비결 '자발성'

비영리법인 다나, 2019년 계획 발표
대한불교진흥원과 숨도 공간 운영
청년문화기획단으로 활성화 유도
'노터치'로 자연스러운 포교전법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송운석 다나 대표가 숨도 7층 대강당을 소개하고 있다. 다나는 숨도를 청년포교산실로 가꿀 예정이다.

청년불교 진흥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다양한 활동이 눈길을 끈다. 비영리법인 다나(대표 송운석)는 6월 10일 신촌 문화공간 숨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운영방향을 밝혔다.

다나는 올해 2월 1일부터 대한불교진흥원으로부터 문화공간 숨도를 위탁받은 운영주체다. 문화공간 숨도의 경우 2011년 1월 3일 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 등 동양문화 관련 활동과 청년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신촌에 개관한 공간이다.

이날 송운석 대표는 "올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기획을 내 활동하는 다나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문화기획단을 통해 대학생들이 스스로 필요로 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다나는 서울 신촌에 위치한 숨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지역 불교학생회와 일반학생들을 중심으로 연합법회, 불교문화영상 크리에이터 양성 등에 앞장서 왔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의존을 낮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일런트 피크닉 행사 등도 개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송 대표는 "노터치(no touch) 노로직(no logic)으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를 읽고 이들이 자발적, 자율적으로 모여 불교를 알아가도록 하는게 목적"이라며 "불교를 내세우지 않아도 명상과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를 접하며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운석 대표는 1994년 BBS불교방송에서 라디오를 듣다 불교를 접하고 이후 불법홍포에 매진하게 됐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송 대표는 대학생들이 우연히 불교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도 발심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송 대표는 "외부에서 아무리 불교를 믿으라고 해도 결국 신심과 동기부여가 되어야 불교를 알아가게 된다"며 "대학가에서 자발적으로 수업 구성을 하는 다나 프로젝트를 먼저 시행했을 때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향후 다나는 숨도를 젊은 세대 감각에 맞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특히 커뮤니티 활동과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7층 대강당을 청년문화 콘텐츠 LAB으로 제공하고, 숨도의 성격에 맞는 단체들에게 대관한다. 또 1층의 책극장을 활용해 월간 사람 프로젝트와 북 콘서트 등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1층에 위치한 소우주 극장에서 청년들의 영상전시를 후원, 전통문화 콘텐츠 실험 및 정기적인 네트워크 모임도 진행한다.

특히 SNS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행사 및 강연 영상을 제공한다.

단국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송 대표는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기획, 홍보기획 등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모집해 적극적으로 알려가겠다"며 "불교는 젊고, 활동적이며, 시대와 호흡한다는 점을 청년들에게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나는 6월 19일 문화공간 숨도에서 월간 사람 '세상은 됐고, 나를 바꾼다' 특강과 6월 22일부터 청년 전통 크리에이터 워크숍을 개최한다.

제 4 회 Cheontae Order of Korean Buddhism Art Award 2019

천태예술 공모대전

대한불교천태종은 다양한 예술분야의 저변확대를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4회 천태예술공모 대전을 개최합니다.
불화(전통·현대), 조각, 공예, 서예·문인화, 민화
총 5개 분야에서 참신한 예술가를 발굴합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 2019. 08.28 (수) ~ 29 (목)
전시 2019. 10.23 (수) ~ 28 (월)

● 분야 및 부문별 공모 개요

부 문	규 격	출품료	출품제한	자격	유의사항
불 화	200호 미만 (300cm 미만)	1점당 50,000원	1인 2점	제한 없음	표구된 완성작만 접수 가능 작품제작과정 담은 세부 작품설명 필요
조 각	높이 250cm 미만	1점당 50,000원			조립한 완성품으로 제출 작품제작과정 담은 세부 작품설명 필요
공 예	높이 200cm 이하 가로x세로 200cm 이하	1점당 50,000원	1인 3점		작품제작과정 담은 세부 작품설명 필요
서 예 문인화	전지 이하 가로 70x세로 130cm	1점당 50,000원			배접하지 않고 접수 (입상작 표구비 7만원 별도)
민 화	120호 미만	1점당 50,000원			배접, 액자 제작 후 접수
※ 전 분야 대학 재학생 할인 30,000원					액자 유리 금지

● 시상 내역

시 상	수상인원	시상내역	비고
대 상	1명	상금 2,000만원 상장상패	종단 귀속
최우수상	2명	상금 각 500만원 상장상패	
부문별우수상	5명(부문별 1명)	상금 각 100만원 상장상패	
가작	5명(부문별 1명)	상금 각 50만원 상장상패	
장려상	10명(부문별 2명)	상금 각 30만원 상장상패	
특선	부문별 약간명	상장 및 상품	
입선	부문별 약간명	상장	

● 시상식 및 전시
시상식 일정 추후 공지
전시 - 10월 23~28일 서울 인사동 동덕아트갤러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51-8 동덕빌딩 지하 1층

● 유의사항
- 대상작은 종단 귀속.
- 필요 시 입상작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특선 이하 작품은 전시장 사정상 전시하지 못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출품원서(소정양식) 1부
-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 대학생 학생증 사본
※ 작품 사진 미부착, 작품 제목, 설명 및 규격 미기재, 주소 및 연락처 미기재 등 소정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원서 제출자의 작품은 추후 심사에서 탈락되오니, 원서 및 작품설명서를 충실하게 기재해주세요.

● 원서 배부 및 작품 접수
- 공모 요강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6월부터 확인.
- 원서 등록 : 방문접수, 우편접수 (우편발송의 경우 29일 도착 분까지)
- 접수 기간 : 8월 28일(수)~29일(목)
-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접수 장소 : 관문사 2층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 접수 계좌
- 작품 접수비는 계좌로만 수납 접수. 현금 수납 불가.
- 출품자와 출품료 입금자 명의 동일.
- 8월 29일까지 이체된 접수비에 한해 접수 완료.
- 계좌 번호 : 신한은행 100-030-083607 예금주 대한불교천태종

● 작품 반출
- 낙선작은 심사 발표 후 1주일 이내에 출품자 본인(대리인의 경우 출품자 확인)이 접수증 확인 후 회수.
※ 일정 추후 공지
- 입상작은 전시 종료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시장에서 본인 및 대리인(접수증 확인)이 반출.

● 문의 - 제4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 02-547-4746

● 심사 발표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 및 개별 문자 통보

자세한 사항은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 주관 제4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 |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 후원 금강신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

동국대, 융복합 인재양성 나선다

사회보장정보원 등과 6월 4일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나선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6월 4일 본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과 '4차 산업 혁명 시대 융합형 인재양성 및 병원 의료정보 표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국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융합형 인재양성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관련 분야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상생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대학생 명예 청렴 옴부즈맨 제도 도입 △사회보장정보 분야 강좌 개설 등 다양한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동국대 의료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의 보건의료표준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진료정보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동국대와 동국대 의료원은 사회복지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가진 정보원의 가용한 데이터를 각종 연구에 활용하고 복지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 및 의료분야 표준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련분야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를 바란다"며 "실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및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월 4일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윤성이 동국대 총장(사진 가운데)과 임희택 사회보장정보원장(사진 왼쪽), 조성민 동국대 의료원장(사진 오른쪽)이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성민 동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사회보장정보원은 이미 의료정보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동국대 의료원도 보건의료 표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희택 사회보장정보원장은 "융합형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는 동국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관련 분야의 공동연구 수행 및 의료 정보와 보안 분야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협력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봉은사, '미륵대불 원불 봉안 불사' 점안

6월 16일 미륵광장서 봉안식 봉행

봉은사(주지 원명)는 6월 16일 40여년 만에 숙원 대작불사인 '미륵대불 원불 봉안 불사 점안식'을 미륵대불 미륵광장에서 봉행했다.

봉은사 미륵대불 불사는 영암 스님이 '민족통일을 발원하는 미륵대불을 봉안하자'는 원력으로 시작했던 대작불사다. 하지만 미륵대불 조성 후 주변 벽면불사는 20년간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에 봉은사는 지난해 9월 30일 불사를 완성하고자 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천일기도를 시작으로 1차 불사 점안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2차 불사 점안식에서는 추가로 미륵원불 1,432위(총3,999위)와 보살입상 9위(총23위)가 대중에 선보였다. 점안식에는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천수경, 화취진언, 목욕진언, 축원 등 의식을 진행했다.

주지 원명 스님은 "미륵대불 불사는 봉은사 신도들의 신심과 저력의 산물"이라며 "그동안 원불 봉안부터 미륵대불 용화정토 장엄까지 참여한 모든 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동참하신 분들 모두가 가정에 행복과 지혜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봉은사 미륵대불과 미륵광장 전경.

미륵대불 원불 봉안 불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봉은사 홈페이지(www.bongeunsa.org) 및 02-3218-4801~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불교진흥원, 제16회 대원상 후보 공모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접수, 출 · 재가 구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이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16회 대원상(大圓賞) 후보를 공모한다. 대원상은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 · 장려하기 위해 시상하는 상이다.

공모 부문은 출가 · 재가로 구분된다. 출가부문은 3인(곳) 이내로 시상하며,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한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또는 스님 중심의 단체 ·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단체 · 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한다.

재가 부문도 3인(곳) 이내로 시상한다. 불교정신과 사상을 고취 · 확산시키고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된다. 단체 · 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0~2000만원, 특별상 500~1000만원, 장려상 300~6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청 희망자는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진흥원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02)719-2606

한편 대원상은 현재까지 개인 67명(스님21 · 재가자46), 단체 31곳을 시상했다.

윤호섭 기자

대한불교 삼보회, 여름불교대학 개설

7월 7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진행

55년간 대중불교를 선도해 온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보회(이사장 유억근)가 화엄경 소초를 중심으로 불교 정체성 정립에 기여한 백암성총 사상과 화엄 사상 전개를 조명하는 제45회 삼보여름불교대학을 개설한다.

7월 7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총 8주간 서울 성북구 삼보정사서 진행되는 이번 삼보여름불교대학은 각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강의할 예정이다. △김성철 동국대 교수의 '현대과학으로 풀이한 법성계' △석길암 동국대 교수의 '화엄삼매와 가피 속에서 쫓아가는 부처님 발자국' △이종수 순천대 교수의 '조선후기 화엄경 소초의 전래와 강원의 발전'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의 '백암성총의 사상과 불교사적 위치' △최종석 금강대 명예교수의 '불교의 세계관과 행복' △중앙승가대 4대 총장 종범 스님의 '화엄경 특강' △김영진 동국대 교수의 '화엄경과 비로자나불' △정병조 금강대 4대 총장의 회향법문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4만원이다. 한편, 대한불교삼보회는 불교계 최초의 재가불자 신행단체로 서울 삼보정사에서 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2년 포교사 과정과 별도로 법사과정을 개설했으며, 2년 이상 포교경력을 가진 포교사들을 삼보법사로 양성, 배출하고 있다. 활동분야는 군포교와 병원포교 분야에 최근 호스피스 활동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02)913-2859

노덕현 기자



사단법인 행복한마을에서 사부대중 공동체 생활을 하는 스님과 재가불자들. 사부대중의 미소가 환하다.



행복한마을 조감도. 앞으로 법당과 공방, 복지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스님들의 수행공간인 심검당.



사무동으로 활용될 제너홀.

사부대중 공동체 마을 門 '활짝'

6월 30일 공식 오픈하는 거창 (사)행복한마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혼밥, 혼술이란 단어가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사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삶은 행복할까? 공동체는 개인이기주의가 넘치는 현대인의 삶에 무슨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참된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건강한 공동체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 '무경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장하며 모든 생명이 행복하길 기원하는 대승불교 근본정신이 녹아있다. 거창에는 이를 표방하는 행복한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사부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가 모여 수행하고 생활하며 바른 수행공동체를 구축하고 너와 나를 넘어 모두를 위한 참된 삶을 제시한다. 사부대중 공동체 행복한마을이 새로운 공동체 시설 '심검당'과 '제너홀'을 열고 공동체의 삶으로 초대한다. 행복한마을은 경남 거창군 남하리 대야리에 1만6000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번 개관식은 불사 성과를 보여주는 첫 시작이다.

사단법인 행복한마을(촌장 은산)은 6월 30일 거창 행복한마을에서 심검당과 제너홀 오픈 기념식을 연다.

행복한마을은 2006년 촌장 은산 스님이 창건한 행복한절을 중심으로 조성된 공동체 마을이다. (사)행복한마을은 사부대중 수행공간을 위한 불사를 진행 중이며, 새롭게 문을 여는 '심검당(尋劍堂)'은 스님들의 공간이다. 심검당은 '칼을 찾는 집'이란 뜻으로, 지혜의 칼로 무명과 번뇌를 끊고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행복한마을은 "심검당은 스님들이 출가 후 열반까지 오직 수행하고 대중의 스승이 되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마련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건물은 총 3층 규모로 14개의 방사가 있으며 가운데는 중정(中庭)이 있다. 중정은 내면을 향해 있기를 바라는 뜻으로 특별히 기획됐으며 순천 선암사 심검당 중정을 모델로 했다.

첫 입주는 분양형식(모연)에 따르며 입적 후 2대째부터는 처음 방사를 들인 스님의 인연을 우선으로 상좌 혹은 도반을 지정하면 인계된다. 건물은 현대식으로 각 방마다 편의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및 다실 등도 마련돼 있다.

'제너홀'은 행복한마을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는 마을 전체 메인 센터다. 행복한마을 관련 종무 기능뿐 아니라 타 지역 사부대중 공동체 수립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총 3층이며 1층은 사무실, 2층은 상담소, 3층은 자급자족 사업체 베지나랑 운영자들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재가자를 위한 공간 '휴심정(休心庭)'은 내년 중 완공될 예정이다. 휴심정에는 15가구가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대중회의를 진행하고 의사 결정하는 '광장'과 현대식 개인 생활공간으로 꾸며진다.

입주자 권리는 직계 가족에게 인계되며 분양권

불사 마친 심검당 · 제너홀 공개
바른 공동체 정신 대중에 알리며
자급자족 무소유의 삶으로 초대
법당 · 공방 등 추가 불사 계획도

인양은 합의를 통해 공동체 수행 삶을 따르는 조건을 기본으로 회의에 따라 결정된다. 입주자는 마을회의에 의무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채식과 오계를 기본으로 지키는 수행이 강조된다. 아울러 자급자족을 위한 공동 울력에도 참여하게 된다.

행복한마을은 법당, 설법전, 사부대중 공방 불사도 계획 중이다. 공방은 행복한마을에서 자급자족을 위한 울력 공간이다. 행복한마을은 앞으로 사업체 베지나랑(채식당)을 후원하고 청정한 채식 공양을 통해 지구 환경운동에 앞장선다.

개관 기념식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며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과 태국의 불교수행공동체 시사아속 촌장인 아펌이 방문해 축사한다. 시사아속은 사원, 마을, 학교로 이뤄진 불교수행공동체로 자립을 넘어 사회에 많은 환원 활동으로 공동체 모범이 되고 있다.

은산 스님은 "행복한마을이 추구하는 방향은 수행자는 수행자답게, 재가불자는 재가불자답게 사는 삶"이라며 "이는 자신의 개인이익을 버리고 모두 각자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는 보살의 삶, 즉 화엄의 세계와 같고 진정한 사부대중으로 불교수행공동체를 이루는 삶이다. 무소유의 삶이 공동체 이념이며 '우주를 집으로 모든 생명을 가족으로 삼는 대중심(大衆心)'의 첫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기념식에 이어 심검당 및 제너홀 건물 라운딩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심검당 모델하우스가 마련돼 실재 삶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공양은 (사)행복한마을에서 운영하는 채식음식 전문점 베지나랑에서 마련한다. 베지나랑은 채식을 뜻하는 '베지'와 깨달음을 의미하는 '나랑'의 합성어로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자급자족 대표 사업체이다. 현재 거창과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행복한마을 시스템을 알리는 공공생활, 심검당 및 휴심정 입주모연, 축하공연 등이 함께 펼쳐진다.

행복한마을의 수행 중심지인 행복한절은 설립 13년을 맞았으며 행복한마을 사부대중 공동체는 11년이 됐다. (사)행복한마을은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자는 원력으로 만클릭 기부활동, 저소득 청소년 노인 반찬 지원사업 등 행복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행복한절 주지 은산 스님은 지난 13년 동안 불교대학을 열어 수계자 500여 명을 배출하고 20여 명의 포교사를 양성했다. 현재 거창과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나랑명상센터에서 불교강의 및 명상수업으로 일반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베지나랑에서는 음식명상 및 행복한 공양주 양성 프로젝트 등으로 새로운 불교문화를 이끌고 있다. 재가자 공간은 이미 부산에도 마련돼 4가구가 함께 모여 살며 수행 중이다. 다가 올 개관식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

부산 휴심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옥선 불자(50 · 도당)는 "공동체 삶이 곧 성장의 길이었고 깨달음으로 가는 참된 삶이었다. 새롭게 불사되는 공간에서 저와 같이 행복한 삶으로 함께 가는 도반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산 스님은 "사부대중 공동체는 모든 인류의 삶의 형태"라며 "현대사회에 이를 잘 복원해 인류 전체에 삶의 지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자세한 정보와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www.koreatemplefood.com

학인스님부
주제 이야기가 있는 사찰음식
자격 종단 기본교육기관 사미, 사미니 학인(2인 1조)
상금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 1팀 150만원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상 2팀 100만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상 2팀 100만원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상 3팀 70만원

일반부
주제 다가가기 쉬운 맛있는 사찰음식
자격 사찰음식에 관심 있는 전국 남녀노소 누구나(2인 1조)
상금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 1팀 150만원
• 서울시장상 1팀
• 한식진흥원 이사장상 2팀 100만원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상 3팀 70만원

예선
서류 접수 2019년 6월 10일(월) ~ 7월 12일(금)
본선 발표 2019년 7월 29일(월) 홈페이지 게시

본선
학인스님부 2019년 8월 22일(목)
일반부 2019년 8월 23일(금)
장소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2019년 8월 23일(금) 17:00
※수상자에게 개별통지

접수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팀
전화 : (02)2031-2051
이메일 : templefood@templestay.com

유의사항
1. 본선 진출작의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귀속됩니다.
2. 사찰음식은 오신채(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양파)), 육류, 어류, 동물성 식품,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시 자동 탈락됩니다.



제3회 한국사찰음식 경연대회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식진흥원

통도사, 단오 맞아 재난예방 기원

6월 7일 설법전서 용왕재… 소금단지 교체도

영축총림 통도사가 단오절을 맞아 재난을 막고 각 신도의 가정에 안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했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6월 7일 설법전에서 단오절 용왕재를 봉행했다. 통도사는 단오절이면 각 전각 기둥 모서리에 소금단지를 교체하고 화재가 없기를 기원한다. 올해는 우천으로 설법전에서 진행됐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0여 명은 단오재에 참가해 나라와 각 가정에 화마와 사고가 없기를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대중에게 소금을 전달하고 화마가 없기를 기원하고 있다.

용왕재를 마치고 주지 현문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불자들에게 소금 봉투를 나누는 일도 진행됐다.

주지 현문 스님은 "방장스님께서 '번개가 아무리 친다 해도 바다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 하셨다"며 "이처럼 화마에 영향 받지 않는 평안한 한 해를 기원하며, 바닷물을 떠오고 소금단지를 교체한다. 한 해 동안 안녕을 기원하는 통도사 용왕재에 많은 불자들이 참석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통도사 단오절 소금봉투에는 대광명전 평방에 적혀있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화마진언으로 내용은 "우리 집에 한 분 손님이 계시니, 바로 바다 속에 사는 사람이다. 입에는 하늘에 넘치는 물을 머금어, 불의 정신을 소멸할 수 있네"이다.

통도사 대광명전은 '대광명전 삼성공필후 현판' 에 따르면 화재로 전소돼 1758년 9월에 다시 지어졌으며, 내부 좌우 평방에 화마진언이 적혀있고 이후 화재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통도사=하성미 기자

자비나눔으로 밝힌 부산 동래구

동래구불교聯, 자비의 쌀 1000kg 및 수납형 행거 전달

부산 동래구불교연합회 스님들이 동래구청을 방문해 자비의 쌀과 수납형 행거를 전달했다. 전달품은 관내 저소득 가정에 기부될 예정이다.

동래구불교연합회(회장 효문)는 6월 11일 동래구청장실을 방문하고 이웃돕기 물품 '자비의 쌀 1000kg 및 수납형 행거 230개' 를 기탁했다. 전달식에는 동래구불교연합회장 효문 스님, 부회장 해운 스님, 사무총장 용하 스님 및 회원 스님들과 이대우 동래구 부구청장, 조광심 불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자비의 쌀은 사무총장 용하 스님이, 행거는 보이차 전문점 진향당에서 동래구불교연합회에 전달했으며, 회원 스님들의 결정으로 동래구에 기탁했다.

앞으로 동래구불교연합회는 회장 효문 스님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효심밥상' 을 중심으로 정기적 나눔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효심밥상은 효심사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이며 지난 6월 4일 효심사는 범어사 포교당으로 등록됐다. 동래구불교연합회는 현재 50여개의 회원사찰이 등록되어 있으며 1996년에 창립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일붕 서경보 스님 23주기 추모재

사단법인 대한불교선교종(총무원장 삼주)은 6월 11일 대전 총무원청사에서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존자 탄신 105주년 다례제 및 원적 23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종정 법운 스님과 최혜숙 이사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무원장 삼주 스님은 "일붕존자 유지를 잘 받들어 세계평화를 하루 빨리 이루겠다. 함께 불국토를 이뤄 나가자"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태권도로 불법홍포, 心身 다진다"

세계불교태권도협회, 6월 9일 은해사서 창립

은해사=손문철 대구지사장

불자 태권도인들이 스포츠 포교의 불모지였던 태권도를 바탕으로 불법홍포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다.

세계불교태권도협회(총재 김욱한)는 6월 9일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육화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협회는 불교를 기반으로 태권도 정신을 선양하고, 부처님 근본 가르침인 지혜와 자비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다. 태권도 9단인 김욱한 ㈜진영정밀 대표를 중심으로 현직 태권도장 관장과 코치, 심판,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1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

특히 협회는 호국불교의 산실 은해사와 긴밀한 인연을 맺고, 태권도분야서 불교계의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창립법회가 열린 이날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불굴사 주지 덕관 스님, 선본사 주지 법성 스님 등 스님들도 자리에 함께해 세계불교태권도협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아울러 최기문 영천시장, 주호영 정각회 명예회장 등도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욱한 총재는 "세계불교태권도협회는 예와 덕을 추구하는 태권도의 무예정신에 불교수행을 접목한 단체다. 세계적인 무예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한다"면서 "불교문화 확산과 발전에도 협회가 기여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삼국통일을 이룬 화랑도정신이 깃든 은해사에서 세계불교태권도협회가 창립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세계적으로 자비정신과 지혜정신을 갖춘 단체가 되길 바란다. 은해사는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장으로 항상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관장 · 코치 · 심판 등 100여명
불교문화 확산 위해 뜻 모아
오는 가을 불자태권도 대회
어린이 · 청소년들 참여 기대

은해사가 위치한 영천은 국내 최초의 태권도 전용체육관이 설립돼 있으며, 지자체가 태권도 실업팀을 운영하는 지역이다. 이에 세계불교태권도협회는 은해사를 재적사찰로 정하고, 주지 돈관 스님을 명예총재로 추대했다. 아울러 오는 가을 천년고도 경주에서 어린이 · 청소년 등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제1회 불자태권도 대회' 를 개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세계불교태권도협회는 우선 8월 중 은해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회원화합과 불자로서의 기본소양 다지기에 나선다. 이후 부산경남 · 대구경북 지부를 결성하는 한편, 전국 시도별 지자체에 지부를 설치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계획하고 있다.


세계불교태권도협회 회원과 은해사 스님들, 지역 태권도장 어린이 · 청소년들이 협회 창립을 기념하는 모습.

세계불교태권도협회가 정기적으로 불자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불자선수 발굴에 힘을 쏟으면 앞으로 스포츠분야의 인재양성에 불교계가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문섭 협회 고문은 "아직까지는 조직이 대구경북에 한정돼 있지만 머지않아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부처님오신날이 5월 불교계의 가장 큰 행사인 것처럼 불자태권도 대회가 또 하나의 문화 축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 종교 · 시민사회 새만금 해수유통 촉구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각계 100인 선언문 발표

전북지역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100명이 6월 4일 전북도청 앞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의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요구하고 나섰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전북녹색연합 상임대표 회일 스님(참좋은 우리절 주지),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마이산 탑사 주지), 전주고백교회 한상렬 목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대표 문규현 신부 등 종교인과 시민사회단체 100명으로 구성된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은 '새만금 해수유통 촉구 전북 종교계 · 시민사회 대표 100인 선언문' 을 발표하고 새만금의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촉구했다.

종교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선언문에서 "새만금사업은 거짓과 무지, 탐욕에서 비롯된 잘못된 사업이었다"며 "잘못된 사업을 끝내 막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새만금사업에 대한 깊은 성찰과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새만금과 전북을 살리는 길은 2020년 해수유통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청 앞에서 종교 · 시민사회계 대표 100인이 새만금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또 "20년 동안 4조원을 쏟아부은 수질개선 사업의 결과가 새만금호 수질 6급수"라며 "새만금에 바닷물을 상시적으로 유통시키고 '새만금 민 · 관 협의회' 를 만들어 전북도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북행동은 "올해부터 '스마트수변도시' 로 내부개발이 본격화되지만 죽음의 호수 위에 스마트한 국제도시를 만드는 일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하고 "2020년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만금 사업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새만금 해수유통을 이루지 못한다면 후대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에 동참하고 있는 불교계 인사들은 대공 스님(김제 구룡사 주지), 덕산 스님(금선암 주지), 도연 스님(상주사 주지), 도홍 스님(성덕사 주지), 무여 스님(귀신사 주지), 법만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진 스님(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익산 태봉사), 승묵 스님(남원 실상사 주지), 우경 스님(천고사), 종범 스님(고창 미소사 주지),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 행담 스님(군산 염불사 주지), 현법 스님(김제 영천사 주지), 회일 스님(전북녹색연합 상임대표) 등 다수의 스님들이 이름을 올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 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 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입종을 환영합니다 전남 장흥 계 암 스님 | 전남 순천 연 오 스님

본 종단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한마음조계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제방의 대덕 큰스님이하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종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 도 모 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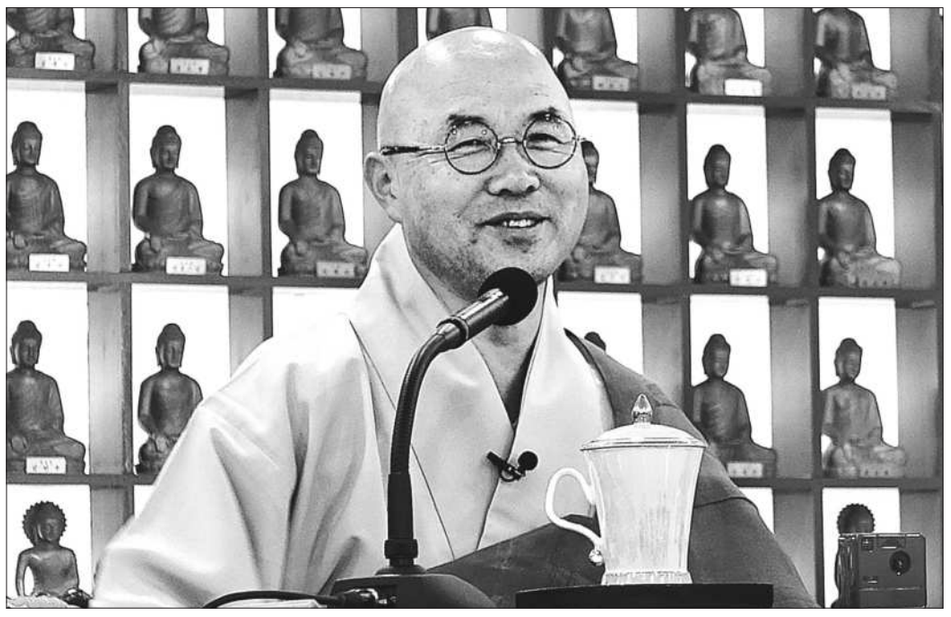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8호 011-870-0021

참선아카데미 대강좌

자비심, 나를 당당하게 하는 원동력

주제 : 참사람수행법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금강 스님은… 해남 미황사 주지로 17세에 출가, 대흥사 · 해인사 · 백양사 등에서 공부했다. 실직자단기출가수련회, 무문관, 참사람의 향기, 템플스테이 등에서 20년간 선 수행을 지도했다. 틱낫한, 톱텐가쵸, 노먼 피셔와 같은 외국의 선 스승들을 한국에 소개했다. 저서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물 흐르고 꽃은 피네〉 등이 있다.

IMF 사회 아픔 어루만진
참사람의 향기의 시작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 돼
부처 본성 있음 믿고 수행을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해남 미황사의 주지 금강 스님은 30여 년 전 퇴락한 미황사에 들어와 참선수행 '참사람의 향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찾는 이유는 일상의 괴로움과 고민을 해결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8일 제2기 참선아카데미 대강좌에서는 금강 스님이 법사로 나서 '참사람의 향기'를 하게 된 계기와 그 내용의 핵심에 대해 전했다. 지상 중계를 통해 스님이 전하는 참사람의 향기를 맡아보자.

정리=노덕현 기자

저는 1997년도에 장성 백양사에 살게 됐습니다. 조계종 5대 종정을 지내신 서옹 큰스님이 87세때 백양사로 불렀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큰 어른으로 계신 분이 87세가 되셨으니 법문이나 글이나 이런 것을 정리하러 오라고 하는가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님의 마무리를 해드리는 건지 알았습니다. 막상 갔더니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고 당신은 20세기 말에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망은 어느 시대나 같았다. 지금의 사람들의 욕망이나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나 욕망의 무게는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20세기는 과학이 욕망을 만나 극대화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뭐 하나 보는 것도 두 눈으로만 봐야 했는데, 지금은 세계 어느 곳이든 본다. 보려고 하는 욕망이 과학을 만나 확장된 것이다. 귀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편지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보감에는 100리 내에 나온 음식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라는 것인데, 지금은 전세계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욕망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 사람들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울까요? 서옹 스님께서는 1997년 "사람의 욕망이 과학을 만남으로 인해 인류는 역사상 가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 환경이 무한히 파괴되고 있고 핵무기까지 개발해서 인류 역사상 자신들이 자신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다. 욕망이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시대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참사람운동이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인류를 걱정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에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1년 쯤 있다보니 1998년 어느날 아침에 스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나라가 망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위 정신적 지도자들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답을 내놔봐라."

IMF때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많은 이들이 자살까지 하는 것이 기사에 실린 것이었습니다. 아침 공양 끝나고 나자 이렇게 얘기하셔서 인사드리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공양 끝나고 또 부르셨습니다. 아차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루종일 IMF에 대해, 외환위기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방장실로 부르셨습니다. 쭈삣쭈삣하고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렇게 4일 되다가 참선 프로그램을 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삶을 되돌아 보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생각하고 실직자를 위한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했습니다. 맑은 공기에 절밥도 먹으며 스님들 법문도 듣고 참선도 하며 잠시라도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말씀드리니 스님께서 '그럼 해봐'라고 하셨습니다. 5박 6일 프로그램으로 5개월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40명이 왔습니다. 다 흙빛이었습니다.

신청자들 중에서 고르고 골랐습니다. 진짜 실직자들이었습니다. 그 중 2명이 위장참가자였습니다. 경영진이었는데 절반 가량을 내보내야 하는 업체였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5박 6일이 지나고 나니 다들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 하게 하는데 나이가 많은 참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부인이 제발 도시락이라도 싸줄테니 남들처럼 공원이라도 나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원에 가서 잘 지냈는데, 둘째날이 되니 내가 지금 무얼 하는지, 가만 생각해보니 사회 낙오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기술을 가르쳐 주고 노하우를 전수해줬는데 아무도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무능한 가장이었습니다. 5일째가 되면서 세상에 필요없는 존재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살 의향도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고 나니 그동안 사람답게 못 살았구나,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한생각에 치우쳐 있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동안 미뤄놨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는 힘이 납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저도 잠을 못 이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온 분들 대부분이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수행이 필요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17살에 출가를 하다보니 세상살이를 여러분들처럼 해보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출가를 하다보니 잘 모르는데, 참선 수련회를 하면서 매일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듣다보니 그것이 세상사를 알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는 부처님의 종교입니다.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평생을 깨달음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완성되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 분은 45년간 세상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법문하셨던 분입니다. 삶의 모습에서도 보여줬고, 8만 4천 법문에서 일러주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잘 알면 이 생의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장 완성되게 기록한 경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을 보면 부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부처님의 수많은 설법은 무엇때문인가 보면 바로 깨달음, 해탈을 이야기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참선을 하는 이유도 깨달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반야경〉에 나와 있습니다. 〈법화경〉은 7권, 〈반야경〉은 600권이나 됩니다. 가장 방대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이 필요한가요? 이것은 바로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자비로움을 갖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 혼자 살 순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려면 부모님이 있어야 하고 부모님의 보살핌이 있어야 합니다. 옷가지와 집과 사람이 성장해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실내에도 밝은 등불이 필요한데 누가 만들어 준 것입니까. 이 멋진 참불선원 법당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장엄하고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다 자비심입니다.

요즘 미황사에서는 부채를 나눠줍니다. 거기에 염화미소라고 쓰고 아침이면 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 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하신 가르침을 얘기한 것입니다. 지혜의 꽃, 자비의 꽃, 티끌하나 없이 청정한 꽃입니다.

참선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들어보인 꽃, 염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섭존자가 지은 미소를 띠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동일한 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벽을 쳐다보고 참선하면 객진번뇌가 사라지고, 부처와 같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야기한 지혜와 덕상이 있다는 시각으로 경전을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선가귀감의 첫 부분을 보면 '有一物於此 從本以來 昭昭靈靈 不曾生不曾滅 名不得狀不得'이라 합니다.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하여 일찍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으며,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밝음 우리의 본래 성품의 본질인 것입니다. 개로 태어나면 개의 행동을,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의 행동을 하지만 그 안에는 각자 신령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나무가 가지를 살짝 드는 것도 신령스럽다는데 사람이 팔을 흔들고 온갖 것을 알아차리고 하는 행동 그 자체가 신령스럽다는 것입니다.

잠깐도 생한 적이 없고 잠깐도 멸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몸은 생멸이 있지만 알아차림은 생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름이나 그려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니, 마음이니 우리는 이름을 붙이지만 소소령령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놔두고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한 물건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한 물건은 어디에 있느냐. 생각하기 이전, 말하기 전에 있습니다. 육조 혜능 선사는 바로 이 성품을 무념무상 무주라고 했습니다.

번뇌와 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심을 떠나야 합니다. 번뇌 망상이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욕심이 일어나기 전 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욕심으로 인해 번뇌가 일고, 이 과정에서 경쟁 등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님의 상이 있고, 대통령의 상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정보가 틀을 만듭니다. 그 틀에 맞춰 스스로를 구속하고 이를 통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과 자유를 가로 막는 것은 번뇌이고 집착입니다. 우리 마음에 모두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해탈한다고 하는 것은 본래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는 무념 무상 무주, 지혜와 자비가 있는 마음입니다. 아주 고요한 마음입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수행을 깊게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로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음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당당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제45회 삼보여름불교대학

진리의 꽃밭(화엄)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

55년간 지성불교의 산실로 불교의 정법구현과 대중불교를 선도해 온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보회가 조선 후기 숭유배불(崇儒排佛)의 암흑기에 전래된 화엄경 소초를 중심으로 불교의 정체성 정립에 기여한 백암성총의 사상과 화엄의 꽃을 피운 역사적 사실을 조명하기 위해 제45회 삼보여름불교대학을 개설합니다.

개설안내

일 시 불기2563(2019)년 7월 7일 ~ 8월 25일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총 8주)

장 소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보회. 삼보정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08 (서경대학교 정문 앞)

교 통 지하철 4호선 길음역 3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64, 2115번 이용 꿈나라도서관 하차

동참금 40,000원 (2개월) **문 의** 02)913-2859

일 자	법 사		주 제
7월 07일	김성철 교수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교수 • 한국불교학회 회장	현대과학으로 풀이한 법성계
14일	석길암 교수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교수 • 한국불교학회 편집위원장	화엄삼매와 가피 속에서 쫓아가는 부처님 발자국
21일	이종수 교수	•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조선후기 화엄경소초의 전래와 강원의 발전
28일	만당 스님	• 불갑사 주지 • 조계종 중앙종회 법제분과 위원장 •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백암성총의 사상과 불교사적 위치
8월 04일	최종석 교수	• 금강대학교 명예교수	불교의 세계관과 행복
11일	종범 스님	• 중앙승가대학교 제4대 총장 • 삼보여름불교대학 학장	화엄경 특강
18일	김영진 교수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교수	화엄경과 비로자나불
25일	정병조 박사	• 금강대학교 제4대 총장 • 삼보사이버불교대학 학장	회향법문

불기 2563년 6월 13일 | 삼보여름불교대학 학장 종 범 |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보회 이사장 유 억 근

부설 • 삼보법회 • 삼보여름불교대학 • 삼보장학회 • 수행도량 삼보정사
• 삼보법사회 • 삼보사이버불교대학 • 삼보연꽃어린이집

본질 닿는 신비한 주문 '단순성'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⑪ **브랑쿠시와 미라레빠**



오귀스트 로댕, 〈입맞춤〉, 1880-1898년, 대리석, 117 x 112.3 x 181.5 cm, 프랑스 로댕 미술관 소장.

콘스탄틴 브랑쿠시, 〈입맞춤〉, 1916년, 석회암, 58.4 x 33.7 x 25.4cm,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소장

직육면체의 크지 않은 돌조각. 전체 덩어리를 수직으로 반분하는 단면은 이 남녀가 각자 분리된 존재임을 말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수평의 완만한 선으로 묘사된 두 팔은 서로를 감싸 안고 있으며, 분리된 좌우의 매스는 딱 한 부분 입맞춤하는 남녀의 입술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두 눈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으나 마치 하나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전체의 형상은 두 인물의 인체의 사실적인 윤곽을 따르기보다는 두 대상이 마치 하나로 합쳐진 듯한 직육면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은 브랑쿠시의 〈입맞춤(The Kiss)〉이다.

루마니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자란 콘스탄틴 브랑쿠시(Constantin Brancusi, 1876~1957)는 어릴 적부터 나무 따위를 깎아 물건을 만드는 일에 놀라운 재주를 보였다고 한다. 18세 때 그는 우연히 자신의 일터 근처에서 구한 재료로 수제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이에 감명을 받은 한 공장주가 그를 크라이요바 예술공예학교(Craiova School of Arts and Crafts)에 입학하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일화가 있다. 이후 그는 부카레스트 미술 학교(Bucharest School of Fine Arts)에 진학하여 조각을 전공하였다.

루마니아를 떠난 브랑쿠시는 파리에서 새로운 예술적 사상을 지닌 다양한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국립예술학교에 소속된 앙토냉 메르시에의 워크숍에서 2년간 작업을 하게 된다. 이미 조각가로 명성이 높았던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과의 조우는 이때 이루어졌다. 브랑쿠시의 재능을 인정한 로댕은 그를 자신의 조수로 두기를 원하였으나, 브랑쿠시는 "큰 나무 밑에서는 아무 것도 자랄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2개월 만에 로댕의 스튜디오를 떠난다. 로댕과 결별하면서부터 시작된 브랑쿠시의 〈입맞춤〉 연작은 이후 36년간 지속적으로 제작되어 총 6점이 남아있다.

국내에서도 상영되어 인기를 끌었던 영화 '까미유 끌로델' 은 조각에 천부적 재능을 가진 여인이 로댕을 만나게 되어 애증의 관계를 이어가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극적인 줄거리이다. 까미유는 로댕의 조수이자 연인이었으나 독자적인 예술가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로댕 작품의 표절 내지 아류작을 만드는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여, 마침내 여인으로서 로댕의 사랑조차 잃어버리고 정신병원에 갇혀 홀로 쓸쓸히 슬픈 삶을 마감하게 된다.

그는 까미유의 비극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일까? 물론 영화나 소설이 다큐멘터리처럼 반드시 실제 현실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은 아니다. 당대의 조각가로 인정받고 있던 로댕의 제안을 받은 브랑쿠시는 예술가로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가늠해 보며, 적지 않게 고민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로댕의 조각 '입맞춤' 은 하나의 쇼케이스에 들어갈 대표적 작품이다. 우리가 로댕을 떠올릴 때 '생각하는 사람' , '발자크' , '지옥의 문' 등을 연상하는 것처럼, '입맞춤' 역시 로댕의 전형적이고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이다. 대가 로댕의 문하에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고 약간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조수 노릇을 뿌리치고, 황량한 벌판으로 뛰어나왔던 젊은 브랑쿠시는 '입맞춤' 이라는 같은 주제로 전혀 다른 표현방식의 작품을 사람들에게 선보였다.

로댕의 '입맞춤' 은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파올로와 프란체스카(Paolo and Francesca)' 의 이야기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것이다. 대리석으로 빚어낸 두 연인의 모습은 마치 열정이 극에 달한 정점의 멈춤을 포착한 듯한데, 역설적으로 보는 이들을 영원한 시간의 끝점으로 이끄는 것 같다. 그러나 로댕의 '입맞춤' 은 브랑쿠시의 작품과는 달리 조형적으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 외형을 충실하게 모사하고 있다. 인물의 비례, 조화, 균형 그리고 인체 근육의 양감, 질감 및 동세, 이 모든 것들은 실재하는 사물을 재현하는 전통적인 표현 기법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러시아의 문예 이론가 빅토르 시클롭스키(Viktor Borisovich Shklovski)는 "새로운 양식은 새로운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술적 가치를 상실한 낡은 양식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문예에서 뿐만 아니라 미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브랑쿠시가 재해석한 '입맞춤' 은 동일한 주제로 앞서 제작된 로댕의 작품에 대한 헌정이나 오마쥬라기보다는, 오히려 '거부' 인 것처럼 여겨진다. 어쩌면 브랑쿠시가 새로운 양식의 예술 정신을 추구할 무렵, 로댕의 작품세계는 이미 낡아 있었다.

"모든 예술은 '자연의 모방' "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처럼,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주류 문명에서의 조각 작품은 비록 정신적 특질을 중시한다 해도, 조형적으로는 실제 사물을 사실과 흡사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로댕을 굳이 사실주의 내지 리얼리즘이라는 특정한 사조로 분류하기는 어렵겠지만, 조형적 측면에서 사실주의적 전통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조각가로 이해할 수 있다.

브랑쿠시의 작품 중 하나는 이것이 과연 미술품인지 아닌지를 놓고, 실제로 재판까지 벌어진 일화가 있다. 1928년 사진작가인 에드워드 스타이켄(Edward Steichen)이 브랑쿠시의 작품 '공간 속의 새(Bird in Space)' 를 소지하고 뉴욕 세관

조각가 브랑쿠시 '입맞춤'
거장 로댕 작품과 비견
'직관 강조' 미라레빠 영향
영성 함축한 선시와 같아

을 통과하려다 관세를 물게 되면서 비롯된 사건이다.

원래 미술품은 면세 품목이었다. "이 작품은 새를 표현한 조각 작품이다"라는 스타이켄의 주장과 달리, 세관원의 눈에 '공간 속의 새' 가 어느 모로 보나 미술품으로 보이지 않았다. 전혀 새처럼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분명 예술품이라는 스타이켄의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결국 세관원은 이 작품을 '가정용품/수술용품' 의 범주로 분류하여 240불의 관세를 매겼던 것이다.

비록 브랑쿠시 스스로는 자신의 작품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마땅찮아 했으나, 그는 뒤이은 추상주의 현대조각가들에게는 횃불을 든 선구자 같은 존재였다.

19세기 교통과 무역의 발달로 유럽인의 지평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등 이전까지 생소했던 미지의 문화권으로 확대되었으며, 이것은 다양한 문화적 요인들이 예술 양식에 혼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유럽에 도자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포장지에 그려진 일본의 우키요에 판화가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에게 영향을 줘 '자포니즘' 이라는 경향을 낳는가 하면, 아메리카 인디언의 음악을 자신의 창작에 반영한 드보르작과 같은 음악가도 있었으며, 아프리카의 민속 공예품과 구조물은 유럽 예술가들의 작품 제작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 또 기독교적 지배 질서가 해체되면서 그 이전까지 금기시되었던 러시아, 북유럽, 동유럽, 게르만 등의 민족 신화와 민속 문화 등이 예술 제작의 모티프로 편입되었다.

작가의 예술 정신은 개인의 경험, 정신적 고뇌, 기원 그리고 해방의 영적 체험 등등, 이 모든 것이 혼합된 토양에서 꽃을 피운다. 작가의 삶은 그의 작품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브랑쿠시는 성년 이후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했지만, 성장기 루마니아에서의 체험에 기인한 문화적 특성은 그의 작품에 짙게 배어 있다. 어린 브랑쿠시는 투박한 칼로 나무를 깎았을 것이다. 그가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는 모든 물건에는 루마니아의 민속예술의 정취가 만져졌다. 또 19세기말 이후 진행된 범세계적인 문화 혼합 현상에 따라, 직접적이든 자료로든 작가는 어렵지 않게 고대의 조각 혹은 아프리카의 토속적 문화유산에 접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브랑쿠시의 손에서 선구적인 모더니즘 조각 작품으로 빚어졌다.

예를 들어, 브랑쿠시의 작품 〈왕들 중의 왕(King of kings)〉의 원래 제목은 '부처의 정신(L' esprit du Bouddha)' 이었다. 애초에 이 작품은 1933년 인도의 한 지방 통치자가 브랑쿠시의 명성을 듣고 자신의 명상 사원 건립에 그를 커미셔너로 촉탁하여 제작한 것이다. 그러나 계획안을 완성하여 건설을 시작하고자 막상 브랑쿠시가 1937년 인도를 방문했을 때, 그 통치자가 계획에 관심을 잃어 이 작품은 반환되고 말았다. 아프리카 혹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토템폴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불교의 교리에서 받은 감명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다. 나무를 소재로 한 브랑쿠시의 작품은 대개 영적 존재나 힘을 암시한다.

앞에 언급한 로댕과 브랑쿠시 작품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로댕의 작품이 마에스트로의 손길이 빚어낸 장대한 서사시라면, 브랑쿠시의 작품은 시적 서정과 영성(靈性)을 몇 개의 단어로 함축된 한 편의 선시(禪詩)처럼 다가온다.

브랑쿠시의 '입맞춤' 에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재현하기 위한 모든 기술적 표현은 생략되었다. 그 대신 돌의 질감과 양감 그리고 순간의 진리를 완벽하게 포착하기 위한 함축적인 곡선과 직선이 전부이다. 사물을 충실하게 재현하고자 하는 충동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내적 진실에 더 접근하게 된다. 그저 두 조각으로 나뉜 돌의 왼쪽은 여자이고 오른쪽은 남자일 뿐이다. 또한 브랑쿠시의 '입맞춤' 은 물질성과 시간성을 초월한다. 그것은 너와 나의 화해이고, 켜켜이 쌓인 슬픔을 딛고 선 마주침이며, 영겁을 돌고 돌아 마주한 눈빛이고, 영원한 진리와의 완전한 만남이다. 브랑쿠시는 사물과 대상의 정수만을 함축적으로 나타냄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오히려 더 명징하고 높은 차원의 영성과 진리에 이르게 한다.

브랑쿠시의 예술 정신에 깊은 영감을 불어 넣었던 티벳의 성자 미라레빠(Jetsun Milarepa, 1028/40-1111/23)는 육바라밀의 노래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 사물을 직관하여 아는 것 이외에는"이라고 말한다.

브랑쿠시에게 조각의 행위는 '모든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 이었고, '단단한 진실과 함께 하는 일' 이었다. 그 진실은 세상을 더욱 명료하게 만들고, 삶을 빛나게 한다. 깨달음을 위해 수행처럼 이어진 브랑쿠시의 조각 행위는 마음을 열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세상과 타인의 근본에 이르고, 그들이 지닌 단순성에서 오는 진솔한 만남을 갈구한 것이리라. 평생 추구한 맑고 깨끗한 마음과 욕심을 덜어낸 선택과 매일의 성실함과 꾸준한 손길이 빚어낸 브랑쿠시의 조각에서 세상 모든 것의 깊이를 만난다. 브랑쿠시에게 있어, 일체의 불필요함을 덜어낸 단순성은 사물과 대상의 본질에 가 닿는 신비한 주문이었다.

깨달은 사람은 만물이 마음의 소산임을 아네.
그러니 밤낮으로 마음을 관(觀)하라.
마음을 지켜본다면 그대는 아무런 실체가 없음을 보게 되리.
그러니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지에 그대 마음 머물게 하라.

미라레빠의 〈십만송〉 중에서

〈미술학자〉



바람 부는 날이면 차 한 잔 하십시다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⑪ 스님들과 선비들의 끽다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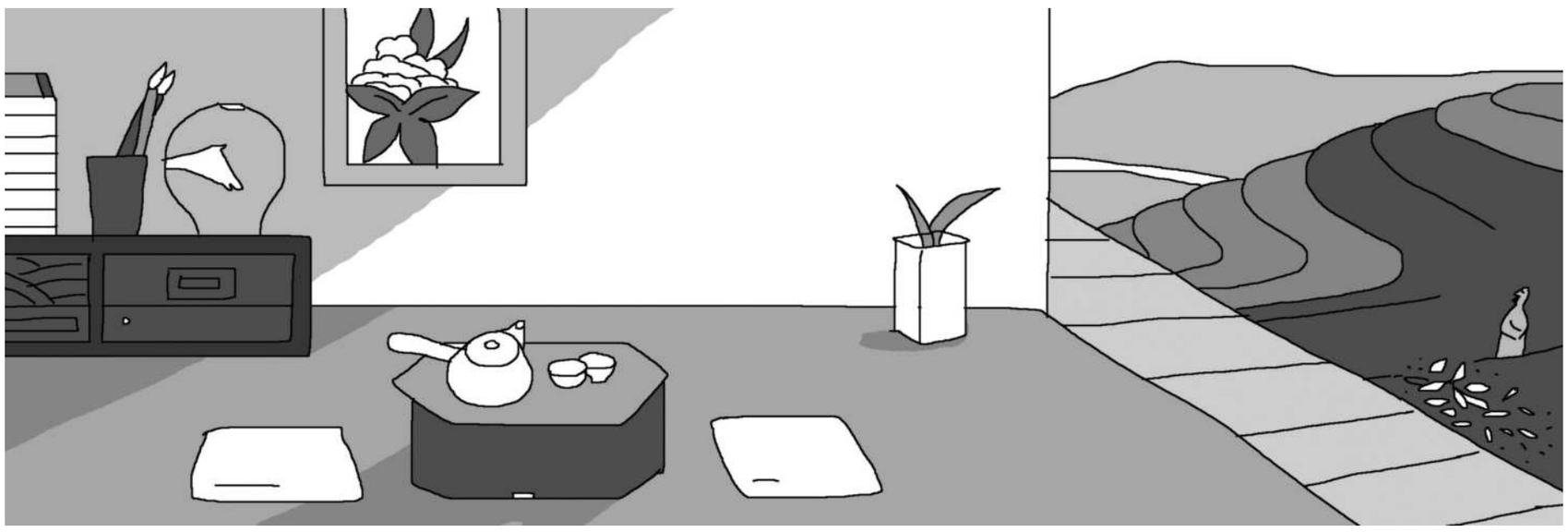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남해에도 다인(茶人)이 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 나는 읍내에 있는 유배문학관을 찾았다.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 있는 섬 남해는 고려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와서 고단한 삶을 살던 곳이기도 하다. 유배하면 제주도의 추사 김정희나 강진의 다산 정약용을 떠올리는데, 남해에도 꽤나 이름난 명사들이 많이 유배를 왔다.

〈화전별곡〉을 남긴 자암 김구(金絿, 1488~1534)와 한글소설가 서포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이 대표적인 인물일 것이다.

내가 이곳 남해에 정착하게 된 계기도 따지고 보면 유배문학 때문이다. 2012년 나는 남해군에서 김만중의 유배문학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김만중 문학상의 세 번째 대상 수상 작가가 되었다. 김만중이 남해에 유배를 와 왜 새삼스럽게 한글로 두 편의 장편소설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썼는지를 상상한 소설 '남해는 잠들지 않는다'가 수상작이었다.

이 소설을 투고하고 얼마 뒤, 남해에 온 나는 그의 유배지로 알려진 남해군 노도를 들렀다. 그곳에는 김만중의 초옥(草屋)과 가묘(假墓)가 있다. 가묘 앞에 선 나는 당선이 되면 당신처럼 이곳에 내려와 글을 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당선이 되었다. 당선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바로 남해행 버스표를 끊고 짐을 꾸렸다. 그렇게 7년이 세월이 지났고, 나는 여전히 남해에서 글을 쓰며 산다.

유배문학관에 간 것은 새삼 수상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그날 그곳에서는 한국다도협회 남해다향지부가 주최한 창포다례제(菖蒲茶禮祭)가 열렸는데, 그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작년부터 나는 지역신문 〈남해시대신문〉에 남해의 문화단체를 탐방해 소개하는 글을 쓰고 있다. 남해다향지부를 이끌고 있는 다도인(茶道人) 이금숙 선생을 취재하려고 연락했다가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올해 다례제에서는 남해와 나라를 지킨 여덟 분의 호국영령들을 모시고 헌다(獻茶)하는 행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그 중 한 분인 김만중 선생의 대역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다. 나도 분수는 아는지라 사양했지만, 거듭 부탁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외람된 대역을 맡고야 말았다.

우리나라 차의 역사는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단다. 백산차(白山茶)라 불리는 차가 있어 당시의 차 문화가 어떠했는지 전해준다. 신라시대 때에도 차를 끓여 공양한 스님들의 행적이 〈삼국유사〉 곳곳에 남아 있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때까지 많은 다인(茶人)들이 나와 전통을 이어왔다. 조상을 기리는 행사를 차례(茶禮)라 부르고, 늘 있는 일을 일컬을 때 다반사(茶飯事)란 말을 쓸 만큼 차는 우리들 생활과 밀접한 기호식품이었다. 많은 이들이 차를 즐겨 마셨고, 우리나라 토양과 체질에 맞는 차를 개발하고 개성 넘치는 다구(茶具)와 제다법(製茶法)을 고안해 냈다. 또 차를 음미하면서 그 미덕을 노래한 차시(茶詩)도 끊이지 않고 쓰였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남해에도 차밭이 있다. 남해의 대표적인 고찰 용문사(龍門寺) 뒤편 염불암(念佛庵)에 오르면 그 기슭에 야생 차밭이 잘 보전되어 있다. 상주면 금산 방면에도 차밭이 있다고 한다. 바람 많은 고장 남해에서 고즈넉하게 삶을 꾸려갔던 옛 남해 사람들이 차의 운치를 모를 리 없었을 테니, 그 유적이 지금까지 남은 것을 어찌 별 일이라 하겠는가? 남해다향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신차철 선생은 남해농촌지도소에서도 녹차를 시험 재배하는 등 남해의 산과 들에는 그윽한 다향(茶香)이 시나브로 스며들고, 차에 매료된 분들의 발걸음으로 지부 사무실이 분주하다고 전해 주었다.

고승들이 일구어낸 선다풍(禪茶風)

불가의 스님들이 언제부터 차를 마셨는가는 잘 알 수 없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활동하던 시절에도 차는 있었을 듯하다. 깨달음을 얻은 뒤 처음 마셨다는 우유죽도 우유와 찻잎을 넣어 끓인 일종의 차가 아니었을까? 지금도 인도 차는 세계적인 명차(名茶)로 손꼽히는데, 그 연원이 갑작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달마대사의 동진(東進)과 함께 불가의 차 문화도 건너왔을 듯하고, 선종(禪宗)이 태동하면서 선다일여(禪茶一如)의 기풍도 우러났지 않았을까 싶어진다.

공안(公案)에 보면 조주종심(趙州從諗, 778-897)과 연관된 화두 '끽다거(喫茶去)'가 있다. "차나 한 잔 마시게"란 뜻의 이 화두는 참구(參究)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차 문화의 성행을 보여주기도 한다.

당나라 때 선승 조주선사는 밖에서 수행자가 찾아오면 불러 이렇게 물었다.

"이 절에 와 본 적이 있소?"

어떤 스님은 처음인지라 "없습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렇소? 그러면 차나 한 잔 마시구려"하며 차를 따라 주었다.

얼마 뒤 다른 수행자가 방문했는데, 마찬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번엔 몇 번 와본 스님인지라 "전에 와 봤습지요"라 대답했는데, 역시 "그렇소? 그러면 차나 한 잔 마시구려"하며 차를 따라주는 게 아닌가.

이를 본 시봉이 이상하게 여겨 "스님, 처음 온 이나 여러 번 온 이나 똑같이 '끽다거' 라니 거 뭔 말씀입니까?"하며 제 딴엔 큰 의문을 제기했다.

삼매를 표현한 '차'
儒者들도 인정한 경지
무념으로 번뇌 씻자

이런 아둔한 시봉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조주가 씩 웃으며 그 시봉에게도 한 마디 던졌다.

"너도 차나 한 잔 마셔라."

조주 스님의 심오한 마음 밭의 갈피를 낸들 알겠는가만, 죽비보다 매서운 조주다풍(趙州茶風)은 이렇게 굽이굽이 전승되었다.

고려 말의 큰 스님 태고보우 스님에게도 〈찻잎을 따면서(摘茶)〉란 시가 전하고 있지만, 다승(茶僧)이라 하면 초의의순(艸衣意詢, 1786~1866) 스님을 빼놓을 수 없다. 아주 오래 전에 나는 초의 스님의 선시(禪詩)를 겁도 없이 번역해 〈초의선집〉(동문선, 1993)이란 책을 냈는데, 그때 나는 초의 스님의 높고 깊은 우리 차 사랑을 알게 되었다. 스님은 우리 차의 연원을 읊은 〈동다송(東茶頌)〉과 차의 가치와 제다법을 풀어 쓴 〈다신전(茶神傳)〉도 지었다. 〈동다송〉의 첫 시작은 이렇게 펼쳐진다.

하늘이 좋은 나무를 귤의 덕과 함께 하니
받은 명을 어기지 않고 남쪽 나라에 피었네.
빽빽한 이파리 눈발을 뚫고 겨울 내내 푸르고
하얀 꽃은 서리에 씻겨 가을 꽃잎을 터뜨렸네.
고야산의 신선처럼 고운 피부는 깨끗하고
염부주의 금빛처럼 향기로운 마음 맺었네.
이슬 기운이 푸른 옷 같은 가지를 맑게 씻었고
아침 안개에 젖은 잎은 비취새의 혀와 같구나.
后皇嘉樹配橘德 受命不遷生南國
密葉鬥霰貫冬青 素花濯霜發秋榮
姑射仙子粉肌潔 閻浮檀金芳心結
沆瀣漱淸碧玉條 朝霞含潤翠禽舌

차나무가 가진 유래와 미덕, 기질 등등을 풀어나가는 대목이다.

누구보다 차를 사랑한 스님이었기에 차에 관한 시도 많이 지었는데, 그 중 한 편을 읽어보자. 〈석천에서 차를 끓이며(石泉煎茶)〉라는 시다.

하늘빛은 물과 같고 물은 안개와 같아
이곳에 와 지낸 지도 어느덧 반년일세.
따스한 밤 몇 번이나 밝은 달 아래 누웠던가
맑은 강물 바라보며 갈매기와 함께 잠드네.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원래 없었으니
비방하고 칭찬하는 소리 응당 듣지 않았지.
소매에는 뇌소차가 아직 남아 있으니
구름에 기대어 두릉의 샘물을 기른다네.
天光如水水如烟 此地來遊已半年
良夜幾同明月臥 淸江今對白鷗眠
嫌猜元不留心內 毁譽何曾到耳邊
袖裏尙餘鷺雷笑 倚雲更試杜陵泉

스님의 다도는 진즉부터 세상에 알려져 있다. 해남 대흥사에 있는 일지암(一枝庵) 기슭에 차밭을 일구어 늘 차를 마시면서 생애를 보냈다. 위 시는 물설고 낯 설은 타향인 한양에 온 지 반 년이 지난 무렵에 쓴 것이다. 그 즈음에야 짬을 내게 된 스님은 오랜만에 다기(茶器)를 앞에 두고 차를 끓였다. 한강을 마주한 두릉에서 맑은 샘물을 긷고 물을 끓여 다도를 즐기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마음가짐을 다잡는 모습이 역력하게 새겨져 있다.

선비들의 마음에 어린 다심(茶心)

유가의 지식인인 선비들 역시 차를 가까이 두고 즐겨 마시기는 마찬가지였다. 차는 단순한 음료이기 이전에 몸의 기능이나 기운을 조절해주는 효험도 있어 애호했고, 또 차를 마실 때 배어드는 풍류가 남달라 결코 멀리할 수 없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인 이규보(李奎報, 1168-1241)는 팔만대장경 판각이 끝난 뒤 부처님께 올리는 글을 쓸 만큼 불교에 대해서도 해박한 불자였다. 그러니 그에게 차시가 없다면 이상한 일이다. 그 중 한 수 〈천화사에서 노닐다가 차를 마시면서, 동파의 시운을 쓰다(遊天和寺飮茶 用東坡詩韻)〉를 읽어보자.

한 지팡이가 푸른 이끼를 뚫고 가니
시냇가에서 졸던 오리가 놀래 깨네.
차 끓이는 오묘한 수법에 힘입어
눈 같은 진액 반 그릇으로 번민을 씻노라.
一笻穿破綠苔錢 驚起溪邊彩鴨眠
賴有點茶三昧手 半甌雪液洗煩煎

무신정권 시대를 문인으로 살다간 이규보는, 그의 문학은 유쾌하고 해학적인 풍취를 자랑했지만 고민이 없을 수 없었다. 그런 그에게 위안을 주었던 공간은 사찰이었고, 사찰에서 느낀 편안하고 안온한 심경은 차가 있어 담아 둘 수 있었다. 사찰이 깃들어 있는 골짜기를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걷다 잠에서 깬 오리의 홰치는 소리를 들으며 불을 지펴 차를 끓였다.

수행 깊은 스님이 삼매를 극한 솜씨로 빚어낸 차는 이미 속세의 때를 모두 털어낸 무념(無念)의 경지였다. 그 해탈의 경지를 흠뻑 맛보면서 시인은 세상에서 달고 온 번뇌의 찌꺼기마저 말끔히 씻어버렸다.

오늘 남해의 창 밖에는 비를 머금은 구름이 낮게 드리워 있다. 구름을 몰고 오는 바람소리가 차츰 거세어진다. 때 이른 무더위가 버겁고 더운 바람이 스산한 날이면 가슴을 활짝 열고 차 한 잔을 마시자. 내 집 골방이 어느덧 심산유곡 개울물 소리 정겨운 산사가 될 것이다. 〈소설가〉

낙원상가에서 영남권으로 옮긴 후

초간편 염불전문시스템 하나로 영남권 대·소사찰 석권!

가장 실수없는 선택법 : 초간편 본품으로 법당에서 염불을 해본 후 선택

장기할부 / 카드환영 / A/S를 생명같이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299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공 희 소리 구경값 한잔

공 고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추대과정에서 선정되지 못함에 불만을 가지고 종정스님의 교시를 위조하여 총무원에서 경고 조치를 하였으나, 총무원에서 봉행하는 종조 다례재에 종도 스님들의 참석을 방해하여, 종단에 분열을 책동했으므로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를 주도한 전원에게 멸빈을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징계대상자 -

명덕사 주지 혜륜스님, 세심사 주지 광혜스님
만덕사 주지 운성스님, 벽조사 주지 고우스님
묘련사 주지 법문스님, 정암사 주지 선담스님
흥원사 주지 청봉스님

대한불교조동종 징계위원회

청규 통해 동아시아 禪 기틀 세우다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⑪ 청규 제정한 백장 선사

몇 년 전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에서 이 시대에 맞는 '승가 청규'를 발표하였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당시 청규를 제정한 어른들께서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고 했지만, 공포되어 공식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다. 청규(淸規)라는 율장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선종 승려들의 수행 패턴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당나라 때 백장에 의해서 처음 시도되었다.

청규를 최초로 제정한 백장 회해(百丈懷海, 749~814)는 어떤 인물인가? 백장은 '왕(王)' 씨며, 복건성 복주(福州) 장락현(長樂縣) 사람이다. 백장의 휘호는 회해(懷海), 서산혜조(西山慧照)를 의지해 출가하였고, 형산법조(衡山法朝)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대장경을 열람한 뒤 마조(709~788)에게 가서 수학하였다. 백장은 마조가 입적한 뒤에도 석문산(石門山)에 있는 마조의 사리탑(보봉사) 옆에 머물렀다. 그 후 신도들의 청에 의해 강서성(江西省) 남창부(南昌府) 봉신현 백장산(百丈山, 大雄山)으로 들어갔다.

백장산은 산세가 지극히 우람하고 가팔라서 '백장'이라고 불렀다. 필자는 이곳에 10년 전에 방문했는데, 중국의 선종 사찰 가운데 깊은 산속인데다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찾아가는데도 대도시에서 이틀이 걸렸다. 선사가 이곳에서 선풍을 전개하다 814년 입적했는데, 세수 66세, 승랍 47년이다. 821년 '대지선사(大智禪師)' 시호를 받았다. 몇 가지 일화를 통해 백장의 면모를 보자.

어느 날 백장은 스승 마조와 들판을 지나다가 들오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마조가 백장에게 물었다.

"저것이 무슨 물건인고?"

"들오리입니다."

"어디로 갔는가?"

"이미 날아갔습니다."

마조가 머리를 돌려 백장의 코를 한번 비틀었다. 백장은 아픔을 참느라고 소리를 질렀다. 마조가 말했다.

"다시 한번 날아갔다고 말해봐라." 백장은 마조의 말끝에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백장야압(百丈野鴨, 백장과 들오리)'라는 공안이다. 여기서 마조가 백장에게 물었던 시심마(是甚麼)는 단순히 들오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들오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듣는 그 작용이나, 코를 비틀었을 때 코가 아프다고 인식하는 본체가 무엇인가를 직관적으로 깨달을 것을 제자에게 보인 것이다. 들오리가 이미 날아가 버렸든 바로 그 자리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일상의 보고 듣는 작용은 생멸(生滅)이 없는 불생불멸이건만 어리석은 제자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들오리가 날아갔다고 대답하고 있다.

스승이 제자를 지도하는 선문답이 후대에 문자화되고, 이 문자선이 다시 공안(公案)으로 전환되었다. 이 공안을 방법화한 것이 간화선이다. 이렇게 간화선의 주제인 공안이 성립하는데, 그 기원이 마조와 백장과의 일화에서 발단되었다. 또 마조와 백장 사이에 이런 일화가 전한다.

백장이 법상 모서리에 있는 불자(拂子)를 보고 마조선사에게 물었다.

"이 불자에 즉(卽)해서 작용합니까?, 아니면 이 불자를 여의고(離) 작용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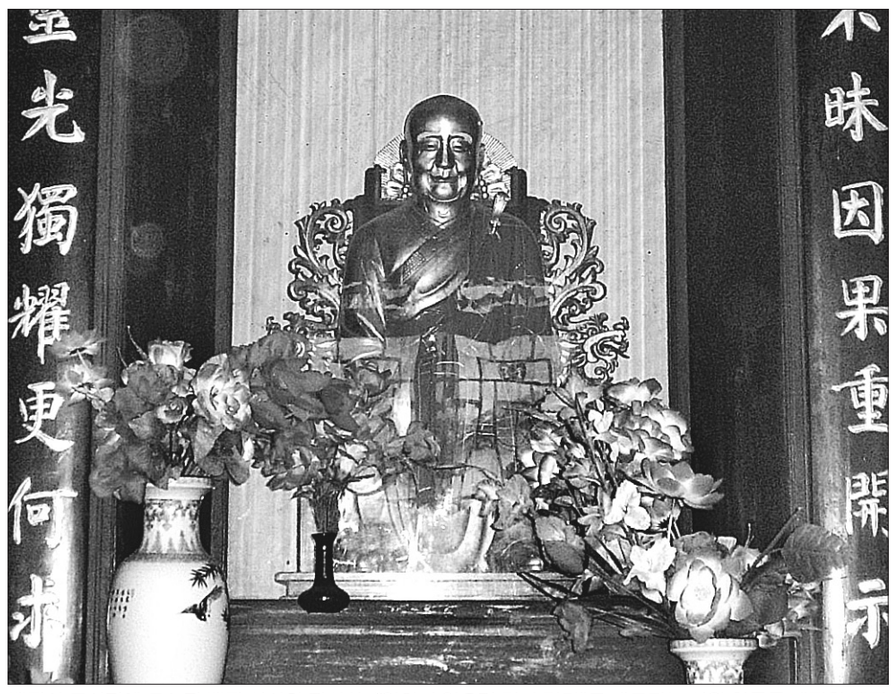
"그대가 훗날에 법을 설하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대중을 제접할 것인가?"

백장이 대답대신 불자를 잡아 세웠다. 마조가 이를 보고 물었다. "이것(불자)에 즉해서 작용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여의고 작용하는가?"

백장이 불자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마조가 순간, '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백장은 사흘 동안 귀가 먹었다.

앞의 내용을 '삼일이롱(三日耳聾)'이라고 한다. 이 공안은 선종에서 최초의 '할(喝)'이라고 한다. 이 할은 현재 한국의 스님들도 상당설법을 할 때, 자주 활용되는 선풍의 한 일면이다.

'一日不作 一日不食' 대표된
당시 선원만의 청규를 제정해
율원서 독립… 울력의 생활화
나말여초 유입, 현재까지 계승



백장사 조사전에 모셔진 백장 선사의 진신상.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로 대표되는 선원 청규를 제정한 백장 선사의 사상은 동아시아 선의 기틀을 세웠다고 평가받는다.



중국 강서성 봉신에 위치한 백장사의 전경. 백장 선사는 이곳에서 선풍을 날리다가 814년 원적에 들었다.

그러면 서두에서 언급했던 청규에 대해 보자. 청규가 제정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당시 선종 승려들이 율원(律院)에 거주하여 율종 승려와 생활이 맞지 않았다. 이에 선종 승려에 맞는 규율이 필요했다. 둘째는 안사의 난(755~763) 당시, 하택 신회가 도첩을 팔아 왕권을 도왔고 난이 끝난 후에도 도첩 매매가 성행해 교단이 문란하였다. 이에 선사들은 세속적인 유혹을 끊고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내부로부터 개혁이 필요했다. 셋째는 당나라 때 마조의 사상은 전통이나 경전의 권위를 빌리지 않고 살아있는 인간의 현실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일상의 선으로 전개되어 '선=노동'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청규 내용으로 크게 몇 가지만 언급하면 이러하다.

모든 대중이 평등하게 공동으로 노동해야 하는 의무규정인 '보청법(普請法)', 덕이 있는 스승을 장로(長老)로 삼아 방장(方丈)에 거주케 하는 것, 불전(佛殿)을 따로 만들지 않고 법당(法堂)만을 세워 생불(生佛)로 추대된 장로로 하여금 법당(法堂)에서 법을 설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찰에서 부처님이 모셔진 당우를 일반적으로 '법당'이라고 하는 것이나 방장 제도, 대중 울력 등이 백장에 의해 제정된 청규에 의해서다. 그러면 선사의 청규 정신을 보기로 하자.

백장은 매일 실시하는 울력만 있으면 대중보다 제일 먼저 나와 일했다. 이점을 안타까워하던 주지가 하루는 연장을 감추고 쉬기를 청하자, 백장이 말했다. "내가 심어 놓은 덕도 없는데 어찌 남들만을 수고롭게 하겠는가?"

그날 저녁, 백장은 공양을 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찾아와 스님께 공양하기를 청하니, 백장이 말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

이 말은 청규의 대표적인 문구가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 어른 스님들도 울력과 수행을 동일시하는 측면으로 발전되어 스님들의 울력이 관습화되었다. 또한 백장과 함께 회자되는 '백장야호(百丈野狐)' 공안을 보자.

백장이 설법할 때마다 한 노인이 청중들 맨 뒤에서 법을 들었다. 어느 날 그 노인은 설법이 끝났는데도 법당에 서 있었다. 백장이 이상히 여겨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다. 그 때 노인이 말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적 가섭불 때, 이 절의 주지였습니다. 그때 한 학인이 제게 묻기를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라고 하기에, 저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不落因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이후부터 저는 500생 동안 여우의 몸을 받았습니다. 스님께서 제가 여우의 몸을 벗어나도록 좋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백장이 여우에게 말했다.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과에 어둡지 아니하다,(不昧因果)"

그 말끝에 여우가 법안이 열리었고, 선사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저는 이미 여우의 몸을 벗어나 뒷산에 있으니, 스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여우가 물러난 뒤, 백장이 대중에게 말했다. "공양 후에 승려의 장례식이 있으니 화장할 준비를 하라."

대중이 절 뒷산으로 올라가보니, 여우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백장은 이 여우의 장례식을 승려의 장례식처럼 여법하게 다비해주었다.

백장의 선풍과 선사상을 보자. 백장은 설법이 끝나고 대중들이 법당 밖으로 우르르 몰려 나갈 때,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불렀다. "이보게들!"

대중들이 얼떨결에 놀라 고개를 돌리면, 백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무엇인고?(是甚麼)"

선종사에서는 이를 '백장하당구(百丈下堂句)'라고 한다. 위 내용은 '이 뭣고'라는 화두로 많이 쓰이고 있다. 불성사상이 담긴 〈벽암록〉 26칙에 실려 있는 '독좌대웅봉(獨坐大雄峰)'이 있다.

어느 승려가 백장에게 물었다.

"무엇이 기특한 일입니까?

"그대가 홀로 대웅봉에 앉는 일이다."

–〈백장록〉

곧 독좌(獨坐)의 주체인 '아(我)'는 곧 깨달아 있는 그 본체인 대아(大我)인 것이다. 대아는 6근·6진을 벗어났고 진상(眞相) 그대로여서 문자에 매이지도 않으며 심성은 물듦이 없어 그 자체가 본래 완전한 여여불(如如佛)의 당체인 것이다. 백장은 돈오법문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어떤 승려가 '도(道)에 들어가 돈오하는 대승법이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백장이 이렇게 답변했다.

"우선 그대는 모든 반연(攀緣)을 쉬고 만사를 내려놓아서 선(善)과 불선(不善) 등 세간의 온갖 것들을 모두 놓아버린 뒤에 기억하지도 말고 망상하지도 말라. 몸과 마음을 놓아 버려 자재롭게 되면 마음은 목석 같이 되어 입으로는 말할 것이 없으며, 마음으로는 분별할 길이 사라진다. 마음이 허공과 같이 지혜의 해가 저절로 나타나는데 마치 구름이 흩어지면 해가 나오는 것과 같다." –〈백장록〉

이 시중에서 살펴본 대로, 백장은 불성을 태양에, 번뇌를 구름에 비교하여 잠깐 구름에 가려진 태양, 즉 불성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신이 불성을 구족한 존재임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목석처럼 되어 자심(自心)을 관(觀)할 것을 의미한다. 즉 마음에 집착이 없는 무심의 경지를 표현한다. 백장이 주장하는 '심여목석(心如木石)'과 같아야 한다는 사상은 일체의 상대적인 차별과 분별이 없는 고요한 마음으로 달마의 벽관(壁觀) 사상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대로 백장의 선종사적 위치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자.

첫째, 백장은 큰 인재를 키웠다. 곧 5가 7종 가운데 제일 먼저 위앙종을 개산(開山)한 위산 영우(771~853)와 임제의 스승인 황벽 희운(?~856)을 배출하여 위앙종과 임제종의 연원을 이룬다. 또한 백장의 제자로 신라의 명조안(明照安)이 있다.

둘째, 청규 제정으로 선종 교단이 율원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서 선종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동아시아 선의 기본 틀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나말여초에 백장의 선사상이 유입되어 지금까지 백장의 사상이 미치고 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社)大韓佛教 蓮曹溪宗

종도모집

부처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포교와 기도 불사에 전념하시는 대중스님께 社)大韓佛教 蓮曹溪宗에서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①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사.암 내, 외 사진첨부
⑤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전법사증] 발급
⑥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社)大韓佛教 蓮曹溪宗 문화관광부등록번호 2018-2호

총무원장 : 지명 혜광 전화 : 054-481-3110 / HP : 010-7109-3111
총본산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산동로 465-11 팩스 : 054-481-3123

본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사업, 장례문화사업, 요양원 등

2019년
제16회
대원상
(大圓賞)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에서는 설립자인 고(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창출·장려하기 위해 2019년 제16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 공모 부문(개인 또는 단체) |
(1) 출가 부문
(2) 재가 부문

상금 : 총액 8,000만 원 이내
- 대 상 1,000만원 ~ 2,000만원
- 특별상 500만원 ~ 1,000만원
- 장려상 300만원 ~ 600만원

| 수상자 선정 기준 |
(1) 출가 부문
- 3인(곳) 이내 시상
-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 활동을 전개하는데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또는 스님 중심의 단체/기관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

(2) 재가 부문
- 3인(곳) 이내 시상
- 불교 정신과 사상을 고취·확산시키고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

※ 후보자(후보 단체 포함)가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해 시상 부문 및 상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출 서류 : 제16회 대원상 수상 후보 소정양식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접수 기간 : 2019년 9월 23일(월) ~ 10월 4일(금)

접수 및 문의처 :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주소 :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전화 : (02)719-2606, 1855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시상식 일정 : 추후 발표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부처님의 열반도 '회자정리'



新 불교사자성어

㉑ 회자정리(會者定離)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會者定離).' 또는 '만난 자는 반드시 이별하게 된다(會者定離)' 는 뜻이다.

한역본 〈대반열반경〉 제2권에 있는 사자성어로 경전 원문은 '부성필유쇠(夫盛必有衰), 합회유별리(合會有別離)' 이다. 번성하면 반드시 쇠함이 있고, 만나면 헤어짐이 있다는 뜻이다. 흥함이 있으면 망함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생자필멸 회자정리(生者必滅, 会者定離)' 라고도 한다.

한역본 〈대반열반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원래는 초기불전의 하나인 〈마하파리닙바나(대반열반경, 붓다의 위대한 입적)〉에 있는 말씀으로서, 부처님의 생애 마지막 장면에 나온다.

부처님께서는 80세가 되던 해 노쇠한 몸을 이끌고 최후의 교화 여정에 오르신다. 비구들과 함께 라자가하(왕사성)를 출발하여 고향인 카필라바스투를 향한다. 부처님께서 4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쿠시나가라(열반지)에서 입적하게 되는데, 그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 바로 〈대반열반경〉이다. 우리말로 풀어 쓰면 '부처님의 위대한 열반(입적, 입멸)' 이 된다.

한편 부처님께서는 여로(旅路)의 곳곳을 거치면서 때로는 제자들에게, 때로는 신자들에게, 그리고 또 때로는 이교도(異敎徒)들에게 '올바른 진리란 무엇' 이며 '어떻게 닦고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부처님께서는 평소 찬란하고 위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제자 아난다 혼자 지켜보는 가운데 입멸을 맞이하는데, 두 그루의 사라 나무(사라쌍수) 사이에 몸을 기댄 채, 오른쪽 옆구리를 아래로 두고 발 위에 발을 포갠 자세를 취한 다음 선정 자세로 열반하신다. 인도 불교 4대 성지인 열반지에 가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시어 고행, 성도(成道), 한 평생 무지한 중생을 일깨워주셨던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를 초월한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 붓다는 인류사의 가장 아름다운 생애를 마감(열반)하셨다. '붓다의 위대한 열반(입적)' 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멸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다. 물론 상수제자들은 입멸을 담담하게 맞이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인간 존재의 법칙' 으로 받아들였지만, 오래도록 부처님을 시봉했던 아난다는 부처님의 입멸이 다가왔음을 알고 외진 곳에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아난다를 위로하셨다.

"아난다여!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는 언젠가는 헤어지게 된다고 전부터 말하지 않았더냐(會者定離)."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마지막 교훈을 남기신다.

"비구들이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쓰러져 가는 것,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여라.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너 자신을 의지할 뿐, 타인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을 '자등명, 법등명' 혹은 '자귀의(自歸依) 법귀의(法歸依)' 라고 한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는 뜻이다.

즉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자신의 안목을 갖추라는 뜻이다. 팔정도의 하나인 정견, 정안(안목)을 갖추라는 말인데, 스스로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남의 말을 추종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안목이란 수행에 대한 안목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정견 즉 자기 자신의 안목을 강조하신 것은 출가하여 처음 두 명의 선인(仙人)을 만났고, 또 뼈만 앙상할 정도로 극도의 고행을 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열반은 만난 자, 태어난 자는 언젠가는 소멸하고 헤어지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법칙임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머리부터 발끝까지 꿰뚫는 것이 전기대용

〈全機大用〉



격절록 강설

㉑ 향엄수어 2

[評唱 2]

後學之流 須是透過這關捩子 始可出得身吐得氣. 若透不過 坐在這裏 名為死漢 有什麼用處. 你看得底人迴別 便知他落處. 香嚴纔垂此語 便有虎頭上座出云 "上樹即不問 未上樹請和尚道" 香嚴呵呵大笑. 你道 香嚴笑箇什麼. 若知落處說什麼上與不上. 若不知落處 也須退步看始得.

후학들은 모름지기 저 관려자(關捩子, 문제의 핵심)를 꿰뚫고 통과해야, 비로소 몸을 뛰쳐나와 기염을 토해낼(出身吐氣)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꿰뚫어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에 주저앉아 있기만 한다면 이는 죽은 놈이라 할 것이니, 어디에다 쓰겠는가? 그대들은 저 득저인(得底人, 도를 얻은 사람)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보라, 그는 바로 그 낙처(落處)를 알아버린다.

向嚴纔垂此語 便有虎頭上座出云 "上樹即不問 未上樹請和尚道" 香嚴呵呵大笑.

향엄이 대중에게 이렇게 수어하자마자 곧바로 호두 상좌가 나와 말했다.

"나무에 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나무에 오르지 않았을 때는 어떤지 청컨대 화상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향엄이 가가대소(呵呵大笑)했다.

你道 香嚴笑箇什麼.

그대들은 말해보라! 향엄이 무엇을 보고 웃었는가? 만약 낙처를 알았다면 무슨 올랐느니 오르지 않았느니를 말하겠는가! 만약 낙처를 알지 못했다면 모름지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若知落處說什麼上與不上. 若不知落處 也須退步看始得.

若是作者 當機便見 若擬議之間 覿面蹉過. 或不落二邊 對也不是 不對也不是 作麼生却得見古人意去. 到這裏 若是具通方底手脚 說甚麼樹上樹下對與不對. 如今山僧在這裏 是上樹 是未上樹 是對是不對.

만약 작자라면 대번에 그 문제의 핵심(機)을 바로 보겠지만, 조금이라도 주저주저 한다면 그 사이에 지나가버려 (기회를) 놓쳐버릴 것이다. 혹 양 변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대답해도 옳지 않고 대답하지 않아도 옳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고인의 뜻(古人意)을 보겠는가? 여기에 이르러 만약 통방작가의 솜씨(通方底手脚)를 갖추었다면 무슨 나무 위니 나무 아래니, 대답하느니 대답하지 않느니를 말하겠는가?

지금 산승은 여기서 나무에 오른 것인가, 나무에 오르지 않은 것인가? 대답한 것인가, 대답하지 않은 것인가?

雪竇拈香嚴與虎頭相見處 却教人致一問來 還有麼. 樹上道即易 樹下道即難 末後又道 "老僧上樹也 致將一問來" 這些子如馬前相撲 眨眼便輸. 雪竇於節角譊訛處 拈出令人見 羅籠不肯住 呼喚不回頭底漢 纔聞人舉 便知全機大用 善能拈提. 看雪竇老漢 也不妨奇特.

설두는 향엄과 호두 상좌의 상견처(相見處)를 염하고,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질문을 하도록 했는데, 어떤 것이 또 있는가? (설두는) "나무 위에서 말하는 것은 쉽지만, 나무 아래에서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놓고는 끝에 가서 또 "노승이 나무에 올랐다. 자, 한 번 물어라" 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마치 달리는 말 앞에서 서로 싸우는(씨름하는) 것 같아서(馬前相撲), 눈 깜짝할 사이에 곧 참패할 것이다. 설두는 절각효와처(節角譊訛處)에서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였던 것이니, 그물에 머무는 것도 긍정하지 않고 불러도 머리를 돌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야 사람들이 거론한 것을 듣자마자 바로 그 전기대용(全機大用)을 알고 염제(拈提)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설두 노인네를 보라, 대단히 기이하고 특이하지 않은가!

※원오어록에서는 전기대용(全機大用)을 "만년이 곧 일념이며 일념이 곧 만년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꿰뚫는 것이 전기대용이다.(萬年一念 一念萬年 透頂透底 全機大用)"고 말하고 있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㉑ 이해의 길 1

불교는 종교인가, 철학인가?

일반대학에서 불교철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다. 철학계에서는 종교인으로, 불교계에서는 철학자로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철학자가 되기도 한다.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일종의 경계인(marginal man)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적이면서 철학적인 불교의 성격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철학과 종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서구적 사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동양의 전통에서는 본래 철학이니, 종교니 하는 구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구의 학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학자들은 서양의 체계에 따라 철학과 종교를 엄격히 구분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철학은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엄밀성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설을 세우거나 주장을 하게 되면, 가설이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학창시절 많이 배웠던 삼단논법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말이다. 예컨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는 명제가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사람은 죽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세우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종교는 학문적 체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한다거나 내세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적 표현들은 명제(命題)라고 부르지 않는다. 명제란 옳거나 그른 것이어야 하는데, 신이나 내세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종교는 검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있는 것이다. 물론 신을 경험했다거나 전생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한 그것을 명제라고 할 수 없다. 종교를 검증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교 역시 이러한 체계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철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학문의 대상이 꼭 검증 가능한 것일 필요는 없다. 거기에는 문학과 예술, 문화 등 검증을 벗어난 삶의 모든 양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악이나 미술 등이 학문의 대상으로서 대학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은 검증과는 무관한 수많은 의미들로 이루어진 총체다. 학문은 이러한 의미의 세계를 논외로 하지 않는다.

예술이나 종교와 철학은 이렇게 구분된다. 예컨대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분명 예술행위에 속하지만, 그림 속에 나타난 세계관이나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예술철학, 즉 미학의 영역이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종교의 영역이지만, 그 신앙이 우리 삶속에서 사회, 문화,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는 일은 학문에 속한다. 대학에서 종교철학이나 불교철학 등의 과목이 설강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본래 동양의 전통에서는 철학과 종교의 구분이 없었다. 철학은 한 민족이나 국가의 총체적인 삶의 표현이다. 모든 국가나 민족은 그들만의 삶의 양식이 있고, 이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불교가 탄생한 인도의 전통에서 철학은 곧 '앎' 이었고 종교는 '삶' 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적으로 성찰하면 철학이 되고, 이를 삶에서 실천하면 종교가 되었다. 그들은 지식이 실제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이 둘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았다. 동양에서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전통이 중시됐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서양의 철학적 시선에서 보면 불교는 철학이 아니며, '신과 인간의 만남' 이라는 서구의 낡은 종교적 시선에서 보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가만히 있는데 자신의 입맛에 따라 이리 저리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불교는 앎의 철학이며 삶의 종교다. 오늘도 나는 불자로서 붓다께 삼배를 올리고, 철학자로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사 면 공 고

- 승 번 : 111-0125
- 법 명 : 혜일 (속명 : 강부중)
- 주 소 :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236 정방사

위 상기자에 대해 지난 5월 21일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일로 스님)가 사면심사규정 제4조, 5조, 6조, 7조, 8조에 의거해 회의를 열고 사면(경감)을 결정 하였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불기 2563(2019)년 6월 10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성 오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1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2 불교의 생활화 —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꽃 피는 가르침

3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제2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수계는 —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삼귀의계오계 수계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좋은 인연에 동참 바랍니다.

일 시 — 2019년 7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 부산항 컨벤션센터 이벤트홀(5층)

수계동참금 — 20,000원

문 의 — 사무국 051-501-7554

三師七證師

전계대화상 — 성 우 대종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전계대화상)

갈마아사리 — 수 불 스님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초대회장)

교수아사리 — 수 진 스님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2대회장)

존중아사리
지 현 스님 (송광사 율주)
경 성 스님 (해인사 율주)
심 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회장)
정 현 스님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원 범 스님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덕 문 스님 (통도사 율원장)
만 초 스님 (전법도량 의장)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일 주 문



외국인 영어즉문즉설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 스님은 6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영어즉문즉설을 개최했다.



미얀마 고승 수행지도

마가 사단법인 자비명상 이사장 스님은 6월 17~18일 동국대 대각전에서 미얀마 에인다까 사야도 초청 법회와 수행지도를 개최했다.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희유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스님은 6월 5일 복지관에서 권익강좌 일환으로 'SMART한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불교교육연합회 제67차 정기총회

윤성이 불교교육연합회장(동국대 총장)은 6월 21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불교교육연합회 제67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19 행복바라미 워크숍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6월 29~30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19 행복바라미 워크숍'을 개최한다.

조계종 前문화부장 종민 스님 입적

11일 승랍 31년으로… 13일 영결식 봉행



조계종 총무원 前문화부장 종민 스님(서울 옥천암 주지)이 6월 11일 오후 4시 50분경 동국대 일산병원서 입적했다. 승랍 31년, 세수 59세. 종민 스님은 평소 당뇨로 인한 지병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인은 13일 오전 6시 진행됐으며 종민 스님의 영결식은 중앙종회장으로 엄수됐다. 장지는 용인 평온의 숲이다.

영결식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과 기림사 주지 덕민 스님,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 장례위원장 성행 스님 등 문중 스님들과 유가족이 참석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사무처장 호산 스님이 대독한 조사에서 "종민 스님은 불문에 든 30년 동안 포교일선에서 한국불교를 이끈 동량이었다"며 "다음 생에 여기 있는 모든 인연들과 좋은 인연으로 부처님 가피 속에 같이 하시길 기원한다"고 추모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은 "몸은 죽어도 업보는 살아서 육도를 흘러 다니는 것이니, 원컨대 이 몸이 백 번 천 번 죽더라도 이 땅에 불법의 빛을 주는 연이 되게 하소서"라고 법어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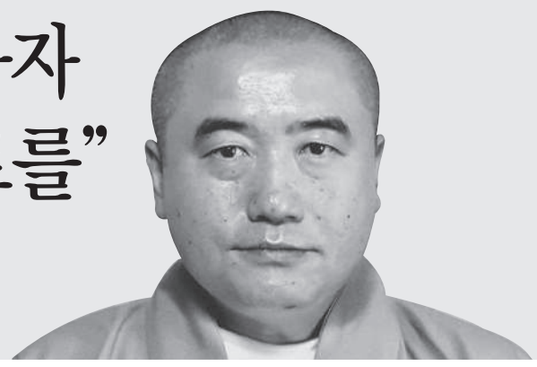
한편 종민 스님은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9년 불국사에서 월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0년 송광사에서 범룡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서울 약사사 주지와 제15~17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문화부장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전쟁 美 전사자 불교계서 첫 위로를"

Interview

미군 전사자 천도재 여는 광언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미군부대 인근 송탄 송덕사
6월 15일 천도법회 봉행해
불자와 33인등 달기 운동도

"한국전쟁 당시 전사자가 많았다는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미군부대 인근 사찰 주지를 맡으면서 미군 전사자가 많다는 걸 알게 돼 그들을 위한 천도재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송탄지역에 위치한 천태종 송덕사가 한국전쟁에 참여해 전사한 영가들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법회를 6월 15일 경내에서 봉행했다. 송덕사는 12일부터 16일까지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를 봉행하면서 15일에 별도로 미군 전사자들을 위한 천도재를 올렸다. 송덕사 그리고 천태종 차원에서 이 같은 행사는 처음이다.

송덕사 주지 광언 스님은 우연한 인연을 통해 천도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7년 송덕사 주지로 부임한 이후 지인과 함께 인근 미군부대를 방문하면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사찰신도회 간부가 미군부대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한번 그곳을 가봤습니다. 이런저런 안내를 받다가 한국전쟁 당시 돌아가신 미군 전사자가 3만5686명이라는 걸 알게 됐죠. 남의 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천도법회는 '충효정신 고취 및 한국전쟁 전사자 중 미군을 위한' 이라는 주제로 봉행됐다. 삼귀의와 국민의례, 묵념 등을 통해 미군 전사자를 기리고,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이 법사로 나서 영가들을 추모했다.

미군부대 규정상 군인은 외부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없어 행사에는 미군이 없었지만 송덕사 불자들은 함께 마음을 모았다. 특히 송덕사는 이번 천도법회 일환으로 미군 전사자들을 위한 '33인등 달아주기'를 실시했다. 여기에는 많은 송덕사 불자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 미군 가족들을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로 초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과 천태종이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연공덕으로 어느 생에서든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자님들과 의논해 미군 전사자들을 위한 등을 달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광언 스님은 이번 천도법회를 계기로, 미군 전사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호국영령을 기리는 행사가 종단차원서 마련되길 기원했다.

"사람이 존중받고, 생명이 존중받는 곳. 지나간 생명도 지금의 생명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야말로 불국정토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영가들을 위로하는 일은 불교가 사회적으로 해야 할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캐나다도 사찰음식 '홀릭'

불교문화사업단 몬트리올서
이틀간 사찰음식 만찬행사



사찰음식 만찬에 많은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참석자들.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캐나다에서 한국불교문화의 가치를 조명하고,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찰음식의 매력을 뽐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6월 5~6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사찰음식 만찬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주 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주최하고, 문화사업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국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북미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사업단은 5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관계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6일에는 언론 관계자 및 일반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만찬을 진행하고 템플스테이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이 자리서는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 조리팀(김지영 조리장)이 사찰음식 코스요리를 선보였으며,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연꽃 만들기와 인경 탁본 체험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만찬에서는 한국 사찰음식의 오랜 전통과 역사, 불교에서 음식을 바라보는 정신, 오관게의 의미 등을 설명함으로써 현장의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사찰음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식사 역시 하나의 수행으로 여기는 한국불교문화와 사찰음식의 의미가 특히 뜻깊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한국 전통식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사찰음식을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 사찰음식 및 한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찰음식 및 템플스테이 홍보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춘명 스님 공적비 제막

태고종 전북종무원, 종무원청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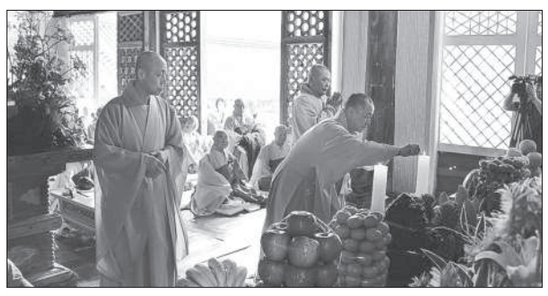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은 6월 7일 전북종무원청사에서 춘명문도회, 영산작법보존회, 종무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춘명 스님 공적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춘명 스님은 전북지역 근세 선지식으로 태고종 승정을 역임했다. 행사에서 춘명 스님이 주석하던 김제 원각사 주지 선국 스님은 전북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혜산 스님 14주기 추모재

부안 내소사, 6월 8일 경내 대웅보전서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6월 8일 경내 대웅보전서 전북지역 대표 선지식 우암당 혜산 스님의 14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문도회를 대표해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혜산 스님은 건강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불사계획을 세워 지금의 내소사 가람을 이룩했다"며 "스님의 14주기를 맞아 원로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과 가르침을 본받아 더욱 수행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일붕 스님 23주기 추모대재

(재)일붕선교종, 서울 종로서 100여 명 모여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경원)은 6월 11일 서울 종로 일붕선원에서 일붕존자 열반 23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추모재에는 종정 원각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대륜 스님, 총무원장 경원 스님, 재단이사장 일명 스님, 호계원장 석성 스님 등 1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추모재는 총무부장 원공 스님 사회로 타종 · 삼귀의례 · 발원문 ·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그 유래가 확실한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오봉사에 모셔진 진신사리가 온 미얀마 바간의 쉐지곤파야

지금은 사리탑 일부만을 세우고 진신사리를 모셨는데 사리탑을 완성하려면 기초공사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진신사리를 꺼내야 하기에 친견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공사가 끝나고 다시 사리탑 안에 봉안하면 탑을 부수지 않는 한은 친견할 수 없게 되오니 인연 있는 분들은 친견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 간 2019년 6월 29일(토) ~ 7월 7일(일) 매일 10:00 ~ 13:00

장 소 경기도 연천 오봉사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245번길 384)

예약방법
www.gangnambu.org/45 접속 후
사리탑건립불사 메뉴 중 [친견법회예약] 선택

주 의
1. 법회 후 친견하기에 **10시까지 입장**하셔야 친견할 수 있습니다.
2. 점심공양과 차량운행관계로 **반드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02-532-0012

진신사리의 유래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강남불교대학 [**언제 또 이런 인연을 만나 이런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불교대학(민족통일진신사리탑건립추진위원회)

"칵테일 마시며 스님과 고민 상담"

직장인 삶의 애환 달래는 일본 신주쿠 '스님 BAR'

박영빈 객원기자

새로운 포교를 위해 사찰이나 스님들이 카페나 이색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늘 화제인 일본. 이제는 스님들이 운영하는 칵테일 바도 등장했다. 일본의 TV '도쿄뉴스'는 6월 6일 이색 바로 유명한 '스님 바'를 특별히 소개했다.

술집골목으로 유명한 신주쿠의 일각에 자리 잡은 칵테일 바 'VOWZ BAR(스님 바)'는 현역 스님들이 운영하기로 유명한 칵테일 바다. 음주를 금하는 스님들이 운영하는 칵테일 바라는 점이 모순적이지만, 휴일 저녁엔 항상 만석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스님 바의 점내에는 불단이 모셔져 있고, 불경이 쓰인 족자나 탱화가 벽에 걸려있다. 테이블이나 의자까지 사찰에서 사용하는 그대로 가져와 마치 법당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심지어 매일 자정을 넘긴 뒤 잠시 장사를 중단하고 손님들과 함께하는 독경과 법문은 바의 명물로 꼽힌다.

스님 바를 대표해 인터뷰에 응한 후지오카 스님은 "바의 컨셉을 '누구나 올 수 있는 사찰'로 설정하고 인테리어를 구성했다. 현대의 많은 일본인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장례나 제사뿐이라는 것이 현실이지만, 불교는 원래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바의 콘셉트를 설명했다.




'스님 바'에서 칵테일을 제조하는 후지오카 스님(사진 왼쪽)과 가게 안에 조성된 불단 및 만다라(사진 오른쪽)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출처=TV 도쿄뉴스

여러 종파 스님들 모여 개업
법당 인테리어 빌려와 '눈길'
손님들과 '독경' '법문' 명물
"어려운 속내 털어놓고 가길"

또 다양한 불교용품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손님들이 불구들의 사용법이나 정체에 대해 물어오는 것에서 불교 이야기가 시작된다"며 단순한 인테리어용이 아닌, 실제 사용되고 있는 불구로서의 가치를 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 바는 종파를 가리지 않고 스님들이 매일 번갈아 가며 가게를 지킨다. 후지오카 스님도 현재 도쿄도내의 모 사찰 주지로 활동하고 있다.

후지오카 스님은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바라는 점은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기 어려운 속내를 털어놓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 곳에서 모두가 편안해지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한다"며 실제 바에서 상담이 많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손님들은 스님이 운영한다는 독특함과 한두 잔의 술에 긴장을 풀고 상담을 요청한다고 한다.

스님은 이어 "상담을 받은 손님들 가운데 '이런 방법이 불교에 있을 줄이야!' 하고 놀라는 분들이 많다. 불교에 대한 선입관이 사라졌다는 피드백을 자주 듣게 된다"며 상담으로 단골이 된 손님들도 있다고 말했다.

스님 바는 칵테일 바라는 특성상 스님들이 직접 칵테일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칵테일에는 '극락정토', '무간지옥'과 같은 불교적인 이름이 붙어있다. 칵테일 외에 일본주도 판매하고 있다. 단 이 주류들은 모두 사찰에서 주조한 전통주다. 약용으로 사찰에서 주조하던 술을 구해 메뉴로 올린 것이다.

안주류도 사찰음식을 응용해 만들었다. 육류와 어패류, 오신채를 넣지 않은 안주를 개발해 내놓고 있다. 후지오카 스님은 "금지된 식자재를 제외하고, 정갈한 사찰음식의 정신을 담은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일하는 스님들에겐 수행의 일환"이라며 웃어 보였다.

日 비구니 사찰에 비구 주지 취임

교토 다이츄안, 출가자 감소에 고육지책 선택

출가자 감소와 신도의 고령화에 따라 무인 사찰이 늘고 있는 일본. 특히나 적은 비구니 도량은 그 사세를 유지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다. 한편 유서 깊은 비구니 도량에 비구스님이 주지를 맡게 되어 화제다. 6월 4일 일본의 '교토 신문'은 이 놀라운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교토시에 소재한 '다이츄안(袋中菴)'은 1619년 개산한 유서 깊은 정토종 사찰이다. 개산과 함께 비구니 도량으로 이름이 높았으나, 절을 이을 후계 문제가 대두되면서 400년 만에 비구스님이 주지에 취임했다.

비구인 카바타 엔쿄(賀幡圓恭) 스님은 5월 4일 진산식에서 정식으로 다이츄안 19대 주지를 이었다. 전대 주지인 카바타 엔쥰(賀幡圓純) 스님은 혈연관계상 속가 이모다. 엔쿄 스님은 "원래 스님이신 아버지가 19대 주지를 잇기 위해 60년 정도 전부터 다이츄안에서 생활해 왔다"면서 당시에도 출가자 감소, 특히 비구니 출가자 감소가 불교계의 문제였다고 전했다. 스님은 "아버지와 내가 다이츄안에서 수행할 당시 '비구니 도량이 사라지는 것인가'라는 의혹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구니 도량의 전통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에 납득한 대중스님들이 "앞으로 도량은 젊은 세대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엔쿄 스님이 주지를 잇게 됐다. 엔쿄 스님은 "원래 다이츄안을 개산한 창건주도 비구스님이었기에, 떳떳한 마음으로 주지를 이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서 깊은 비구니사찰 다이츄안에서 주지로 취임한 비구 엔쿄 스님. 사진출처=교토신문

한편 다른 비구니 사찰들도 후계자를 찾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다. 교토에 소재한 비구니 도량 도쿠운지(德雲寺)의 경우 다른 사찰에서 수행하던 스님으로 대를 이었다. 또 다른 도량의 주지스님은 "좋은 때에, 인연 있는 분이 오길 기다린다"면서도 대처가 일반적인 비구승에 비해, 비구니 사찰은 독신전통이 강해 혈연관계에 의한 절의 대물림이 어렵다는 현실을 꼬집었다.

박영빈 객원기자

"서양철학 받아들여야 불교 발전"

불교학자 에델글래스 박사, 자신 논문서 견해 밝혀

일반적으로 서양철학이 불교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전해지지만, 최근 불교가 서양철학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불교 전문지 '라이온즈 로어'는 불교가 서양철학에서 채택해야할 견해에 대해 윌리엄 에델글래스 불교학 박사의 주장을 지난 5월호 특집으로 소개했다.

이 논의에서 에델글래스 박사는 불교는 철학과 윤리적인 분석에 대해 광대하고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전통이 새로운 세대들의 경험과 우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전통적인 불교도들이 서양의 사상이 불교적인 삶을 관여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기도 한다고 말하면서, 서양에서 논의된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서양의 정치이론적 견해와 환경문제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고전 불교학과 만나 새로운 불교 철학으로 탄생했다고 전했다.

에델글래스 박사는 "우리의 현대적인 관심사는 정의와 불평등, 다문화 사회, 정보기술의 만연 등"이라며 "불교도라면 오히려 이런 현실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양철학에서 중요시하는 심리학, 창의력, 자연환경, 사회적 참여의 요소들이야말로, 불교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도구로 꼽은 것이다. 그는 "우리 자신의 담론 밖에서 새로운 해석의 틀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존의 학문을 재해석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불교적 담론에서 자주 다뤄지지 않았던 무신론의 틀에서 보았을 때 불교는 '변형적 무신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해석된다. 불교전통이 살아있는 아시아권 불교도들이 서양철학을 배우고, 반대로 서양의 학자들이 순수한 불교철학을 배우면서 서로에 혼합되지 않은 철학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에델글래스 박사는 "사람들이 가진 변화와 깨달음의 가능성을 불교적인 경로로 잡고, 분석과 창의적인 서양의 전통으로 마음에 자유를 주는 방식이라면 궁극적으로는 말과 개념을 넘어선 불법이 새로운 세대에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우인 객원기자

자택 뒷마당서 佛母 된 미국인

캘리포니아 맥페트릿지 씨 높이 182㎝ 불두 조성해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스트카운티에 거대한 불두가 탄생했다. 자연 화강암 바위에 새겨진 이 독특한 불두를 6월 6일, 미국의 'abc뉴스'가 보도했다.

이스트카운티, 데스칸소 지역에 등장한 불두는 높이 182㎝ 규모로 조성됐다. 무엇보다 화강암 바위를 통째로 조각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불두를 조성한 예술가 던컨 맥페트릿지는 "모든 생명은 신성하다는 뜻을 담기 위해 불두를 조성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역 환경 운동가로도 활동하는 그는 "부처님이 (자애로운 마음으로) 모든 나무와 바위를 바라보듯이, 나 또한 불상을 보러온 이들을 바라본다. 불상에는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뜻을 담았다"고 전했다.



자신이 조각한 높이 182㎝의 화강암 불두를 설명하는 멕페트릿지. 사진출처=abc뉴스

불두가 조성된 곳은 그의 자택 뒷마당이다. 맥페트릿지는 뒷마당에 자리한 화강암 바위를 천천히 살펴보던 중 불상을 조각하기에 완벽한 장소라는 영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시기적으로도 무언가를 조각하기에 좋은 때였다"며 갑작스레 불두를 조성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일 4시간 이상 수공구와 전동공구를 이용해 불두를 조각해 나갔다. 맥페트릿지는 불상의 나발을 가리키면서 "이 둥근 원을 조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나발 하나를 만드는 데 꼬박 하루가 걸렸다"고 힘겨운 조성 과정을 설명했다.

최근 불교를 믿는 이웃이 찾아와 불두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바라본 방향이 동쪽이었다는 사실도 전해줬다고 한다. 맥페트릿지는 "동쪽을 의도하고 조성한 것은 아니다. 단지 접근성 때문에 동쪽을 골랐을 뿐이지만 무엇인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다"며 웃어보였다.

이미 불두는 지역의 명소로 알려졌고, 현재까지 수백 명이 불두를 참배하고 갔다. 맥페트릿지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큰 불상을 조성할 생각이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부처님을 만나고 가길 바란다. 부처님도 널리 알려지시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의학 오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꼬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 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9〉 8문–마음관찰

강명희

5관에 붙은 마음덩어리 살펴보기

우리는 업을 굴리면서 살아갑니다. 생각도 막 굴리고 몸도 막 굴리지요. 큰 톱니바퀴는 천천히 구르는데, 내 톱니바퀴는 너무 작아서 빠르게 굴러가요. 한 치의 여유도 없습니다. 마음이 노예가 되고 마음이 기계가 되었어요. 마음이 작동하면 불안심리가 계속 촘촘히 올라옵니다. 쉬고 싶어도 안 쉬어져요.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돼요. 안 만나고 싶어도 만나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일어나면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이 굴러갑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쯤 하면 좋은데 안 되거든요. 그것이 업력(業力)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보이지, 그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보입니다. 마음이 꽉 차면 그게 파동을 치면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요. 너무너무 싫은 바깥의 것들이 다 자기화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너무 싫어." 그러는 것이 다 자기화돼요. 대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한 건 다 자기화됩니다. 열 번 욕하면 열 번 모두 자기화가 됩니다. 좁을수록 자기화가 더 많이 되지요.

명상이라는 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기화된 데다 들이댈 뿐이지요. 들이대서 깊숙하게 들어가면 대상을 볼 때도 표면적인 것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심리, 내면까지 쑥 들어갑니다. 표면만 봤을 때는 '왜 성격이 그 모양이야? 왜 머리 안 빗었어?' 이러는데, 안으로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지금 복잡하고 일이 많아서 머리를 못 빗는 상황이 보여요. 알고 보면 다 이해됩니다. 내 마음도 넓게 보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넓게 봅니다. 나를 보고 너를 보다 보면,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것을 저절로 알아차려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네가 만든 것도 아니거든요.

관념은 어떻게 생깁니까? 관념은 둘 중 하나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데, 둘은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에 연연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요. 잃으면 잃은 대로 살면 되는데,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괴롭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잃어야 얻는다는 걸 알아요. 얻으면 반드시 내려놔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얻었기 때문에 잃을 때가 오는데, 어리석을수록 얻음만 생각합니다.

내가 계속 얻음만 생각하는지 아닌지 마음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잃으면 잃음만 보고, 얻으면 얻음만 보고, 욕구만 채우고, 관념대로만 살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하면서 감정, 욕구 다 무시해 버립니다. 소통해야 하는데 소통 안 하기 때문에 뭉쳐요. 그러니 잘 관찰해서 자기 마음상태를 봐야지요. 그것이 마음관찰입니다.

몸과 마음이 붙어 있으면 모릅니다. 좀 떨어져서 객관화돼야 자기 마음의 총량을 아는데, 객관화되지 않았거든요. 객관화되지 않은 마음이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작동하다 못해 밖으로 튀어나와서 남의 인생도 휘둘러요. 그 사람은 자기 길을 잘 가는데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끌고 갑니다. 그 마음이 세력화돼서 대상도 휘두르고 세상도 휘두릅니다. 자기 마음이 최고라고 여기는, 전도 몽상된 마음들이지요.

세 가지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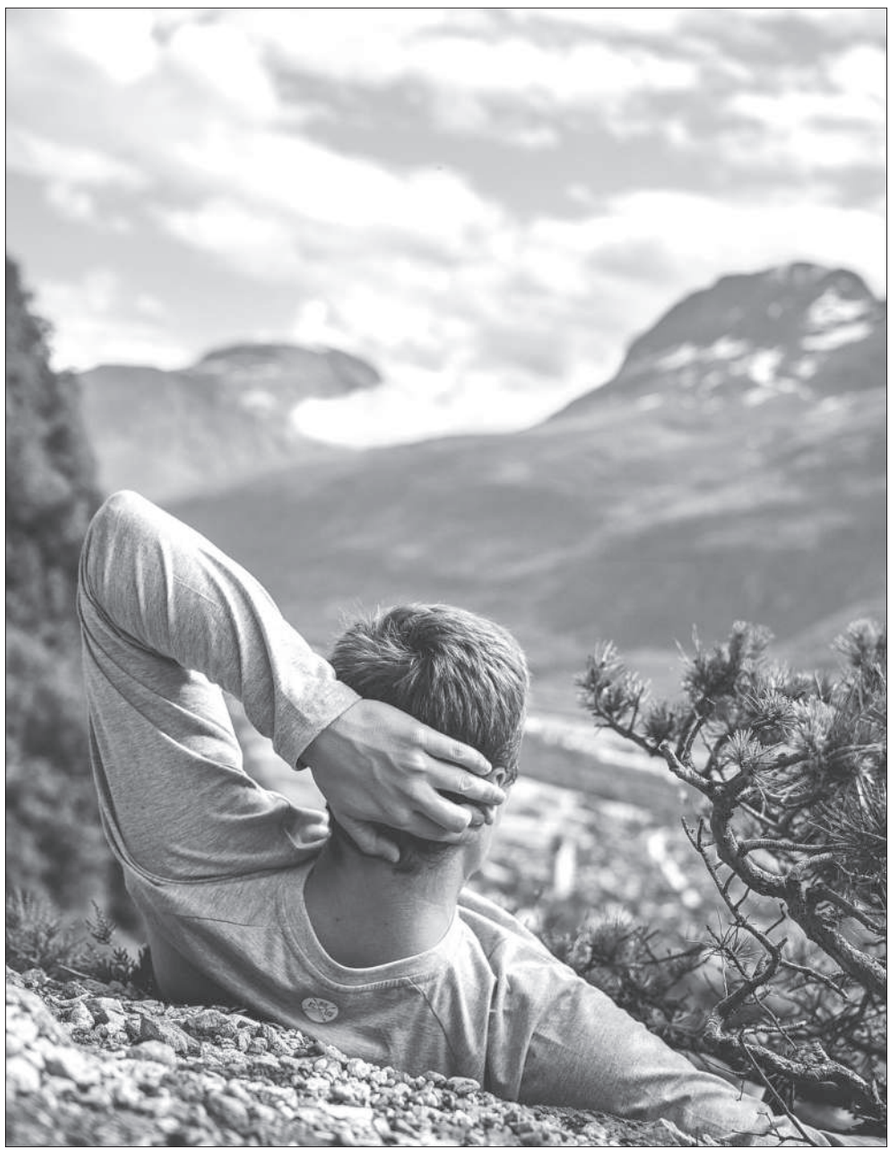
마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눈 · 귀 · 코 · 입 · 몸의 5관의 마음과 의식의 마음, 둘째, 5관과 의식으로 인식한 내용들을 한 장 한 장 쌓아 놓은 자기 마음, 셋째, 이미 저장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마음이지요. 5관의 마음과 의식의 마음, 자기 마음, 저장의식 모두 마음인데, 마음이 많이 발현되는 게 생각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흘러가는 나의 생각들을 들여다보세요. 현재의 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늘 돈 생각만 합니다. 돈 계산하는 게 지금 내 마음이지요. 계산을 치밀하게 하면 마음이 치밀해집니다. 그것이 나를 단단하게 묶어 버리거든요.

계산하는 생각이 유식(唯識)으로 말하면 말라식입니다. 저울질이지요. 손해 볼까 말까 따지는 게 계산법이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안의 마음들은 선업 종자가 많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도 긍정적인 생각이 나서 위기가 없어져요. 성향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인데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납니다.

분리의식 때문에 생겨난 '나'
객관화하면 더 이상 나 아냐
자기중심적인 마음 관찰하며
자신의 상태를 잘 돌아보자

마음을 볼 때 잘 모르겠으면 5관을 집중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겹겹이 쌓인 나를 보든지, 나라는 의식이 어디서 발동이 걸리는지 잘 보세요. 내 견해를 보거나 나를 내세울 때 보는 것입니다. 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 속성 중에서 아만(我慢)이 세면 아만을 보고, 교만이 세면 교만을 봅니다. 내 주장을 말로 하는 게 아견(我見)입니다. 자기 몸을 엄청 소중히 여기는 건 아애(我愛)입니다. 아치(我痴)는 아만, 아견, 아애가 다 붙은 총합이고 고집입니다. 아만, 아견, 아애, 아치 네 가지에서 내 마음을 보는데 다 볼 수 없으니 하나를 정해서 봐야지요.

이번에는 마음이 어떤 건지 관찰하겠습니다. 5관을 보든 자기를 보든, 생각을 보든 하나를 정해서 관찰하세요. 마음관찰하면 주로 어떤 마음들이 관찰될까요? 번뇌의 마음,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 억울하고 창피한



마음,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마음, 계산하는 마음, 지키자는 마음들이 많지요? 계산하고 지키려는 마음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게 인색입니다. 인색이 발동 걸리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계산 안 하면 손해 볼 거 같은데, 사실은 이득이 와요. 관찰하면 마음들이 흐르거든요. 관찰해서 마음보따리가 열리면 마음이 사연으로 나오고 행위로 나오고 감정으로 나오고 영상으로도 나와요. 몇 년 동안 접시만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음식업이거든요. 그릇이 관념이 되고 욕심도 됩니다. 먹는 것도 그릇이 있어야 저장할 수 있으니, 저장하는 마음이 그릇으로 나오지요.

마음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는데 둘이 한통속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얘기를 말로 풀려니까 힘든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관찰해서 객관화하면 내가 아닙니다.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고 너도 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나라는 것은 분리의식 때문에 생겼어요. 분리의식이 없으면 내가 생겼겠어요? 내 것이 생겼겠어요? 고무줄을 같이 쥐고 있으면 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쪽에서 잡아당기면 고무줄도 내 것이 되고 힘도 내 것이 됩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

눈, 귀, 코, 입, 몸의 5관을 관찰하면 거기 담긴 마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칠게 작동했던 마음들,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과다한 의욕들이 5관을 통해서 작동하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잘 관찰하는 게 마음관찰입니다. 5관의 느낌들을 마음이라 생각하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관찰하세요. 먼저 눈을 계속 관찰하면서 생각이 눈에서 나오는지, 다른 데서 나오는지 잘 보세요. 눈, 귀, 코, 입, 몸 5관 중에서 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관찰하겠습니다. 시간을 길게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딱 알아차려 보세요.

일단 눈을 관찰하면 조금 아까 했던 것들이 한 순간에 작동해서 분류가 딱 됩니다. 눈도 객관화됩니다. 어떤 사람이 눈관찰을 하더니 "눈에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요. 눈에 작용하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 층층층층층 있어요. 그러니 눈을 관찰하면서 탐진치 3독심을 관찰해 보세요.

첫째, 눈으로 보면서 욕심이 생기는 것을 관찰하고, 과거의 기억 속에서 눈으로 보면서 욕심 부린 것을 관찰합니다. 둘째, 눈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관찰하고, 눈으로 보면서 화냈던 과거의 기억들을 관찰합니다. 셋째, 눈으로 보면서 무시하고 외면하고 폄하하는 것을 관찰하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관찰합니다. 귀, 코, 입, 몸도 이 순서대로 관찰합니다.

관찰하면서 심리적인 불안요소를 잘 보세요.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가? 그 마음들이 5관을 타고 있습니다. 5관을 잘 보면, 붙어 있는 마음들, 난리 치는 마음들은 대부분 떨어져 나갑니다. 난리 치면 앉아 있지를 못해요. 눈으로 봤던 거 지금 해결하러 갑니다. 싫은 소리를 들었으면 지금 당장 싸움하러 갑니다. 그 물건이 돈이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지금 당장 그거 사재기하러 갑니다. 행위로 나와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가만있지를 못합니다. 5관 관찰을 하면 이렇게 난리 치는 마음이 떨어져요. 더 나아가서 난리 칠 수 있는, 아직 현재화되지 않은 마음들도 발견하게 되지요. 5관을 타고 다니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의식입니다.

의식의 마음은 5관을 더 깊숙이 들어가면 발견됩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눈관찰하다가 밝혀냈어요. "선생님, 눈하고 귀하고 신경계가 마주치는 지점이 있어요? 계속 관찰하니까 코하고 머리 안쪽이 연결되어 매듭처럼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의식의 마음입니다. 의식의 마음은 생각을 만들어 내는 마음과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깊숙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홀연하다고 느끼지요. 표면에서 반응하면 내가 반응한다고 느끼는데, 갑자기 훅 일어나면 그렇게 느껴요. 더 깊은 것은 나랑 더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보면 의식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눈관찰을 하겠습니다. 눈관찰하면서 두 가지를 집중해서 살펴보세요. 첫째, 눈관찰을 하면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둘째, 눈관찰하는데 생각이 나오면 생각이 눈에서 나오는지 딴 데서 나오는지 봅니다. 집중을 잘했을 때 생각이 줄어드는지, 집중 못했을 때 생각이 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강명희의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담앤북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대행 스님

바로 우리 실생활 속에 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잘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항상 한 도반으로서 말씀드려 온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에 얼마나 쫓고 쫓기며 왔겠습니까. 마음이 진화되니까 몸도 바뀌어지고 이렇게 돼서 인간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비디오테이프나 카세트테이프에 아마 그 말이 실려 있으며 또는 회보에도 실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고 금방 딴 말을 할 때 벌써 한마디 한 거는 과거로 돌아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구에 매달리고 글자 풀이에 매달린다면 이 공부는 천부당만부당하게 돌아가고 말아 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중세계의 쫓고 쫓기는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해서, 억겁을 통하고 또는 끝 간 데 없이 그 차원 따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끌려 다니고, 정신세계의 노예요 물질세계의 노예로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물질세계에만 끄달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작 마음의 눈이 없다면 자기가 보고 듣는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죽만 보지 속은 못 보고 항상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활하는 데도 하나도 이익이 없게 되죠. 여러분은 인간의 바른쪽 왼쪽 두뇌는 우리가 물질세계로써 율동하는 것과 모든 거를 거기다 넣을 수 있는 내 마음을 조화롭게 하고 중도로써 중용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 의학 박사들도 많겠지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이고 내는 거기서 점검을 해서 들이고 내는 것을 바로 중심, 중도(中道),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모른다면 그대로 물질에 끄달리고 정신에 끄달리고, 내 인과에 끄달리며 살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기초가 든든치 못하면 집을 짓다가도 무너지는 수가 있고 금이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육신 속에 그 많은 인과 업으로 인해서 악업 선업이 뭉쳐서 수도 없이 들고 나는 것, 좋은 거는 잠시 잠깐이고 언짢은 것, 화나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강도질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술 먹고 아수라장을 만드는 것, 모든 이 일체가 다, 그러한 생각이 나게 하는 그놈들이 어딨느냐는 얘깁니다. 여러분 그 몸속에 다 의식들로 돼 있죠.

이것을 자세히 말하자면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서, 수만 개가 헤아릴 수 없이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하나가 뽑히는 것이 부모에게 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자기가 과거에 살던 그 악업 선업을 짊어진 채 바로 거기에 부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삼신(三神)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말을 또 하고 또 하느냐? 이것을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뭉쳐진 그 자체, 악업 선업이 지금 현실로 모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몸에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또 여러분이 강요당해서 악업 선업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식들은 좋고 나쁘고, 좋은 일이고 언짢은 일이고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쁘고 좋고를 너무나 잘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로 중심을 지키면서 다스리는 겁니다. 들이는 것도 다스려서 들이고 내는 것도 다스려서 낸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두뇌에 그렇게 통신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깊이 잠재해 있는 그러한 도심이라고 할까. 또 중간에 있는 도심으로 들게 하는 마음.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들이는 그것을 거기다 맡겨야만이 그렇게 되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자기라고 시각적이나 감각적으로다가 그냥 그냥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이고 내일 일이고 자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까? 생각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컴퓨터에서 그렇게 나오게끔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중심에, 중도(中道)에, 중용에, 그리고 분수를 지키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을 리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돼서 홀연히 밝아진다 이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수없이 나오는 그것을 다스리는 마음이 누가 되지 않고 모든 점에서 그 중용으로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조금도 어긋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 뇌, 바른쪽 뇌 이 중심적인 그 표현도 그렇게 두뇌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양 가장이로 통신망이 그렇게 돼 있죠. 수없이 귀 밑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게 우리 마음속에서 두뇌로 올라가면 두뇌에서 전부 사대(四大)로 통신을 해서 그렇게 다스려 나간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불제자가 못 되는 거죠. 우리가 불제자라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우리가 말하고 사는 것이 교(敎)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합니다.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불교는 살아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듣고도, 들은 사이가 없으면서도 들은 건 들은 것이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이등은 없다, 일등이라야 한다고 말하듯이 우리 마음공부 하는 것도 이등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등을 했을 때는 부처님도, 일체제불도, 일체 중생도 정말 진드기 하나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섭류해서 내 한마음으로서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만이, 그때에 바로 그대로 "부처님은 부처님이요, 중생은 중생이요, 풀은 풀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거기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도 얻을 바가 없고, 그 얻는 것조차도 일등으로 이겨서 나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이 모든 일체가 다 한마음으로 구성되고 한마음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선 한마음을 쓰고, 때에 따라선 뭐, 두 마음으로도 쓸 수 있고, 세 마음으로도 쓸 수 있고, 이런 원인이 과학적으로 지금 원자에서 입자로, 입자에서 분자로 화해서 지구도 지키고 인간도 지킨다는 사실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몸속에 있는 의식들을 그렇게 간추려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들이는 거를 거기다 모든 걸 맡기고 거기서 주장하는 겁니다, 주인공에서.

'한마음' 하는 거는 여러분 몸속에 그 헤아릴 수 없는 악업 선업이 업이 돼 가지고, 그 속에서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업보성이나 인과성이 모두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팔자 운명이 바로 그런 데서 벌어지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한마음이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내 내면의 세계부터 알아야 바깥 세계를 알지 내 내면의 세계를 모르고야 어찌 바깥 세계를 알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내 마음에 있는 이 중생들을 다 알고 나면 한마음으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위장, 척수, 척추, 콩팥, 심장, 간장, 식도, 소장, 대장 등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모두가 집을 짓고 소임을 맡아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말입니다, 악은 악으로만 나갑니다. 선은 돈을 주고 악으로 하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몸속에 악이 많고 선이 적으면 악의적인 문제가 수없이 나옵니다. 자꾸 안되게 하고 자꾸 남을 증오하게 하고 모든 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얘깁니다. 남을 때려죽이고 남을 해롭게 해서만 악이 아닙니다. 남을 둘로 보지 않아야 되는데 둘로 보고 항상 남을 원망하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상대가 생겼으며 세상이 벌어졌을까?' 하고 내 탓으로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이런다면 이 공부에는 여간 지장이 많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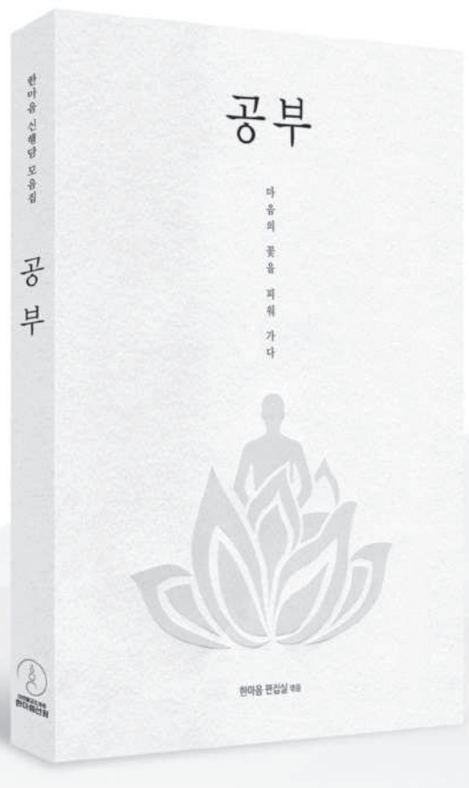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는다면, 눈 밝아져서 마음 안의 눈과 육안으로 보는 눈이 겸해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들이고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고 점검을 해서 안으로 들입니다. 안으로 들여야만이 모두 통신이 되고 또 안으로 들이는 그 마음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면은 전부 보살로 화한다 이 소립니다. 악업 선업이 둘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로 돌아가니, 모든 것이 그 끝 간 데 없는 진리지마는 그것이 하나도

☞ A18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내 내면의 세계를 모르고 어찌 바깥 세계를 알겠습니까

☞ A17면에서 계속

남김없이 천백억화신이 되죠. 모든 사람들이 응해 달라는 대로 약사로도 응해 주시고, 관세음으로도 응해 주시고, 지장으로도 응해 주시고, 천만 가지 만만 가지를 다 모습을 바꿔 가면서 찰나에 응해 주시니 그것이 바로 천백억화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속가에서 산다고 하지만 스님들도 속가에서 사는 것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가에 있는 사람들도 유마힐 거사처럼 그렇게 부처님과 동등하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중생을 제도한 분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부터 제도를 해야지 바깥에 끄달리면서 제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항상 이 마음이 충족되고 내가 완전히 그 이치를 알아야, 즉 말하자면은 그 순서도 의학적이기도 하고 천문학적이기도 하고, 지리학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하고, 천체물리학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체가 다 그 한마음 속에서 구성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우리 마음 자체가 어떻게 해야만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가.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갈 수 있고, 다스리는 그 마음이 중심에서 양면을 이끌고 갈 수 있느냐. 안에서 벌어지는 마음이 팥죽 솥의 팥죽 방울이라면 방울이 일어나는 대로 "이것도 문수! 이것도 문수!" 했단 말입니다.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대장이나 소장에서 만약 어느 한군데서만 파업을 일으킨대도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귀퉁이 어디고 소중하지 않은 게 없죠. 다 한마음으로 돌아가야만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지혜로워져서 부자 부렵지 않게 마음이 넓어질 수 있죠. 이렇게 마음이 부자라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도 정말 대장부의 살림살이요, 또한 어디고 가난치가 않다 이겁니다. 그것이 당당한 것이요, 그것이 부자가 돼서 부자가 아니라 내가 쓰려면, 내가 필요한 거면 어디서든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묘한 도리를 여러분이 모른다면 만날 가난하기에 바쁘죠. 그뿐만 아니죠. 가난뿐이 아니라 재난이 들어와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또는 병고가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바깥에 있는 지렁이를 볼 때 보기 싫고 징그럽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속에는 똥통도 들어 있고 구더기도 있고, 또는 진드기도 있고, 거위도 있고, 촌충도 있고 벼룩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건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서없는 말이지마는 잘 참작해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왜 그렇게 내 몸에 들어 있고 왜 그것이 바로 나였던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 생긴 이래 역사를 볼 때에도, 미생물의 시대가 있었고, 곤충의 시대가 있었고, 또 그 뒤에는 공룡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나기 전에 그렇게 미리미리들 그렇게 진화돼서 올라오기 위한 그 수련이, 그렇게 수많은 모습으로 바뀌 가면서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인간까지 온 것이 그게 바로 정신 수행입니다. 자연적으로 지수화풍이 바탕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모두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쫓고 쫓기면서, 마음이 그렇게 해서 진화돼 가지고 모습을 바꾸고 바꾸고 한 게 인간까지 올라왔다 합니다. 누가 그것을 말해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나, 참나의 속에 다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인간까지 무수한 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어 가지고도 또 짐승으로 돼야 되겠습니까? 또는 독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살리고, 온통 부서지게 하고 남을 해롭게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틀림없이 미래에 올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거에 한 일은 현실에 너무나 더 잘 아시고요.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그 동기를 항상 지켜본다면 아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 악업 선업으로 뭉쳐 있다가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입력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마시고, 누가 되는 일은 하지 마시고, 누가 아니 되는 거는 하시고, 들이는 것도 바로 여기다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하고 맡겨서 들이고, 내는 것도 여기다 맡겨서 낼 수 있다면, 지금 레이더망에서 들이고 내면서 책정해서 다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아주 자동적으로 돼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리고 재료가 모두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말했죠,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그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삼아서 돼 있다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물질세계의 의식으로서 산다면 물질세계의 노예고, 그것은 끝 간 데 없는 길을 고통스럽게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살아 있으면서 죽지 않는다면 열반이 아닙니다. 살아서 이 도리를 알고 죽어야 열반이지, 만약에 살아서 이 도리를 모르고 죽는다면 그건 그냥 그대로, 그 고통 속에서 죽는다 산다도 없이 끝없는 길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깨치고 본다면 모든 것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악으로 나가도 수없이 나가고, 선으로 나가도 수없이 나갑니다.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가 문제죠. 야! 이게 또 묘한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다스리는 마음이 없다면, 바로 거기서 맘대로 '내가 저걸 꼭 훔쳐 와야겠다. 그래서 남이야 살건 말건 나는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여기서는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그것이 나쁘고 좋고를 모르기 때문에 다 따라 줍니다. 그 마음이 서면은 악도 그만큼 있고 또 선도 그만큼 있습니다. 선이 더 많으냐, 악이 더 많으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이 인간으로서 살지만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즐겁게 선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으로 괴롭게 사는 사람이 있죠. 만약에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가 먹는다면 그건 독이 될 것이고 약초가 먹는다면 약초가 돼서 인간을 살립니다. 칼도 칼 나름입니다. 의사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살리지마는 강도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 모두가 상대성 원리입니다. 부처도 중생도 풀 한 포기도 다 내 소유로서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유가 돼야만이, 그때 가서는 나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오고, 바로 그때에 부처님이 뚜렷하고 중생이 뚜렷하고, 하는 일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고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듣고 글귀로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말 자체가 모두 한데로 떨어질 것입니다. 나는 거짓을 안 합니다. 한 마디라도 내가 실험하고 체험하지 않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알고 본다면 한 마디도 한 게 없고, 한 마디도 한 게 없는가 하면 한 생각 한 것도 없고 한 행동 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터득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실생활 속에서 바로 도가 있는 거지 실생활 빼놓고 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으로 정신세계의 노예가 되는 건 어떤 거냐? 나를 조금 발견했을 때에 거기에서 '나는 아무개다.' 하고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시키는 걸 그대로 듣는다면 그건 정신 노예죠. 또 처음에 이렇게 믿고 거기다 놓고 갈 때 물질을 보고 남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서 내 중심을 세우지 못하고 산다면 그거는 바로 물질세계의 노예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있죠.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불교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죠? "저 언덕을 넘어서 만납시다," 또는 "요단강을 건너서 만납시다." 이러죠? 저편 언덕 뒤에는 항상 밝음이 있고 항상 그 생수가 있으니 그걸 없다고는 못 하죠. 끝없는 밝음이 있기 때문에 "컴컴하다, 밝다" 이런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가 있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물질세계에 끄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 마디로 규정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큰 독사가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또 거위가 지렁이로 변해서 이만하게 (양 팔을 벌려 보이시고) 돼 가지고 곤충이나 세균이 전부 나와서 그냥 늘비하게 있다고 합시다. 또 저기 들어가면 머릴 풀어 산발한 귀신들이 있다 합시다.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벌써 "어이쿠!" 하겠죠?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내 마음이 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독사한테 물리면 죽는다, 안기면 맞아 죽는다, 또는 귀신한테 말려 죽는다 그럴 겁니다. 모두 징그럽게만 보이고 똥통의 구더기는 그냥 여지없이 크게 보이고, 내 이 사대(四大)가 다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도 내가 배우지 못한 영혼이라면 그냥 거길 못 건너가, 일차적으로.

일차적으로 건너가지 못하지. 그럼 이차적은 뭐냐? 기독교 가톨릭교에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강을 건너 저 언덕에서 우리 같이 한자리를 하고 만납시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물질세계의 의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도리를 모르면 자기가 그냥 몸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니 오백 생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배가 옵니까? 내 의식이 저 강에 들어가면 물이 깊어서 빠져 죽는다고 알기 때문에, 도저히 배가 오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생각 끄떡하면 찰나에 갈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넘어갈 때, 지금 이 과학적으로 본다면 블랙홀이라고 한다지만, 부처님께서는 불바퀴라고 했습니다. 그 불바퀴가 세 번째 단계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넘지 못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벌써 중생들은 거기를 넘어갈 때 타 죽을까 봐 뜨거워서 못 들어갑니다. 벌써 내가 물질세계에서의 그 의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나 아닌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로인데도 뜨거워서 죽을 이유도 없고 뜨거울 이유도 없고, 간다 온다 할 까닭도 없고, 어딜 들어간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사이가 없고, 나온다 하더라도 나오는 사이가 없건만, 그대로 여여하게 뚫리고 그대로 여여하건만 몸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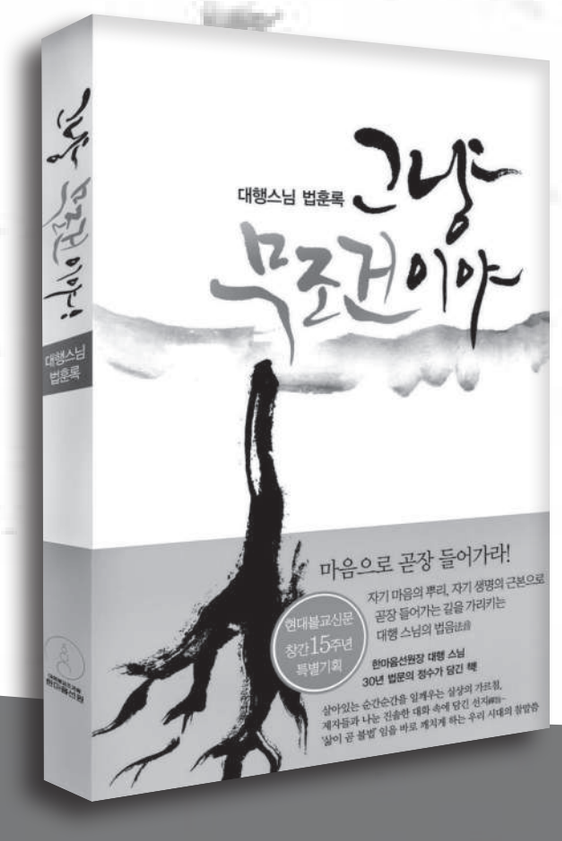
그것은 첫 번에 벌써 내 이 몸속에 있는 그 의식들이 전부 모습을 그렇게 해 가지고 보이니 그 길을 못 간다는 얘기죠. 그게 딴 데서 와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몸뚱이가 사대로 흩어지니까 내 몸속에서 그 영혼들이 말입니다. 그 의식들이 그냥 쫙 앞을 가리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딱 보일 때 중심을 잡고서 '허, 너와 나와 둘이 아닌데.' 하고서 딱 한생각을 넘기면 그냥 다 보살로 화하고 부처로 화할 텐데, 이건 한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넘질 못하죠. 재차 말하지만 빠져 죽을까 봐 넘지 못하고, 배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타 죽을까 봐 그 불바퀴 속을 못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 그 도리밖에 없거든. 우리의 이 마음, 내 마음 빼놓고는 부처를 이룰 수가 없고 내 마음 빼놓고는 도저히 앞뒤 뚫린 용문을 열 수가 없어. 본래는 여여하고 열려 있는데 자기 생각이 딱 닫아 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미운 걸 보면 그렇게 밉고, 잘못하는 걸 보면 그렇게 보기 싫고, 또 부부지간도 그렇고 자식지간도 그렇고 일일이 그거를 미워해, 잘못하는 걸 보면. 그러나 이쁜 일을 조금 할 때는 좋아서 그냥 발발발발 하지, 누가 좋은 말을 해 주면 좋고, 속이야 어떻게 됐든지 좋은 말을 야불야불 해 주면 아주 좋아하고, 진실로써 '너는 이렇다' 지적을 해 주면 그게 듣기 싫어서 왈칵 화가 나고, '너 두고 보자.' 이러고. 이러는 마음이 자기를 깎아 먹게 돼요. 이 세상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있으니깐 모두 내 탓으로 돌리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공해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다음 호에 계속)

내 마음 빼놓고는 부처를 이룰 수가 없고
내 마음 빼놓고는 도저히 앞뒤 뚫린 용문을 열 수가 없어.
본래는 여여하고 열려 있는데
자기 생각이 딱 닫아 놓고 있으니까.

※위 법문은 1991년 7월 21일 정기법회 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이념 논쟁과 中道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최근 한국사회 이념논쟁 난무
논의 양상이 사회병리학 수준
이념갈등 최대 피해자 '한국'

특정 이념 대한 맹목적 신봉은
배타적 적대감 · 공격성 가져와

고정불변한 이념은 절대 없다
이념, 연기법 적용 대표 사례
연기적 접근이 독선 배제시켜
붓다 정치철학 핵심은 '중도'

우리 사회에 또다시 이념논쟁이 어지럽게 난무하고 있다. 아마도 지구촌에서 한국의 정치사회만큼 이념 논쟁이 가열된 곳도 없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이념 논의의 양상은 일종의 사회정신병리학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우리의 사고 지평을 축소시키고 위축시켜 왔다. 이러한 원인은 서구 정치사상의 도입 과정에서부터 이미 잉태되었다. 일제하 독립투쟁기에도 좌우 이념 갈등이 있었고, 해방 후 우리나라는 이데올로기로 분단되고, 이데올로기로 동족을 적으로 하는 전쟁을 치르면서 분단체제를 내면화하고 분단의식의 고착화를 가중시켰다.

인간은 사회라는 제2의 모태 안에서 가치 체계를 세워나간다. 여기에 정치적 함의가 내포된 가치체계를 이데올로기, 또는 이념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케 하는 관념체계를 제공하고, 개인 및 집단에게 행동과 판단의 처방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이상 이데올로기적 존재이다. 인간의 사회적 삶은 이렇게 이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를 어쩌랴. 이념은 칼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의 손에 있으면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도구가 되고,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된다.

지구촌의 근현대사에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비극이 얼마나 많았던가. 20세기에 이념적 갈등으로 희생된 사람이 1억 명에 가깝다고 하던가? 당장 우리 민족이 그 대표적인 희생물의 하나이다.

개인이나 집단 구성원이 절대화된 이념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세뇌되거나 조종되었을 경우, 자기 도그마에 빠지게 되고 다른 이념의 신봉자에 대해 배타적 적대감과 공격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이념은 사람과 사회를 해치는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비극이 있다. 이념을 무서운 흉기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 엘리트 계층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이념을 인간학적 측면에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즉, 이념이 가지고 있는 양가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그 역기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념을 창출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요구된다. 참으로 신기하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지혜는 바로 2500년 전 붓다의 가르침에 이미 나와 있다.

이념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변화한다. 고정불변의 이념은 없다. 자유주의는 근대 정치사상사에서 진보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보수주의의 대표적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념은 연기법(緣起法)이 적용되는 제일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대 정치이념의 제일 큰 요소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용어도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뜻을 내포하는 연기적 용어이다. 이념의 역기능은 이데올로기적 언어와 현실 자체를 동일시하는 물화(物化)의 함정에 빠질 때 제일 많이 나타난다. 현실을 추상화시킨 것이 용어인데, 이 용어의 안경을 통해 현실을 진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념적 논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용어에 사로잡혀 미로를 헤매는 느낌이다.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는 각종 이념적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붓다가 열반에 드실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말씀이나, 연꽃의 의미를 미소로서 화답한 '염화시중'을 상기하게 된다. 언어의 노예가 되면 이념의 노예가 된다.

이념을 연기법으로 접근할 때 이념의 독선과 당파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기법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중도이다. 이념에 있어 중도는 가운데가 아니라 양극단을 잡고 더 높은 어느 곳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니라. 붓다의 정치철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고 본다. 바로 중정(中正)의 정치철학이다. 이것이 한국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여행지서 지구 살리는 방법

'Save Our Planet.(우리 별을 구하자)' SF영화에 나옴직한 이 문구를 만난 건 몇 년 전 미국 여행에서였다. 아들과 함께 뉴욕에 도착했던 날, 호텔 숙소 테이블 위에 그 팻말은 놓여 있었다.

그 팻말에는 침대 시트를 세탁하는데 들어가는 세제 · 물 · 전기 등을 아껴 우리의 지구를 구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2박 이상의 경우 시트를 갈지 않아도 된다면 그 신호로 팻말을 침대 위에 올려놓아 달라고 적혀 있었다.

그 팻말을 읽으며 미국 서부를 여행하는 내내 들었던 불편한 마음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무더운 미국 서부의 날씨에도 호텔 방을 차갑게 식혀 주었던 에어컨과 하루를 쓰고 벗겨져 나가는 침대 시트를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세상이 넓다'는 생각은 했어도 미국은 정말 넓었고, 그 너른 땅만큼이나 사람도 많고 엄청난 양의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있었다. 호텔이나 버스는 대부분 창문조차 열리지 않았고, 오로지 에어컨으로 환기와 냉방을 해결하고 있었기에 선택의 여지없이 에어컨을 켜 놓아야 했다. 게다가 하룻밤만 묵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니 교체되는 침대 시트를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여행 동안 세상의 많고 많은 호텔이 이와 다르지 않겠지 싶으니 지구가 파괴되어 가는 속도를 보는 듯 아찔하기도 했다.

무감각하게 지구를 아프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나도 있다는 걸 절감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우리별을 구하자'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반가운 제안인가!

우리가 많은 여행을 하는 동안 누리는 쾌적함과 편리함에는 대가를 지불한다. 보송보송하고 새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 건조하고 차갑게 식혀진 공기, 여행사에서 제공되는 생수, 이런 것들은 여행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누리는 쾌적함이 내내 편치 않았다. 내가 지불한 요금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할 것만 같았다.

요세미티, 그랜드 캐니언, 광활한 모하비 사막 같은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햇살, 바람을 제공해 주고 있는 지구에게 나는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나마 자신을 위안할 수 있었던 건 여행 내내 일회용품 대신 준비해 간 치약과 칫솔을 사용하고 EM비누로 샤워를 했다는 것 정도였다.

'Save Our Planet'이라는 팻말을 세상 모든 호텔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이라도 덜 지구를 괴롭히며 여행하는 방법을 다 함께 찾아 나갈 수는 없을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찾아보니 세계 곳곳에 친환경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들이 있었다. 폐기물 처리를 위해 9개의 지렁이 사육장을 보유하고 있는 호텔도 있었다.

세상은 정말로 넓다. 그 너른 세상은 지구의 품 안이다. 지구별 마당을 소박하고 정갈하게 거니는 여행객으로 지구를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해는 끼치지는 않아야겠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社 說

韓日불교, 환경운동 실천 나서자

전 세계적으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이 전개되면서 일상생활 속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지양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친(親)환경을 넘어선 '필(必)환경'이 새로운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런 가운데 한국불교계가 일본불교계와 환경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 주목받고 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와 일본불교교류협의회가 최근 일본 홋카이도 중앙사에서 개최한 제39차 교류대회에서 '환경문제와 불교의 관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 교류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오던 양국 불교계가 최근 사회 화두로 떠오른 환경을 대회 주제로 삼은 것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불교계는 대회에서 방사능과 지진, 호우 등의 재해를 겪으면서 환경문제 해결에 종교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한국불교계 역시 불교가 '숲의 종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자연재해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구체적인 실천안 수립이다. 단순히 양국 불교계의 환경문제 논의가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도록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고 불교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환경문제가 개개인의 생활양식에서 비롯되듯이 개개인이 모여 이룬 종교계가 환경운동을 펼친다면 풀뿌리운동으로 확산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행공동체는 새 불교의 씨앗

수행공동체가 공동체 형성에서 더 나아가 마을까지 만든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사부대중 공동체 행복한마을이 6월 30일 새로운 공동체 시설 '심검당'과 '제너홀'을 개원한다. 행복한 마을은 경남 거창군 남하리 대야리에 1만 6000평 규모로 조성된다. 행복한마을은 2006년 촌장 은산 스님이 창건한 행복한절을 중심으로 조성된 공동체 마을로 이번에는 스님들의 수행처를 만드는 불사다.

이와 함께 재가자를 위한 휴식공간 휴심정(休心庭)도 내년 중 완공된다. 행복한마을의 재가자 공간은 이미 부산에도 마련돼 4가구가 함께 모여 살며 수행 중이다.

최근 수많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계획공동체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미국에만도 2000여개 공동체가 등록해 있으며 미국 외에도 4000여개에 달하는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런 공동체의 형성은 개인주의의 확산의 반대급부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함께 행복하기 위함이다. 인류의 삶을 보면 공동체 생활은 큰 장점을 띈다. 부처님도 보리수나무 아래서 성도한 후 수행공동체를 형성했다. 그 이유는 삶, 특히 수행에서도 상호부조하며 정진하는데 공동체가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불교에 있어서 수행공동체는 일종의 새로운 불교를 위한 씨앗이다. 수행공동체는 기성의 불교가 지닌 개인화된 기복문화에 치우진 단면을 탈피하여 새로운 수행, 정진문화를 만들기 때문이다.

수행공동체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 시작 자체가 매우 소중하다. 행복한 마을은 10여년 동안 이미 자리잡은 수행공동체다. 행복한 마을의 행보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수행공동체들이 봄에 새싹이 움트듯 새롭게 탄생되길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이모그래피 창시한 '書禪一如' 서예가

〈Emography〉



허회태 작가는… 상명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화 전공 석사 졸업했다. 서예 • 전각 • 한국화를 섭렵해 현대미술과 융합 • 접목한 새 장르 이모그래피(Emography)를 창시, ABC 및 FOX 등 해외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카이로스 허회태미술관장, 연변대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 미술세계아카데미 이모그래피 지도교수, 예술의전당 서예아카데미 지도교수, 무산서예이모그래피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이모그래피-허회태 書 · 畵 · 刻 예술 47년, 주독일한국문화원 초대개인전(이모그래피), 서화 아트페어 초대 개인전 등 다수의 개인전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개관기념전 꼴라쥬, 여수 국제 아트페스티벌 한국현대미술의 동향전(갤러리연) 등 많은 단체전에도 참여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대상, 원곡서예상 등 다수 수상했다.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에서 생활 〈1〉

B5 문화
이명희 개인전 '자연을 품다'

B6 학술
통도사 세계유산 가치와 계승

산문 밖의 禪

서예가 허회태

(63 · 연변대학교 미술대 회화과 교수)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내가 문득 축시에 일어나 뜻하지 않게 글을 쓰고 싶어서, 잘 쓰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썼다. 날이 밝은 뒤에 살펴보니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았으나 속기(俗氣)가 없어서 제액(題額)을 달아 완성했다."

뜻하지 않게 쓰고, 잘 쓰려는 마음 없이 쓰고, 속기 없이 쓴다. 다시 정리하면 무의, 무욕, 탈속이다. 서예가 허회태의 서법이다. 그렇게 허회태의 '쓴다'는 붓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이다. 그리고 그 흔적은 철저하게 불가적(佛家的)이다. 그는 그 불가적 서예를 '이모그래피(Emography)'라고 말한다. 오랫동안 불가적 시선과 마음으로 서예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그 확장으로 인해 다시 불법(佛法)에 깊어가는 서예가 허회태다.

운명이 된 붓

다섯 살이었다. 운명이었다. 어린 허회태는 붓 옆에 있었다. 아니 어느 날, 허회태 곁에 붓이 있었다. 다섯 살이 무엇을 알아서 붓을 잡았을까. 그리고 다섯 살이 잡은 붓을 '붓'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다섯 살이 붓을 쥔 것이 '운명'이라는 수사로 유난을 떨만한 일일까. 허회태가 서예가가 되지 않았다면 그 날의 붓을 '붓'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운명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섯 살 허회태가 쥔 붓은 '붓'이 되었으며, 다섯 살이 붓을 쥐게 된 일은 운명이라는 말이 유난스럽지 않게 되었다.

붓은 허 작가의 백부 허영재의 것이었다. 1957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허 작가는 집성촌에서 백부와 가깝게 살았다. 허 작가의 백부는 한학자였으며, 훈장이었다. 서당이 있는 백부의 집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책과 붓은 넉넉했다. '붓글씨'는 당연한 것이었다. 어린 허회태는 백부의 집을 드나들며 하늘 천, 땅 지를 읽기 시작했다. 하늘 天, 땅 地는 붓으로 써야했다. 다섯 살의 허회태는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하늘 천' '땅 지'를 붓으로 익혔다.

어느 날부턴가 허회태의 붓은 단순히 글자를 옮겨 적는 붓이 아니었다. '연필'이 아니었던 것이다. 어린 나이였지만 허회태의 붓은 점점 서체를 찾기 시작했다. 서체를 가지고 싶어 했고 서체를 지니기 시작했다. 백부는 알아봤다. 어린 조카에게 붓이 어울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붓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린 조카는 백부의 글씨를 넘겨다보기 시작했고, 백부는 깊어가는 조카의 붓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백부도 다시 붓을 잡았다. 조카의 붓이 붓을 잡게 했다. 조카는 백부가 즐겨 쓰는 글씨를 따라 쓰기 시작했다. 백부의 글씨는 그 유명한 안진경체였다. 안진경체는 당나라 때의 서예가 안진경(709~785)의 서체로, 당대 이후의 서도(書道)를 지배했던 서체다. 안진경의 가문에서 만든 〈안씨자양(顔氏字樣)〉은 당나라 때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 동안 중국의 과거장에서 정체(正體)의 글씨로 쓰였으며, 명나라의 만력연간(萬曆年間 · 1573~1620)에는 간행된 서책의 대부분이 안진경체였다. 어느 날부턴가 다섯 살의 허회태는 안진경체를 쓰고 있었다.

빛나기 시작한 붓

"10년 공부…서예 최고상-허회태 군, 韓 · 加재단 주최 美展서"

열다섯 살이었다. 허회태는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이 신문에 오르기 시작했다. 순천 삼산중학교 3학년 허회태는 붓을 잡은 지 10년 만에 한 · 가(한국 · 캐나다) 문화재단 주최 제1회 전국학생미술작품전에서 1800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최고상(서예부문)을 수상했다. 그리고 그의 글씨는 캐나다에서 전시된다.

중학교에 진학한 허회태는 또 한 사람의 스승을 만난다. 이상호 선생님이다. 서예에 조예가 깊었던 미술 선생님이다. 선생님의 특별 지도를 받기 시작한 허회태는 3학년 때 제8회 전국서예대회(한국서예교육연합회 주최)서 첫 입상하고 연이어 최고상을 수상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크고 작은 대회에서 입선을 하기 시작했던 허회태였다.

수상은 값진 것이었다. 의미가 많았다. 허회태는 매달 서울에서 누나가 보내주는 4~5천원의 학비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허 작가는 매일 3~4시간씩 붓을 잡았다. 붓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종이였다. 화선지 한 장이 25원이었던 시절이었다. 허회태에게 화선지는 '금'이었다. 허회태는 지역의 국전입선작가들이 쓰고 남은 화선지를 얻어와 글씨를 썼다. 힘겨운 시간 끝에서 받은 상이었기에 기쁨과 의미는 남달랐다. 그리고 수상은 여러 가지로 스스로를 도왔다. 학비를 면제받았고, 고등학교 진학에도 큰 도움이 됐다. 허 작가는 서예특기장학생으로 진학했다. 그리고 수상은 이어졌다. 허 작가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그의 이름은 신문에 자주 올랐다.

불가적 서예가의 길

5세 때 서예 입문
백부로부터 안진경체 사사
중교부터 큰 상 다수 수상
중3 때 캐나다 개인전 열어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대상
'반야심경' 2천 번 써

1995년, 허 작가는 또 한 번 큰 상을 받는다.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서예부문 대상을 수상한다. 이옥봉의 시를 목간체로 썼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은 서예인에게 큰 상이다. 목간체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 서한시대에 나무 조각에 먹을 사용해 쓴 서체다. 허 작가의 대상 수상 이후 서예인들 사이에서 목간체가 유행하기도 했다.

새로운 서예, 이모그래피(Emography)

각기 다른 서체로 쓴 '佛' 자를 판넬로 이어붙인 8m 길이 대작의 제목은 '108 번뇌 불', 역시 8m에 이르는 커다란 '佛' 자 형상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억만겁) 작은 '佛' 자가 겹쳐져있다. 작은 '佛' 자가 모여 커다란 '佛' 자를 완성한다. 아크릴과 모래 등을 이용해 경주 남산의 불상을 형상화한 작품을 비롯해서 나옹선사, 서산대사의 시 서예작품과 반야심경을 새긴 전각, 도자기 등도 보인다.

2008년 10월 허 작가는 서예 인생 47년을 결산하는 전시를 열었다. 전시의 제목은 '이모그래피(Emography)'다.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렸던 전시는 서예와 회화의 경계를 허무는, 서예사에서 큰 사건이었다. 이모그래피란 감성을 뜻하는 이모션(Emotion)과 글씨나 화풍을 말하는 그래피(Graphy)를 합친 합성어다. 허 작가는 2005년부터 이모그래피를 시작했다.

B2면에 계속

뜻·욕심·속기 없이 쓴다

〈俗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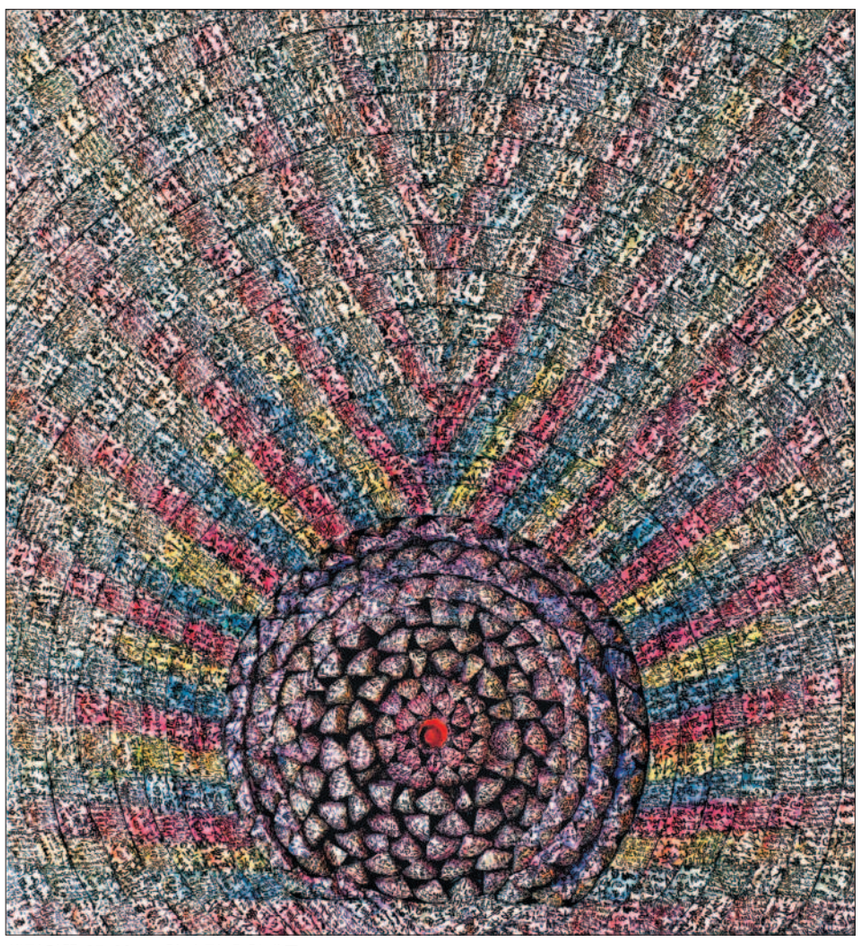
'서예가 허회태' B1면에서 계속



108번뇌불 800×200cm 2008.



억만부처불 800×200cm 2008.



생명의꽃 65x60cm 한지 및 혼합재료.

허 작가의 이모그래피는 기존의 서예 개념을 통째로 뒤집는 혁신적인 시도였다. 아니 단순한 시도에서 끝나는 일회성 퍼포먼스가 아니라 새로운 '길'이었다. 3천년 서예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이었다. 기존의 서예는 '쓴다'였다. 글씨를 쓰는 것이었다. 조형성에 중심을 두고 문자가 가진 뜻을 전하는 예술이었다. 이어져 내려오는 서체의 또 다른 재연과 재현이었다. 하지만 허 작가의 이모그래피는 개념 자체를 달리한 것이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는 것도 아니다. 쓰는 것이면서 그리는 것이다. '그린 글씨'라고 할 수 있다. 글자 하나하나의 본질을 파헤쳐서 새로운 형상을 그려내는 것이다. 서예와 그림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번의 붓질로 찰나의 세계를 가장 단순하게 축약하여 표현한다. 사물을 본떠 관념을 나타낸 문자가 아니라 감성을 나타낸 흔적이다.

"사물의 본질을 기운이 생동하도록 단순화된 형상으로 표현하는 이모그래피는 서예나 회화에서 보이는 문자나 형태가 아니라 감성을 나타낸 흔적입니다. 때론 허공을 가르며 비상하는 듯 불교사상을 가장 극대화한 표현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 작가는 언제부턴가 '서예란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했다. 동양권에 한정된 한계성에도 회의를 품게 되었다. 시대와 세대, 지역을 가리지 않아야 진정한 예술이라는 생각에 도달했다. 그리고 허 작가는 그 이유로 글씨가 글씨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닿았다. 글씨가 글씨를 넘어설 때 진정한 서예,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허 작가는 글자 한 자 한 자의 근원에 다가가는 시도를 모색했다. 그리고 허 작가는 그것이 부처님이 걸어간 길과 같은 길이라는 생각과 만난다. 허 작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부처님을 알고 있었다.

또 하나의 운명, 불교

"제가 서예에서 고민하던 것이 불교에 있었어요."

허회태의 이모그래피는 부처님의 생각에서 왔다. 이모그래피를 모색하기 전, 허 작가는 작품의 소재로 '반야심경'을 가장 많이 썼다.

"20대 초반부터 썼죠. 다른 경전들도 썼지만 '반야심경'을 가장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2천 번쯤 쓴 것 같아요. 다른 글과는 달라요. '반야심경'을 쓸 때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살살이 뒤지는 것 같아요. 글자 한 자 한 자가 마음 구석구석을 들춰내는 느낌이에요. 나도 모르게 엄숙해지고 진지해져요.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숨을 곳이 없어요. 순간순간 만나는 마음들이 한 자 한 자 글씨가 되고 나면 서예에 대한 생각이 새로워지고, 나에 대한 생각 또한 새로워집니다. 하지만 매번 여법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도 있죠. 글자와 나 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 때가 있죠. 그 땐 붓을 놓아야 합니다. 다른 글도 그렇지만 경전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손으로 쓰는 글은 서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쓰고 또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서예가 허회태를 관통하는 가장 큰 글자는 '佛'자였다. 어린 허회태에게 붓이 어울렸듯이 서예가 허회태에게 가장 어울리는 글자는 부처님의 글자였다. 그 불교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왔다. 허 작가는 어려부터 어머니를 통해 불교를 만나왔다. 허 작가의 어머니는 늘 아들을 염려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 늘 미안했다.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늘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렸다. 아들의 안녕, 아들의 영화가 어머니 기도의 전부였다. 어머니의 기도가 깊어갈수록 아들의 불심도 자라났다. 늘 아들의 이름뿐인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를 지켜보는 아들의 마음속에 불심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서예가 허회태가 '반야심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없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시작됐다. 또 하나의 운명, 불연인 것이다. 그렇게 허 작가는 불법(佛法)을 만났고 그 불법으로 서예를 하고 있다.

또 한 번의 확장, 이모스컬퓨쳐

올해 2월, 허 작가는 또 한 번의 확장을 시도했다.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렸던 전시의 제목은 '심장의 울림'이다. 이미 '이모그래피'로 서예사에서 새로운 길을 열었던 허 작가는 또 다른 시도를 선보인다. '이모스컬퓨쳐(Emosculpture)'다. 이모스컬퓨쳐란 '이모션(Emotion)'과 조각품을 의미하는 '스컬퓨쳐(Sculpture)'를 합성한 단어로, 서예와 조각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서예를 회화로 확장했던 허 작가는 서예를 다시 조각으로 확장했다.

3천년 서예사를 다시 쓰다

2005년 '이모그래피' 창시

"불교사상 극대화한 표현기법, 문자 · 형태 아닌 감성의 흔적"

서예, 회화 · 조각으로 확장

서예의 예술적 한계성 극복

글자의 근원 찾는 서예 추구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형상을 만들고 있는 조각 작품은 한 편의 만다라를 보는 듯하다. 작은 조각들을 들여다보면 작은 글씨들이 보인다. 한자, 한글 그리고 영문도 있다. 또 한 번 서예를 확장시킨 전시에서 허 작가는 '반야심경' 등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작은 글씨로 쓰고, 그 글씨들을 모아 한 편의 조각을 완성했다. 우주와 생명의 원초적 현상에서 비롯된 세계를 그리고 있다. 만다라다.

"현대 조형회화와 조각설치작품은 2차원의 평면을 벗어나 3D 작품으로서 관객의 곁으로 다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우리 삶의 이야기가 소재가 되는 이번 작품들은 그 변화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관람객에게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는 작품들은 심오한 매력으로 대중의 호평을 기대하고 있으며, 생명의 근원에 접근하는 철학적 경지를 보여주는 소통의 확장을 이루고자한 것입니다."

허 작가가 전시에서 보여준 작품들에는 '위대한 생명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생명의 꽃', '심장의 울림', '헤아림의 잔치'로 확장해가는 세계관이 담겨 있다. 형식은 정비된 콘셉트와 양식으로 진화하여 유기적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심장의 울림'은 본래 실체가 없어서 형상이나 색깔이 없지만 끝없이 오묘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조정하고 움직이는 '마음'을 표현했다.

"마음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만듭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이며, 유심소현(唯心所現)이죠. 그러나 한자를 처음 만든 사람들은 마음의 작용이 심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심장의 모양을 따서 '心'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작용은 심장의 울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작용하며, 마음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어갑니다. 심장은 정밀함을 잃어하지 않으면서 심장의 언어로 말하는 그것이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 '심장의 울림'으로 작품에 투영되고 이입되는 것입니다."

허 작가의 이모스컬퓨쳐는 '心'에서 출발하여 확산된다. 균제와 균형을 잃지 않는다. 동서남북 4방위로써 인류의 질서를 구현한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생명의 탄생에서 존재의 근원으로 파고든 세상의 소용돌이를 표현하고 있다. 한 가지 구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합으로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 끊임없는 창조의 과정을 보여준다. 심일경성(心一境性)의 경지에서 시각적으로 마음과 우주가 하나가 되어 끝없이 팽창 · 확산되어 소우주의 무궁함으로 표현된다. 선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부처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만다라의 세계와 우주의 삼라만상과 인간의 세계가 서로 끝없이 이어지는 인드라망의 그물코처럼 무한하게 펼쳐진다.

허회태의 글씨는 이제 보이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한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보고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이 허회태의 글씨고,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이 허회태의 글씨다. 회회태의 서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法답게 사는 선원 일상생활 '감동'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⑪ 빠옥 총림에서 생활 〈1〉

제방 수행처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도력이나 법력이 있는 스승을 찾기 때문이다. 그러한 스승이 있다하면 거리를 상관하지 않고 편의시설도 상관하지 않는다. 아무리 선방 프로그램이 좋고 선원의 시설 또한 좋다고 하더라도 배울 만한 스승이 없다면 찾지 않는다. 촉각을 세워 스승을 찾는 사람은 절실하다. 스승의 무게를 귀신처럼 안다. 인도나 미얀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스승을 찾아 사람들은 모이게 된다. 그리고 선택한 스승에 자신을 던져 보고 맡겨 본다.

빠옥총림의 빠옥 선원장 스님은 1934년에 태어나 10세에 사미로 출가하였다. 이후 경론 공부와 함께 여러 승가고시를 통과했다. 20세에 구족계를 받고 22세에 '법사(Dhammacariya)' 시험을 통과했다. 1964년부터 집중적으로 선정수행을 닦으면서 아란야 산림수행으로 나아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경론 공부를 병행하면서 선정수행 또한 여러 선사로부터 지도받았다.

1981년에 빠옥 스님은 당시 빠옥 총림의 선원장 스님은 악갸빤야(Aggapaña) 스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1983년에 이르자 미얀마 내 많은 출재가자들이 빠옥 스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 이르면 외국의 수행자들 또한 빠옥 스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 빠옥총림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 이르러 빠옥 스님은 초기경전에 근거하는 수행 지도서를 출간했다. 이 같은 수행 지침서는 미얀마어나 스리랑카어로도 출간되었지만 영어로 출간이 전 세계인을 또한 찾게 한 주요한 요인이었다.

빠옥 스님은 경론의 법사와 함께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의 선사(禪師)로도 높은 존경을 받는다. 법사를 의미하는 'Dhammācariya'와 'Kammaṭṭhānācariya'라는 공식적인 타이틀이 이를 증명한다.

'Kammaṭṭhānācariya'는 업처(業處) 수행 지도의 스승을 말한다. 빠알리 논서에서 업처란 다양한 사마타 수행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빠옥 스님이 국제적으로 널리 법을 펼 수 있는 장점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에 기인한다. 전 세계의 초청으로 법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몇 해 전 고우 스님과 함께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토론을 진행했다.

스님의 활동상은 정부로부터도 인정받아서 1999년 미얀마 정부는 빠옥 스님에게 'Agga Mahā Kammaṭṭhānācariya'라는 칭호를 수여했다. 'Agga Mahā'는 최고 정점의 위치를 말한다. 2009년에는 'Shwekyin Nikāya Rattaññūmahānāyaka'라는 칭호를 수여받았다.



빠옥 선원에서 봉행된 중국계 불교인의 설맞이 법회 단체 사진. 필자도 참여했다. 사진 세 번째 줄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필자다.

대승의 〈관무량수경〉을 읽다 보면 눈길을 사로잡는 대목이 있다. "선정에 나온 뒤에 경전의 가르침과 맞추어 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경구이다. 교외별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전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공부는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얀마에서 선수행 지도 법사는 수행의 실수(實修)와 경론의 학습을 겸비해 있는 스승임을 증명하는 전통임을 보여준다. 사마타 위빠사나 등의 공부에 경론에 근거를 두고 경론의 말씀에 맞추어 지도하고 있음을 말한다. 빠옥 스님에게 수여된 공식적인 칭호들이 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그의 지도를 수용하는데 안전하다고 믿고 따른다. 이 같은 전통은 비단 미얀마 불교에 국한된 전통이라기보다 인도불교의 면면한 주류 전통의 계승일 것이다.

다음은 빠옥 총림의 선원수행 일과표이다. 일과표는 마하시 선원처럼 총림의 여러 곳에 게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따로 복사하여 새로 입방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주지 스님은 일과표에 볼펜으로 표시하며 시간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줬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님의 이름과 수행점검을 해 주는 두 스님의 이름을 'Ven. Kovida'와 'Ven. Revata'로 적어 줬다. 또한 상좌부로 출가한 한국 출신 스님 이름도 알려준다. 이러한 일과표를 다시 찾아보니 닳아져 글자도 희미해졌고 누렇고 너덜너덜해져 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전해졌다. 첫 번째는 "새벽 3시30분, 아침 7시15분, 오후 12시45분, 오후 5시45분에 긴 통나무로 된 목탁을 쳐서 단체 좌선을 알릴 것"이며, 두 번째로는 "수행자들은 개인 시간이든 자유시간이든 모든 시간에 좌선과 경행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론 · 실수 병행한 수행 강조
새벽 3시30분부터 정진 시작
하루 네 차례 단체 좌선 진행
중국계 설맞이 법회 경험도

2012년 1월 23일. 오늘은 빠옥 총림에 도착한 두 번째 날이다. 마침 음력 설날이었다. 습관대로 아침에 먼저 일어나 바로 담요를 개고 그 자리에서 좌선을 하였다. 좌선하는 동안 주지 스님은 나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일어나지 않다가 자세를 푸니 그때야 일어났다. 간단히 씻고서 먼저 공양청을 찾아갔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길가에 덩치 큰 개들이 나를 보고 짖어댔다. 새로 온 사람인지 아는가 보다.

어제 주지 스님이 가르쳐 준 공양청을 찾아가니 모두가 배식 준비로 분주했다. 소임을 맡고 있는 띨라신 사미니 스님을 찾아 밥그릇을 수령해야 한다. 스님을 만나 부탁하였더니 한참 후에 쟁반에 큰 바가지 같은 스테인리스 밥그릇과 컵과 숟가락, 스테인리스 접시 그리고 식기를 닦을 천 조각과 함께 내어줬다. 그러면서 수행하는 동안 사용하게 될 식기라고 전했다.

스님들의 개인 발우처럼 재가 요기들도 마찬가지로 탁발 후 씻어 정해진 식기 보관함에 보관했다.

양곤의 마하시 선원은 개인 식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사용했던 식기의 설거지도 하지 않았다. 그냥 차려진 탁자에 둘러 앉아 먹고 난 후 일어서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빠옥총림에서는 식탁도 없이 맨 바닥에 앉아 먹는다. 또한 아침 공양 시간이 마하시 선원보다 늦다. 아마 많은 인원과 사내 탁발 때문으로 짐작된다.

공양에 앞서 먼저 식판을 앞으로 정렬한 후 모두 합장한다. 선창을 따라 미얀마어와 빨리어로 공양게를 우렁차게 합창한다. 낭송 후 바닥의 식판을 들어 올린 후 사내 탁발의 행진을 따른다. 앞선 스님들의 공양 행렬을 따라 재가자들도 차례차례 음식물을 공양받는다.

마침 설날이어서 중국계 스님과 신도들이 보시하여 총림의 모든 대중에게 점심까지 특별식이 제공됐다. 배식구 반대편 건물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배식을 받았다. 내 그릇에도 밥과 갖은 종류의 반찬 등을 가득 담아줬다. 아무래도 생소한 환경에 나의 어색함이 보였는지 상좌부로 출가한 한국 스님이 다가와 간략한 설명에 이어 가르쳐 준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옆에는 유럽계 몇 사람이 앉아있다. 드디어 아침 식사를 하는 데는 성공했다.

양곤의 마하시 선원에서 활동량이 적다가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며 먼 곳까지 와서인지 무척이나 밥이 간절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여유있게 나오다 다시 한국 출신 스님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숙소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도서관 건물 앞에서 베트남과 중국계 스님들이 대거 모여 있다. 모두 신심과 환희심에 넘치는 분위기로 충만했다.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니, 설날이라 큰 스님을 모셔와 특별 법문을 듣는다고 한다. 먼저 도서관 앞에서 초청 법사 스님과 기념사진을 찍는데 나도 슬쩍 참석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법사 스님에 모두 맨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러면서 스님에게 꽃 한 송이, 비스켓 한 봉지, 양초 한 다발 등을 각자 성심껏 공양했다. 스님은 받아 손만 대면 바로 옆 스님이 보시물을 담았다. 헌신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를 지켜보노라니 절로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제 종무소의 현황판에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외국인 수행자 가운데 베트남과 중국이 1, 2위를 차지하였는데 지금도 그러하리라 생각된다. 이를 보면서 문득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선불교가 본토에서 사라지고 한국에 중국 전통의 불교가 잘 보존돼 이제는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전통불교를 역수입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상황은 영 딴판이었다. 오히려 상좌부 불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상좌부로 출가한 한국 출신 스님에게 이 같은 생각을 이야기하니, 스님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스님은 중국 정부차원에서도 한국에 있는 과거 중국인들의 선불교보다 동남아 초기불교 전통을 더 지원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불교를 통해 동남아 국가와 유대를 더 강화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누었다.

불단이 있는 도서관에서 베트남과 중국계 스님과 신도들이 중심이 된 법회가 봉행되었다. 미얀마어를 중국어로 통역하여 알아들을 수는 없어도 뒤에 앉아 법회 진행 분위기를 참관하였다. 모두 신심과 환희심에 넘쳐 있었고 편안한 농담도 웃음도 오갔다. 화기애애했다. 대덕 스님의 법회인데 어떠한 긴장감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 도서관 시설을 살폈다. 수행처 도서관으로서는 시설이 뛰어나다. 각국의 초기불교 관련, 수행 관련 도서들이 다 모여 있다. 물론 대승불교 서적들도 많이 있다. 대부분 뜻있는 각국 수행자들의 보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도서 기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오늘은 포살일이라서 이후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오던 중 길에서 회색 승복의 한국 스님을 만났다. 그 스님이 사용했던 방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 했다. 대신 스님은 오늘 선원에서 나가는 다른 한국 스님의 개인 수행처인 독립된 꾸띠(kuti)로 옮길 것이라 한다.

몹시 궁금해 옮길 스님의 거처를 보기 위해 따라가 보았다. 산등성이에 위치한 수행처 건물로 가서 보니 완전한 원룸이다. 독립된 공간에 경관이 좋은 펜션과 같다. 순간 너무 환상적이어서 감탄했다. 선원을 중심으로 산등성이에 이와 같은 수많은 개인 수행처가 산재해 있다.

우리나라에 큰 사찰을 중심으로 암자가 있는데, 원래 암자가 꾸띠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어느 새인가 암자가 개인처소 공간에서 신도들이 찾을 수 있는 독립 신행 공간으로 변모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몇몇 스님들도 각각 이 같은 꾸띠(kuti)를 건립하여 미얀마에 올 때마다 개인 수행공간으로 이용하고, 떠날 때는 다른 수행자가 쓸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은 나중에 안 사실이다.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외래교수〉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2~6/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꽃에 향기를 더하대(육조 해능, 천로 야부 금강경 해설)	원정스님/정안스님	조계종출판사
2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7	미네소타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	홍창성	불광출판사
3	나는 중이 아니야	진광스님	불교신문사	8	진리란 무엇인가?	혜담스님	민족사
4	사찰의 비밀(불교 상징과 문화에 대한 안내서)	자현스님	자현스님	9	청암사 승가대학 비구니스님들의 좌충우돌 수행 이야기	청암사승가대학	민족사
5	정선 디가 니까야	이중표	불광출판사	10	불교가 필요하다	김규칠	김영사

소를 통해 들여다 본 인간 본성 성찰



십우도

백금남 지음/무한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 개인의 정신적 발전 과정을 불교적 관점으로 추적한 역작이다' 〈이청준 선생〉
'갖춰진 소설로서의 틀과 문장력, 우선 재미있게 이끄는 힘이 있다' 〈정규웅 문학평론가〉
'무거운 주제를 택해 성실히 밀고 나가는 탁월한 역량이 엿보인다' 〈서정기 교수〉

출간되자마자 문단에서 찬사가 쏟아졌다. 소설가 백금남〈사진〉이 소를 통해 인간 본성을 들여다 본 신작 장편 〈십우도〉가 그 주인공이다. 이번 소설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본성을 어떻게 찾아와 이 세상에서 눈빛 좋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도살을 업으로 삼고 있는 백정의 삶은 눈물겹다. 하지만 그게 곧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 소설은 문학적으로 펼쳐 보여준다. 저자 백금남은 책 속에서 일제 강점기와 6.25라는 민족의 수난. 그 과정 속에서 지난히 살 수밖에 없었던 민초들의 삶 그 자체가 오늘 우리들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도임을 처절하고 지극하게 버무렸다. 백정의 일상사인 소의 도살과 그 수행의 길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일상 또한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소설은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소설 〈십우도〉는 한마디로 백정의 일상사인 소의 도살을 통해 깨달음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진여와 실상의 체득이 또한 지난한 것임을 쉽게 이야기로 풀어냈다. 김선학 교수(문학평론가)는 "그 이야기는 언어를 잘 꿰어 갈무리한 문체의 특성 및 백정의 한과 사무친 설움의 응어리를 불교적 사유와 순환의 구조 속에서 감동으로 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했다.

소를 통해 인간 본성을 내다본 이 소설은 2014년 대종상을 수상한 영화 〈관상〉의 작가 백금남이 그려낸 거대한 한 폭의 구도화와 같다.

줄거리는 이렇다. 칼잡이 정산우는 어느 날 한 마리의 소를 잡다 놓쳐 버린다. 그는 소를 찾아 나서게 되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되돌아본다. 정산우의 고조부는 본시 백정 가문의 칼잡이 흰고무래다. 그는 흰고무래의 대를 잇기 위해 눈뜬 사람도 하기 힘든 백정짓을 눈먼 아들에게 대물림한다. 눈먼 백정 정풍정은 엄숙하고 장렬하게 백정으로서의 삶을 살다간다. 이후 그의 자손들은 세상의 괄시와 홀대를 온몸으로 받으며 정산우 대에 이른다. 자신이 놓친 소를 찾아 산으로 든 정산우는 눈물겨운 조상들의 지난한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자성에 눈 떠간다. 자신이 잃어버린 소가 곧 자신의 본성이며, 그 본성을 찾기 위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는 도(道) 그러면 먼저 어렵다고 생각한다. 도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생활 자체가 도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 백금남 작가는 그 사실을 이 작품에서 여실히 보여준다. 저자는 이 작품에서 우리의 일상 자체가 도이기에 잡다한 생활을 떼놓고 도를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도 그러면 산중절간이나 중생계와 격리된 심신산골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자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생활선(生活禪)임을 설명하기 위해 한 마리의 소를 등장시켰다. 본질의 현현으로서 소의 등장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선불교에서는 인간 본성을 소에 비유해 왔다. 소를 곧 우리의 본성으로 본 것이다. 그 본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이 소설 〈십우도〉이다.

십우도란?

1단계 심우 | 놓친 소를 찾아 나선다.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소의 자취를 찾아 헤맨다. 잃어버린 참 자아를 찾아 나섬을 상징한다.

2단계 견적 | 소를 찾아 실마리가 되는 발자국을 발견한 것은 깨달음의 서광이 비춤을 뜻한다.

3단계 견우 | 멀리서 야생의 사나운 소를 발견한다. 이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상징한다.

4단계 득우 | 정신을 집중해 소를 붙잡았으나 날뛰는 소를 뜻대로 다루지 못한다. 이는 득오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아직 더 닦아야 함을 상징한다.

5단계 목우 | 붙들었던 소를 길들이다. 이제 뜻대로 얻었으나 다시 잃지 않기 위해 수신해야 함을 상징한다.

6단계 기우귀가 | 길들인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면서 집으로 돌아온다. 이는 참 자아가 자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님을 상징한다.

7단계 망우존인 | 소를 타고 집에 돌아오니 세상은 그대로다. 대상 자체가 그대로 본래면목임을 상징한다.

8단계 인우구망 | 집에 돌아와 찾던 소와 찾은 나도 잊는다. 만물 일체가 공(空)임을 나타낸다.

9단계 반본환원 | 인간의 본성이 원래 청정한 것임을 나타낸다.

10단계 입전수수 | 이타행을 위해 다시 세속적으로 돌아옴을 나타낸다.

▲저자 백금남 작가는?

1985년 제15회 삼성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본격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1987년 KBS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신비한 상징과 목가적 서정으로 백정 집안의 기묘한 운명을 다룬 장편소설 〈십우도〉와 〈탄트라〉가 잇따라 히트하면서 90년대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중 한 명이 되었다. 2003년에는 〈사자의 서를 쓴 티베트의 영혼 파드마삼바바〉로 민음사 제정 올해의 논픽션상을 수상했다. 2008년에는 일본의 화신(畵神)으로 불리는 도슈샤이 샤라쿠가 바로 한국의 김홍도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추적한 소설 〈샤라쿠 김홍도의 비밀〉을 발표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소설 〈관상〉은 영화와 함께 '관상 신드롬'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궁합〉 〈명당〉과 함께 역학 3부작으로 꼽힌다.

출가 후 만난 인연담과 행복 찬가



나는 중이 아니야

글 진광 스님/불교신문사 펴냄/1만 4천원



2010년 조계종 교육원서 소임을 맡은 이래 9년여를 행정승 혹은 일명 수도승(서울에 거주하는 스님)으로 지내온 교육부장 진광 스님〈사진〉이 자신의 수행 역정을 담은 책 〈나는 중이 아니야〉를 펴냈다. 진광 스님은 자신이 교육에 문외한인지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간난신고가 있었지만, 조계종서 스님들 교육하는 중책을 맡아 '실로 너무나 좋은 인연과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교육원 생활을 평했다.

이번에 펴낸 〈나는 중이 아니야〉는 2016년 불교신문 논설위원으로 위촉돼 4년여를 '천수천안'과 '수미산정' 코너에 실었던 칼럼들과 교계 및 일간지에 쓴 글들을 한데 묶은 것이다.

책 제목만 보면 엉뚱하고 다소 황당해 고개가 갸우뚱 거려진다. 이에 대해 저자 진광 스님은 "나는 다만 '중(僧)'이라는 명상(名相)에 빠져 휘둘리는 것과 선민의식 혹은 기필의식을 저어함이라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한다. 또한 진광 스님은 "금강경을 인용해 중은 곧 중이 아니니, 그 이름이 중인 까닭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본래 중인데 중이 아닌 것처럼 혹은 중도 소도 아닌 것 같은 아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머리에 뿔이 나고 가죽에 털이 나서 다른 종류 가운데 행하는 삶과 수행과 보살행으로 그리 살아갈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 양구 깡촌 출신이라고 스스럼 없이 밝히는 진광 스님은 그야말로 별 볼일 없이 변방을 전전하며 헛된 꿈과 희망을 품은 일개 몽상가에 지나지 않았다고 자신을 술회한다. 하지만 진광 스님은 출가 후에는 오랜 시봉과 참선수행, 그리고 여행과 행정일 등 25년 동안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다. 그러면서도 책과 글쓰기만은 쉬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이번 책은 바로 그 결실의 결과물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광 스님은 책 속에서 젊은 날 숱한 불면과 감인대의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준 것은 어릴적부터의 오랜 습관인 일기와 편지, 그리고 독서와 여행 속에서의 경험과 깨달음의 순간들이라며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책을 쓸 수 있었다고 술회한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란 주제의 1부는 신문에 기고한 각종 칼럼 모음이다. '향기는 멀리 갈수록 맑음 더욱 더하네' 주제의 2부 역시 언론사 기고문과 함께 원담 스님을 비롯해 설악 무산 스님 등 당대 존경했던 선지식들의 추모글이 실려 있다. 이어 3부 '세상속으로'에서는 성지순례 글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 · 글들 묶어
9년간 진행한 교육원 행사들도 소개

모음, 마지막 4부에서는 '조계종 학인 염불대회'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 '학인 토론대회' '학인 설법대회' 등 2014년부터 자신이 교육원서 맡아 시행한 각종 행사모음 글과 사진들을 넣었다.

진광 스님은 책의 서두에서 "이 책은 내가 교육원서 함께한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든 인연과 사람들, 그리고 대작불사를 함께한 모든 이에게 바치는 찬가이자, 그 모든 것에 대한 일종의 보고서이며, 나의 졸업 작품과 같다"고 출간 취지를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저자 진광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수덕사로 출가해 법장 스님을 은사로 하여 94년과 99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3년간 원담 노 스님을 시봉하다가 팔공산 은해사 기기암 선원을 시작으로 전국 제방서 20여 안거를 성만했다. 2010년부터는 조계종 교육원서 사무국장, 연수국장, 교육국장을 두루 역임 했으며, 현재는 교육부장으로 있다.

조사선의 선풍을 확립하다!

전심법요·완릉록



임제 의현의 스승이기도 한 황벽은 간명하고 평이한
언어로 선의 이치를 펼치고 있어,
이 어록은 선의 정수이자 개론서로 꼽힌다.

황벽희운 저, 정운 강설/양장/288쪽/값 15,000원

금강경의 근본 종지와 낙처를 정확히 드러내다!

금강경삼가해



선사들의 선적 표현을,
원전의 심원하고 원융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정확하게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하였다!

전재강 역주, 고우스님 감수/양장/768쪽/값 35,000원

중국 백림선사의 정혜스님 법문집!

생활선의 열쇠



어떻게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날 것인가?
불법과 세간이 둘이 아니고,
사람노릇과 성불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정혜 지음, 이명한 · 안영주 옮김/양장/464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수묵·퓨어링 빚어낸 추상 세계

이명희 개인전 '자연을 품다'
6월 18~25일 서울 갤러리 이즈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서예와 문인화로 작품세계를 펼쳐온 이명희 작가가 서예와 회화로 추상 언어의 세계를 선보인다. 이 작가는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개인전 '자연을 품다'를 개최한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반야심경'을 비롯한 수묵 작품 11점과 퓨어링아트(Pouring art) 22점 등 총 33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퓨어링아트는 자연현상에서 내재되었던 감성들을 추상화한 그림으로, 캔버스에 물감을 붓고 흔들어 형상을 이끌어 내는 그림이다. 작품들은 오늘날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들을 자연의 섭리 속에 깃들어 있는 법칙들을 통해 삶에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와 자연에 순응하는 원리들로 우리 인간 사회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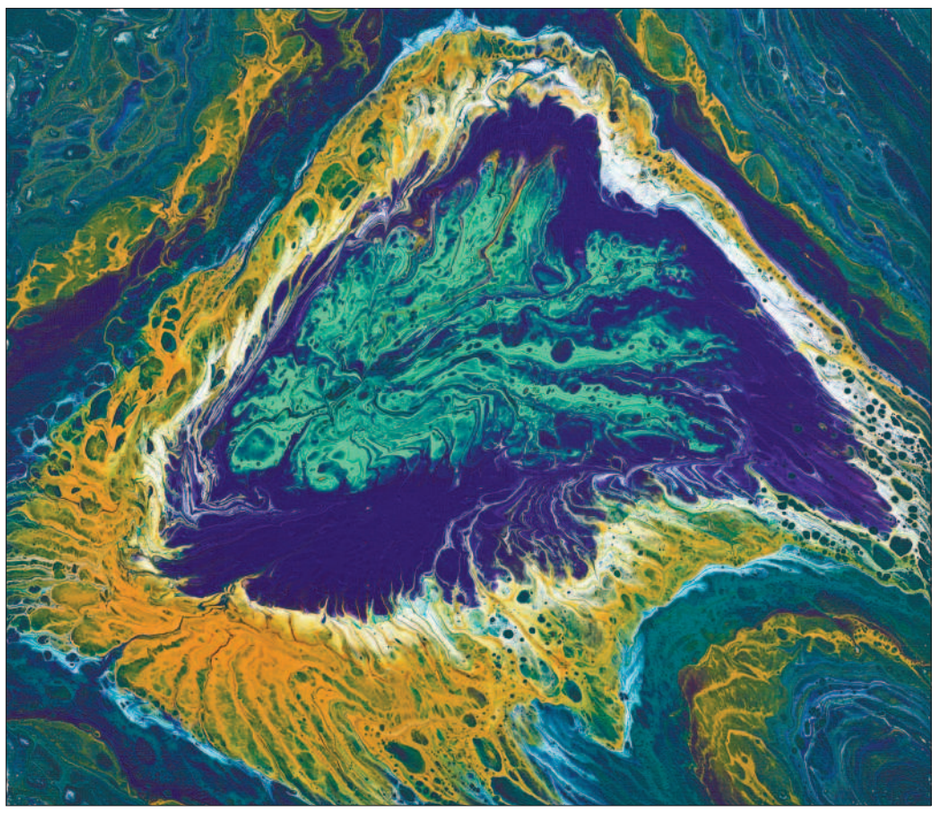
이 작가는 오랫동안 서예와 문인화, 캘리그래피 등 먹을 통한 작업을 해왔으나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퓨어링 아트 작업을 통해 화선지에 먹의 스밈이나 캔버스에 흩어진 물감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추상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다.

신항섭 미술평론가는 이명희 작가의 작품 세계를 "추상적인 언어는 작가의 내면세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실재하는 어떤 물상에 대한 재현이 아니라 마음 또는 의식의 활동으로 만들어내는 세계이기에 그렇다. 이명희의 추상 언어는 물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물감을 이용하여 손으로 묘사할 수 없는 오묘한 이미지를 얻는 방식이다. 물과 기름 그리고 물감을 캔버스에 붓고 캔버스를 자유자재로 움직여 원하는 이미지에 도달할 때 캔버스에 정착시키는 방식으로 제작되는 그의 작품은 남다른 감각과 공력이 필요하다. 치밀하고도 밀도가 높으며 아름답게 표현되는 작품은 탓할 데 없이 완성도가 높다.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순수 추상임에도 시각적인 이해에 어려움이 없다. 다양한 색채와 변화무쌍한 환상적 이미지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유발한다. 추상은 난해하다는 선입견을 무색케 한다"고 평했다.

이 작가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몇 가지 자신만의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연현상에 근접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연현상과 현실적인 공간 밖의 시점에서 보는 자연의 이미지가 있다. 현실적인 상황은 파도나 물결 또는 갯벌과 같은 자연에 근접하여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이다. 또 하나는 높은 산이나 드론 및 항공촬영으로 내려다보이는 지상의 풍경이다. 해변으로 밀려드는 파도라든가, 분출하는 화산의 이미지 등이다.

또 하나는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상상이나 사유에서 비롯된 이미지들이다. 현상계 너머에 존재하는 비가시적인 세계란 사유에 근거하거나 상상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수추상이다. 어떤 특정의 이미지를 의식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표현행위를 통해 순수추상을 얻는 방식이다.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추상적인 이미지와 원색이 지어내는 화려한 발색이 미적인 쾌감을 제공한다.

다양한 그림 도구를 이용하는 다른 추상화와는 다른 조형 공간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상과 마주하는 명민한 미적 감수성과 더불어 세련된 조형감각 그리고 지적인 분위기가 함께 한다. 퓨어링 작업을 시작한 지 불과 수년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미술의 영역에 그치지 않는 수리적이며 논리적인 성향의 사유체계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이명희 作, 사유(思惟)의 강 52.8x45.3cm, 캔버스에 아크릴, 2019

이명희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및 문인화 부문 초대작가(미협)이며, 대한민국미술대전(한국미협) 서예와 문인화 심사위원을 지냈다. 대한민국 통일미술대전 문화관광부 장관상, 문화예술인상(한국예술인 총연합회) 등 다수 수상했으며, 이명희 書,畵,文 개인부스전(역삼문화센터), 국제아트페어전(중국 삼서성 미술관) 등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다.

보물 속 디지털로 보다

'고려 보물의 속을 들여다보다' 展
6월 12일~9월 1일 국립중앙박물관


건칠보살좌상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문화재를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6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상설전시관 3층 조각·공예관에서 '고려 보물의 속을 들여다보다' 전을 개최한다.


건칠보살좌상 컴퓨터 단층촬영(CT)

문화재 보존과학의 성과를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건칠보살좌상과 청자 어룡모양 주자(국보 제61호) 등의 고려시대 유물과 '대고려 918·2018 그 찬란한 도전' 특별전(2018. 12. 4~2019. 3. 3)에서 공개하지 못했던 보존과학의 성과와 역할을 전시유물의 상태점검, 과학적 조사, 보존처리 및 전시실 보존 환경측정 등의 영상 자료로 보여준다. 보존과학부를 통해 최근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문화재 속의 정보들을 새롭게 밝혀나가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이번 전시는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려시대의 보물 중 청자 어룡모양 주자(국보 제61호), 청자 칠보무늬 향로(국보 제95호) 등 국보 4점을 포함한 총 6점의 중요 문화재의 비밀을 풀기 위하여 컴퓨터 단층촬영(CT) 이미지를 디지털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새롭게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디지털 영상으로 구현된 청자는 청자실에서 직접 실물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고려시대 금동일면천수관음사의 보존처리 내용을 소개하고 은제 금도금 표주박모양 병의 자세한 관찰을 위하여 디지털 돋보기 등도 함께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첨단 과학 장비로 얻은 문화재의 디지털 정보를 향후 어떻게 활용하여 관람객에게 전달하려는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의 디지털 원형 자료를 확보하여 전시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문화재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상설전시관은 연중 무료관람이며,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는 2020년 '빛으로 본 우리 문화재(가제)'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재와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성과를 흥미롭게 보여줄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불교미술대전 공모

9월 17~19일 접수, 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총무원은 제30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개최를 위해 작품을 공모한다. 우리의 전통 민족문화인 한국불교미술을 계승해 나갈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 및 육성하고 불교미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의 공모 부문은 회화·조각·공예 3개 부문이다.

회화부문은 세로 227cm×가로 181cm(150호) 이내이며, 조각부문은 높이 180cm×폭 180cm×두께 120cm 이내, 공예부문은 높이 180cm×폭 120cm×두께 120cm 이내이다.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또는 국내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이다. 응모 방법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공통 제출서류(응모원서, 출품자 경력서, 작품설명서 2부)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출품작과 함께 방문 접수한다. 기간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이며 접수처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 입구에 마련된다. 심사발표는 조계종 홈페이지와 개별통보를 통해 알린다.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은 1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대상(1명)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0만원, 최우상(2명)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500만원, 우수상(3명)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300만원, 장려상(6명)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 특선과 입선 수상자에게는 상장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된다. (02)2011-1779. 박재완 기자

'어린이 문화재그리기 대회'

6월 24일 오후 2~5시
국립전주박물관 전시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6월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시실에서 '제29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 소재 초등학생 어린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접수는 전주박물관 누리집(jeonju.museum.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 한해서 소속 학교 담당교사를 통해 공문서로 접수한다. 개별접수는 전주박물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단체 및 개별 접수 모두 오는 6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행사 당일인 24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현장접수도 이루어지며,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출품작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비롯해 우수상, 특선, 입선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시상식은 7월 10일 전주박물관에서 열린다. 입상작은 7월 5일부터 28일까지 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내 시민갤러리에서 전시한다. (063)223-5653 박재완 기자





“세계유산 통도사, ‘명승 · 사적’ 지정을”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 ‘통도사’ 주제 학술포럼

명승 · 식생 관련 연구 발표
통도사만 ‘명승 · 사적’ 아냐
산지승원 보존 위해 지정 필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는 6월 13~14일 통도사 일원서 ‘한국의 산사, 통도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와 계승’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사진=하성미 기자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산지승원’의 7곳 산사 중에 한 곳인 영축총림 통도사를 명승이나 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회장 이배용)는 6월 13~14일 통도사 일원서 ‘한국의 산사, 통도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와 계승’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명승으로서의 한국의 산지 승원’을 발표한 김학범 한경대 명예교수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산지 승원들을 명승 혹은 사적 지정 여부를 분석했다.

본래 ‘명승 및 사적’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한 분야로 명산대찰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1963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되는 동안 10건이 지정됐으며, 이중 6건이 세계유산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법률적 문제가 됐고, 2008년부터 사적과 명승이 분리돼 운영됐다. 이에 따라 △속리산 법주사 일원 △가야산 해인사 일원 △지리산 화엄사 일원 △조계산 송광사 · 선암사 일원 △대둔산 대흥사 일원 등 5곳 산사는 사찰 구역을 사적으로, 이를 포함한 전 구역을 명승으로 나눠 지정했다. 경주 불국사는 사적으로 재분류됐다.

김학범 명예교수는 “영축총림 통도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중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과 사찰로 지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영축산의 경승적 가치와 통도사의 문화재적 가치는 앞으로 조사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정책과 한국불교 무형유산’을 주제로 발표한 임돈희 동국대 석좌교수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불교무형유산 발굴을 제언했다.

임돈희 석좌교수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을 제정해 세계 곳곳의 무형유산들을 보호하고 있다. 2016년에 이르러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임돈희 석좌교수는 “유네스코가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세운 것은 무형유산을 바로 보는 관점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전통문화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무형유산이 현재 생활에서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이 변화된 유네스코의 비전에 따라 한국불교의 연등회와 발우공양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임돈희 석좌교수의 주장이다. 연등회는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사회통합과 평등, 평화와 안전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발우공양은 양질의 건강관리와 좋은 교육, 식량문제라는 유네스코의 목표에도 부합된다.

임돈희 석좌교수는 “유네스코의 새로운 화두인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 연등회와 발우공양은 어느 무형유산보다 발전 목표에 부합한다. 특히 연등회를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할 때 세계가 공감하고 즐기는 인류의 축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佛 · 儒 회통, 신라 · 고려 지배층 정식 이념”

셈 베르메르스 교수, 반야연구원 국제학술대회서

불교와 유교의 회통 사상이 신라 후기부터 고려까지 지배층들의 정식적인 이념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셈 베르메르스(Sem Vermeersch, 사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6월 2일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이 통도사 반야암에서 ‘융합과 회통, 동아시아 불교의 전통과 토착화’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셈 베르메르스 교수는 ‘한국불교사에서 유불회통과 혼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신라 후기부터 고려시대까지의 문헌자료를 통해 당시 시대의 회통담론에 대해 분석했다.

셈 베르메르스 교수는 〈삼국사기〉에 수록된 최치원의 ‘난랑비서(鸞郎碑序)’에 쓰여진 ‘이는 삼교(三敎)를 포함하고 뭇 백성들과 접하여 교화한다’는 등의 구절에 주목했다.

그는 “최치원은 불교, 유교, 도교가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신라에는 삼교를 통합하는 풍류도가 있다고 했다. 이는 삼교가 따로 움직이지만 신라에는 이를 통합하는 풍속이 있다는 의미”라며 “삼교를 통합하는 방식은 사실상 중국의 호법론을 인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치원은 자신이 지은 진감선사비에서 여산 혜원(334~416)이 논(論)한 “여래가 주공, 공자와 드러낸 이치는 다르지만 돌아가는 바는 한 길”이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최지원의 사상은 고려시대 정권의 사상적 바탕이 됐고, 회통사상도 그대로 이어졌다. 고려의 왕부터 관료까지 유교적 덕목의 양성이 불교에게 맡겨졌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효 사상이 불교를 통해 교양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대해 셈 베르메르스 교수는 고려 현종이 선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조성한 헌화사비를 예로 들었다. 현화사비 본문에 따르면 현종이 아버지의 무덤을 옮긴 후 사리가 기이하게 나타났고, 중국 황제가 현종의 효행에 감동해 대장경을 베풀었다고 전한다.

셈 베르메르스 교수는 “임금의 덕행이 주변 사람, 나아가 우주에게까지 응답을 일으킨다는 감응의 작동법”이라며 “현종의 충신 채충순이 집필한 현화사비 음기에는 더욱 명확하게 효를 불교와 유교의 근원으로 설명한다”고 설명했다.



회통사상, 사대부의 세계관
‘孝’ 수양할 교법으로 인정
고려 후기부터 佛 · 儒 분리

이어 “불교와 유교가 분리된 것은 고려 후기 성리학이 소개되면서부터”라며 “하지만 많은 지식인들이 불교의 부패를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불교를 애착하며 효나 다른 덕목을 닦기 위해 우수한 교법이라고 믿었다”고 밝혔다.

셈 베르메르스 교수는 신라 후기부터 고려시대의 지배층을 관통하는 사상을 ‘유불회통’으로 봤다. 그는 “신라 후기에서 고려시대 까지의 유불회통(儒佛會通) 담론은 지배층의 정식이념”이라며 “고려 후기 ‘신흥’ 엘리트를 대표하는 이색도 불교를 깊이 존엄하고, 마음 닦는 법으로 유교보다 우세하다고 생각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통사상은 적어도 일부 사대부에게는 지배적 세계관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9회 반야학술상 공모도

한편,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제9회 반야학술상을 오는 7월15일까지 공모한다. 응모 대상은 최근 3년간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연구업적이 뛰어난 중견급 이상의 연구자이며, 수상자 1명에게는 1000만원의 연구지원금이 수여된다.

추천 및 응모방법은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http://www.banyaresearch.org)를 참조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韓 · 佛, 직지 소재 다큐 공동제작한다

11일 문화유산채널 · 제데옹 그룹 공동제작 협약 체결

한국과 프랑스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공동제작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유산채널과 UHD 방송사 유맥스, 프랑스 제작사 제데옹 미디어그룹은 6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공동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지, 세상에 나오다(가제)’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는 ‘직지’를 발견하기까지의 과정과 이야기,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금속활자 인쇄술이 인류의 문명사에 끼친 영향 등을 소개한다. 또한 청주 흥덕사지(사적 제315호)와 금속활자장, 프랑스 국립도서관, 독일 구텐베르크 박물관 등 다양한 현장의 취재기가 담길 예정이다.

‘직지’ 다큐멘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2019년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의 ‘국제공동제작 부문’ 선정작이다. 지난 3월 한국문화재재단과 ㈜홈초이스, 프랑스 제데옹 미디어 그룹 등 3사가 연합으로 공모해 기획안, 기술평가(PT) 등을 거쳐 지난 4월 최종 선정됐다.

제작지원금 3억 원을 포함한 총 제작비는 5억 6,000만원으로, 총 2편의 다큐멘터리(50분)와 국내외 제작과정을 담은 영상(50분) 1편을 한국어, 영어, 불어 등 총 3가지 언어로 제작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2020년에 한국(문화유산채널, UMAX)과 프랑스 TV(Arte 등)를 통해 동시 방영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직지’ 다큐멘터리 제작이 한국의 유산이자, 세계의 유산인 ’직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새롭게 조명하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국민에게 친근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 · 보급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문화유산채널과 UHD 방송사 유맥스, 프랑스 제작사 제데옹 미디어그룹은 6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공동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교학연구회 ‘승가교육’ 주제 워크숍

6월 21~22일 해인사서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6월 21~22일 해인총림 해인사 템플스테이 강당에서 여름 워크숍을 개최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승가대학 교육 프로그램들의 현황을 살피고 전망을 분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보일 스님이 ‘해인사 승가대학 교육프로그램의 현재와 향후 과제’를,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학감 혜진 스님이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승가교육 사례’를, 청암사 승가대학 혜범 스님이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운문사 승가대학 은광 스님이 ‘운문사 승가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회고와 전망’을 발표한다. 워크숍 참가 자격은 불교학연구회 회원 및 불교학자, 스님, 학생, 가족 등이다. 참가인원은 40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불교학연구회는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승가교육 프로그램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관심있는 회원, 불자들의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⑪ 망종(芒種)
상추물국수 · 작약꽃전 · 개발딱주장아찌

소박하지만 든든한 한 끼 밥상

풋보리의 풋풋한 맛을 추억하는 마을 어른들이 보리알을 모아 손으로 비벼 솥에 볶거나 맷돌에 갈아서 죽을 먹던 시절을 이야기한다. 먹을 것이 귀한 시절 오죽하면 보릿고개를 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다고 했을까.

사찰의 경제사정 역시 별반 다를 바 없던 시절이었다. 1970년대 춘곤기의 탁발 순례는 많은 스님들이 발품을 팔며 온 마을을 두 달 남짓 돌아야 했다. 그렇게 모은 곡식을 소달구지에 싣고 절 입구까지 옮긴 후에야 한숨을 놓았다고 하시는 노스님의 선방외호 시절을 즐겨듣던 그때가 그립다. 먹을 것이 넉넉지는 않았지만 신심과 수행이 하나 된 일상생활에 존경심이 우러난다.

음력 5월은 작약꽃이 흐드러지게 들판을 메우는 시기다. 많은 곳에서 작약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 산청은 정광뜰 약초재배단지 안에 작약꽃을 식재해서 산과 어울러진 강가에서 좋은 풍광을 보여준다. 연분홍 작약꽃으로 쟁반화전을 만들어 이웃과 나눈다. 또한 산뽕나뭇잎이 알맞게 자라서 좋은 나물거리가 되어준다. 잘 삶아 볕에 널어 말린후 두고두고 묵나물로 먹는 나물 중 하나다. 특히 당뇨에 좋은 뽕잎나물이기에 더욱 귀하게 만난다.

시골장터에서 뽕잎을 따서 파는 일이 최근에 보이는 풍경이다. 흔하다고 생각하고 잘 먹지 않던 음식이지만 산간지방에서 뽕잎은 푸성귀가 귀한 시절에 제법 대우 받던 나물이다. 특수작물처럼 농가의 소득원인 누에고치는 오직 뽕잎만 먹고 자란다. 번데기도 알고 보면 깨끗한 음식이다. 보기에 벌레모양이라 꺼려했지만 그 옛날 길거리 간식이 사실 번데기조림이었다. 종이로 접은 삼각봉투에 수저로 담아주던 번데기는 오십이 넘은 이들에게는 어릴 적 가끔 먹던 음식 중 하나였다.


상추물국수


작약꽃전


개발딱주장아찌

망종의 음식은 채전밭에 채소가 무엇인지를 보고 알 수 있다. 밭이 넓기에 갖은 채소 씨앗을 소중히 받아두었다가 파종 때 잊지 않고 씨를 뿌린다. 밭에서도 잎채소가 가장 실한 시기다. 늦게 심은 로메인 상추와 꽃상추 덕분에 점심 한 끼는 국수를 즐겨먹게 된다.

국수고명에 상추를 맛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권하기도 한다. 맑은 장국물을 끓인 뒤 상추를 넣어 익히고, 삶은 국수에 두어 국자 얹어 내어 깨만 조금 뿌려도 한 끼 식사로 부족함이 없다.

오랜만에 함양장에 다녀왔다. 산에서 채취해보는 깊은 산나물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때다. 특히 개발딱주가 한창이다. 단풍취라고 불리는 개발딱주는 보라색 줄기를 먹는다.

장아찌를 담그려고 다듬다 보니 모르고 줄기를 잘라 버리기 일쑤다.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며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면 줄기를 다 잘라 버린다. 갑자기 일손을 얻어 10㎏의 나물을 다듬어 보니 나가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럴 땐 효소를 담그는 수밖에 없다.

항아리 하나를 비워두고 봄의 냉이부터 가을 산초까지 야생초는 모두 효소거리다. 같은 양의 당을 넣어 버무린 후 항아리에 넣고 밀봉해둔다. 마침 수강생들이 오는 날이라서 맛을 보여주려고 나물을 무쳤다. 감탄사를 연발하는 이들이 느끼는 또 다른 맛의 향연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시절이 매년 되풀이 되니 얼마나 행복한가? 좋은 산채를 때맞추어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다.

산그늘 가득 아카시아꽃이 피었다. 가시가 유독 강해서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꽃을 한 줌 따서 꽃튀김을 하고 도량 여기저기 제멋대로 피고 지는 작약꽃을 따서 전을 부친다. 망종에 먹는 국수 한 그릇과 작약꽃전 한 접시, 지난해 담가놓은 개발딱주장아찌를 곁들여 산사의 밥상을 차린다.

모처럼 방문한 일요일의 방문객들이 기대하지 않은 밥상을 맞이하고 감사의 말을 전한다. "스님은 언제나 이렇게 좋은 음식 드시니 화색이 좋으신가보다"라고….

상추물국수
재료 : 상추100g, 국수 100g, 마른표고 5개, 다시마 30g, 가죽대 말린 것 10g, 집간장 2큰술, 깨소금1T
1. 마른표고와 다시마, 가죽대를 냄비에 넣고 물 5컵을 부은 후 7분간 끓인 다음 건져낸다.
2. 물을 끓이다가 국수를 삶아낸다.
3. 채수에 간장과 상추를 넣고 끓인다.
4. 그릇에 국수를 넣고 장국을 붓는다.

작약꽃전
재료 : 작약꽃 한 송이, 밀가루 1컵, 집간장 1T, 전분1t
1. 꽃잎을 낱낱이 떼어서 맑은 물에 담가 씻은 다음 채반에 올려 물기를 뺀다.
2. 밀가루와 간장, 전분을 넣고 풀국을 만든다.
3. 팬에 밀가루를 붓고 꽃을 얹어 지져낸다.

개발딱주장아찌
재료 : 개발딱주 1㎏, 집간장 2컵, 조청 1컵, 물 5컵, 소금 1컵
1. 소금에 물을 붓고, 소금물을 만들어 개발딱주를 절인다.
2. 한나절 절인 산나물을 건져서 두 번 헹군 후 그늘에 말린다.
3. 집간장과 조청, 물을 섞어서 냄비에 넣고 끓여서 장물을 만든다.



김동일의 건강 한방
⑪ 과민성 장증후군

과민성 장증후군, 정신적 안정도 중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배설 역시 중요한 일이다. 배설이 원만하지 못하면 식사를 비롯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아랫배를 부여잡고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는 직장인들이 있다. 설사, 혹은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면서 체중감소나 다른 영양상의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 대부분은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진단된다.

과민성 장증후군을 과거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매우 흔한 질환이며, 음식 섭취 유형이나 긴장된 현대인의 삶과 닿아 있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질환은 대변의 문제는 물론 아랫배의 통증을 자각하게 하는 흔한 질환이다. 만성 골반통으로 부인과 의사에게 의뢰되는 환자의 약 60%가 이 질환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다양한 배경적 원인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질환을 앓게 되면 장이 조금만 팽창해도 통증을 느낀다. 긴장 등의 원인으로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있어도 배뇨근이 수축되어 뇨의를 느끼고 자주 소변을 보는 '과민성 방광' 환자처럼 음식이 들어오거나 배에 가스가 생기는 등의 이유로 장의 평활근이 늘어나면 그 정도에 비해 심하게 근육의 확장에 반응하게 된다. 그 결과로 복통을 느끼게 하고 결국에는 배변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은 분명 장의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로 여겨진다. 또한 이들의 장운동은 지나치게 강한 압력을 나타내고 불규칙한 양상을 나타낸다. 어쩌면 마음이 흔들려 장마저 요동치고 있는 셈이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이 호소하는 대표 증상으로 우선 복통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부팽만, 설사 혹은 설사와 변비의 반복, 배변 전 통증의 증가 및 배변 후 통증의 경감이 나타난다. 이렇게 소화기관의 불편과 무른 변이나 설사 등을 반복하지만 잦은 배변으로 내보내는 내용물은 대부분 수분이므로 체중감소나 의미 있는 영양상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질환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기름기 많은 음식 섭취, 스트레스, 불안, 우울, 월경 등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것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장운동이나 장의 평활근 수축 정도가 심해져서 통증이 악화된다. 통증은 주로 간헐적이나 때로 지속적이고 쥐어짜는 듯하고 왼쪽 아랫배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직장 검사를 시행하면 과민한 결장이 만져지거나 불편감과 동시에 굳은 대변이 장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대표 증상은 복통.

장의 감각 지나치게 예민하고
기름진 음식, 스트레스 등 원인
현미밥 등 식물성섬유음식 섭취
사찰음식, 참선, 명상 등 도움

이처럼 과민성 장증후군은 증상이 전형적이고 다른 질병의 진행과 관련된 증상이 복잡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문진과 신체검사만으로 임상적인 진단을 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언급한 증상과 증후의 소견이 있으면 추가적인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확진을 위해 일반 혈액검사, 대변의 백혈구 및 잠혈반응 검사, S-결장 검사, 대장경 검사, 바륨관장 검사 등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검사는 나이가 많은 환자나 초기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젊은 환자에서 다른 원인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당연히 이 모든 검사가 정상이면 답은 과민성 장증후군이다.

흔히 제공하는 대증적인 치료로 환자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도 '가짜 약'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원인들이 결합되고, 심리적 요인이 내재된 경우가 많아 완고한 환자의 경우에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내과, 정신과, 부인과 등 여러 진료과가 협력하여 종합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 관점에서는 환자들이 현실에 대한 불안을 내면에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안감의 해소가 필요하다. 이런 점 때문에 불교의 명상과 같은 '참 나'를 발견하도록 하는 수행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과민성 장증후군을 정서적 자극인 칠정(七情)에 의해 발생하는 소화기 증상으로 보고 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불안과 장기능의 균형을 잡아주는 침 치료가 유익한 경우가 많다. 또한 한약으로는 곽향정기산이나 삼령백출산 등을 자주 활용한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참선을 포함하는 정신 수양이 좋다. 또한 장내 미생물의 서식을 돕고 일정한 대변의 형태와 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미밥, 배추, 열무김치, 시금치 등 식물성 섬유가 풍부한 음식 위주로 먹도록 한다. 골반통이나 복통에는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적합하지 않다.

우유, 버터, 치즈 등을 피하고, 매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도 먹지 않도록 한다. 커피나 탄산음료의 섭취도 피하는 것이 좋다. 사찰음식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장〉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